

蘭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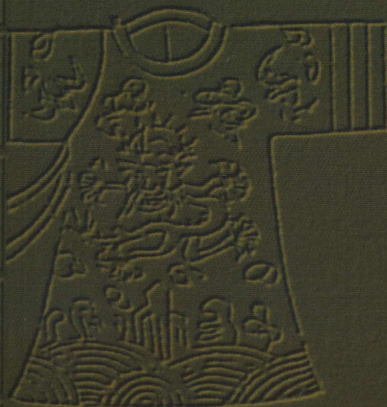
戰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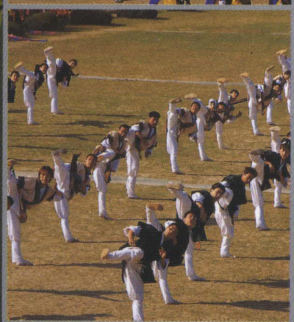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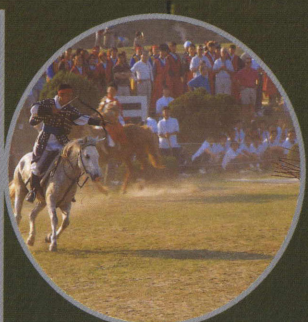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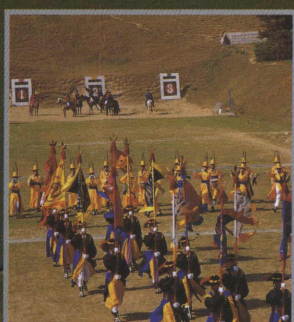
장용영과 24반무예

김영호 著

蟒繡衣



提督劔本國劔雙劔月刀拔刀藤牌
戰巾蟒繡衣或青紅黃斑爛衣青紅黃袴
劔交戰集法者著蘭頭音感覆頭解網巾條束
轎葫蘆頭衣袴襪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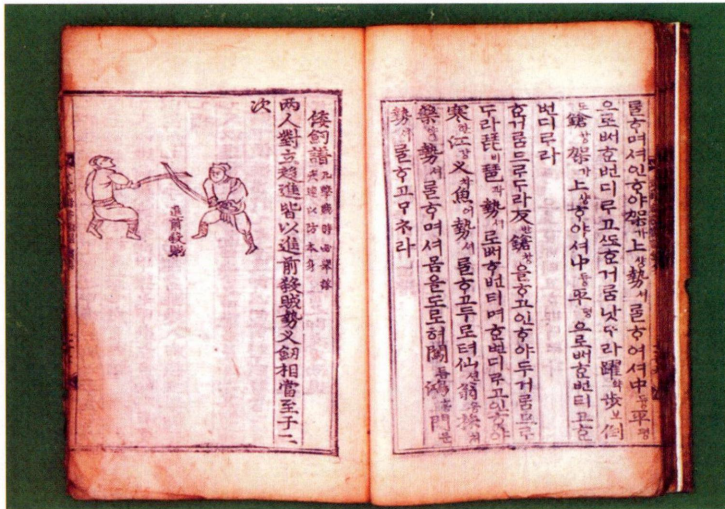


88

장용영과 24반무예



수원문화원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

훈련도감 도청 최기남이 1610년(광해군2)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이 책에는 4가지 무예가 실려 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정조의 명을 받은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가 편찬에 참여하여 1790년(정조14) 장용영에서 간행한 것으로 한·중·일 삼국의 24가지 단병무예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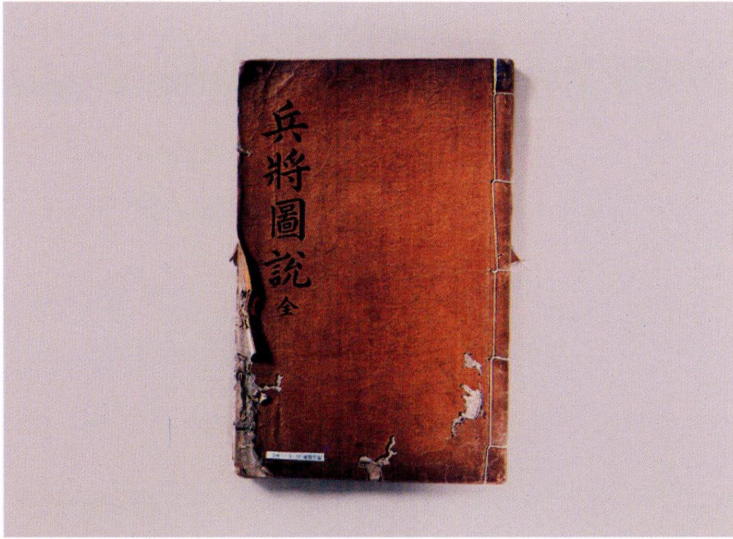
병학통(兵學通)

정조의 명을 받은 훈련대장 장지항이 <병장도설>과 <속병장도설>을 집대성하여 1785년에 펴낸 것으로 <무예도보통지>와 짝을 이룬다.



무비지(武備志)

명나라 말의 병법가 모원익이 1621년에 총 240권으로 펴낸 이 책에 조선세법이 실려 있다.



병장도설(兵將圖說)

세조가 1451년에 편찬한 <진법(陣法)>을 영조가 오위(五衛) 체제의 복원을 염두해 두고 <병장도설>로 이름을 고쳐 1742년에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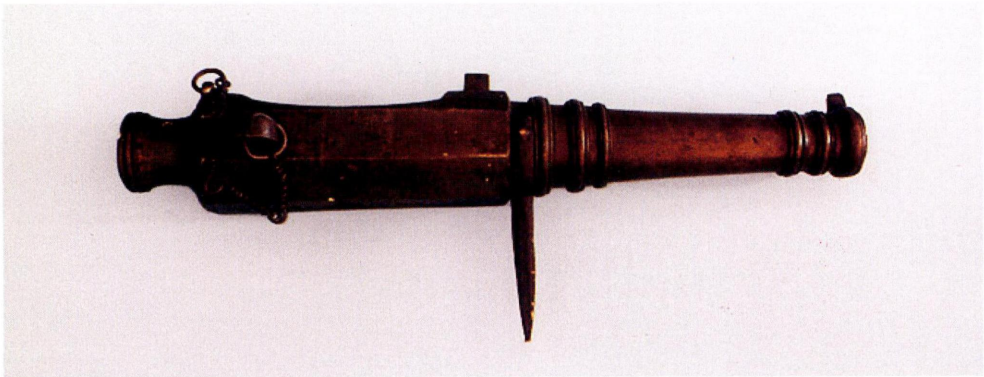
이진총방(隸陣總方)

국왕 호위부대인 용호영 기병의 진법을 풀이하여 1783년(정조7)에 펴냈다.



조총(鳥銃)

조선후기에는 군사들의 대부분이 조총을 쓰는 포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쓰임에 따라 평조총·단조총 같은 여러 가지의 조총이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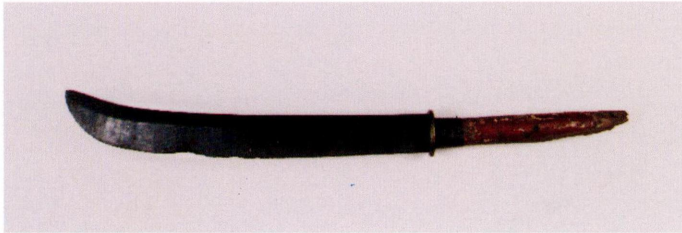
불랑기(佛狼機)

1789년에 장용영에서 제작한 불랑기. 포르투갈에서 전래된 불랑기는 조선후기에 널리 쓰였던 화기의 하나였다. 육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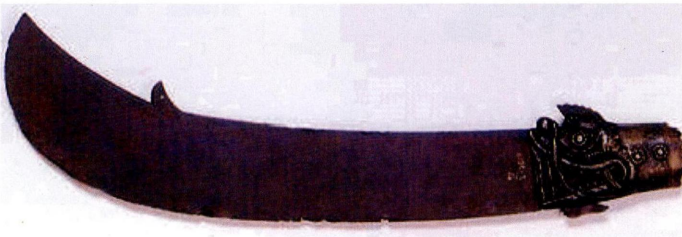
호준포(虎包)

이름처럼 화포의 모양이 호랑이가 웅크려 앉아 있는 것처럼 생겼다.



협도(挾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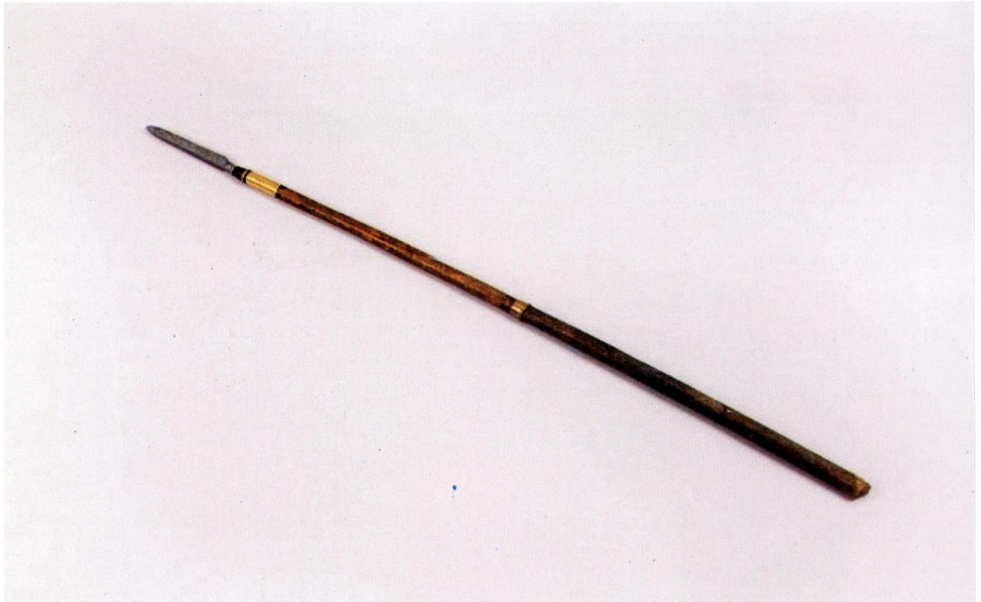
현재 온전한 모양을 갖춘 협도는 남아 있지 않다. 칼날의 폭은 월도보다 좁으나 자루는 더 길었다.



월도(月刀)

칼날의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긴 월도는 협도와 함께 자루가 칼날보다 길어 위력적이다. 맨 아래, 이삼(李森) 장군의 유품. 칼날을 아래 용머리를 장식하여 위엄을 드러냈다. 월도는 조선후기에 가장 많이 익혔던 무예의 하나로 18세법이 있다.





장창(長槍)

창 자루가 온전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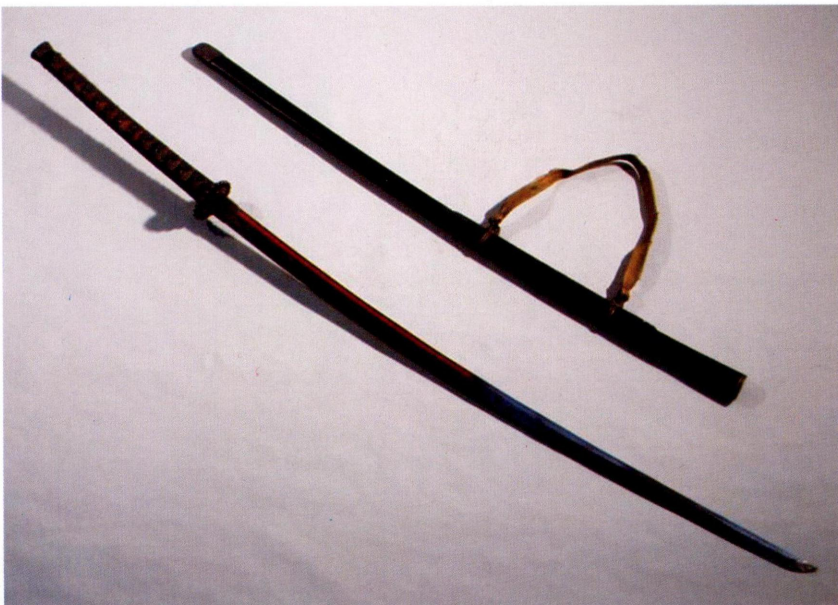


당파(鎗鉞)

장창과 대적하고 화기를 장착하기에 좋도록 창날이 셋이 달려 삼지창이라고도 불렀다.



환도(選刀)
칼집에 고리[環]가 달려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칼.



이순신 장군의 대도. 현충사



구군복을 갖추어 입고 있는 무관초상.

방거지를 쓰고 동달이를 입은 위에 겹 전복을 입고
허리에 남색 전대를 띠고 목화를 신고 왼편 겨드랑이에
환도를 차고 오른손에 등채를 들었다.



구군복(具軍服)

구군복은 무관의 의장용 군복.



투구

투구 위에는 삼지창이 달려 있다.



갑옷

고위무장이 입었던 갑옷으로 어깨 위에 용이 보인다.



속갓옷

갓옷 안에 받쳐입었던 속갓옷.



갓옷

기병들이 마상무예를 익힐 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갓옷.



망수의(蟒繡衣)

망수의는 가슴에 이무기를 수 놓은 옷으로 보군들이 18기를 익힐 때 입었다. 육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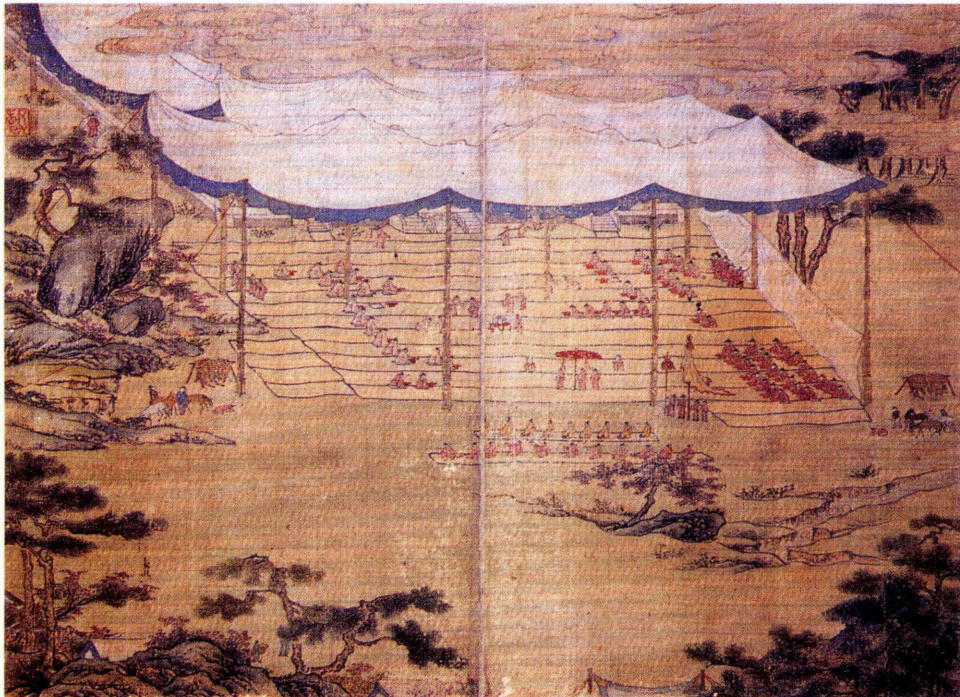
영기(令旗)

군대에서 명령을 내릴 때 사용했던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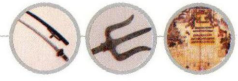
장영(壯營).

'옹'자가 가려져 '장영'이란 두 글자만 보인다.
장용영 청사의 현판 글씨로 보이나 정확하지
않다. 육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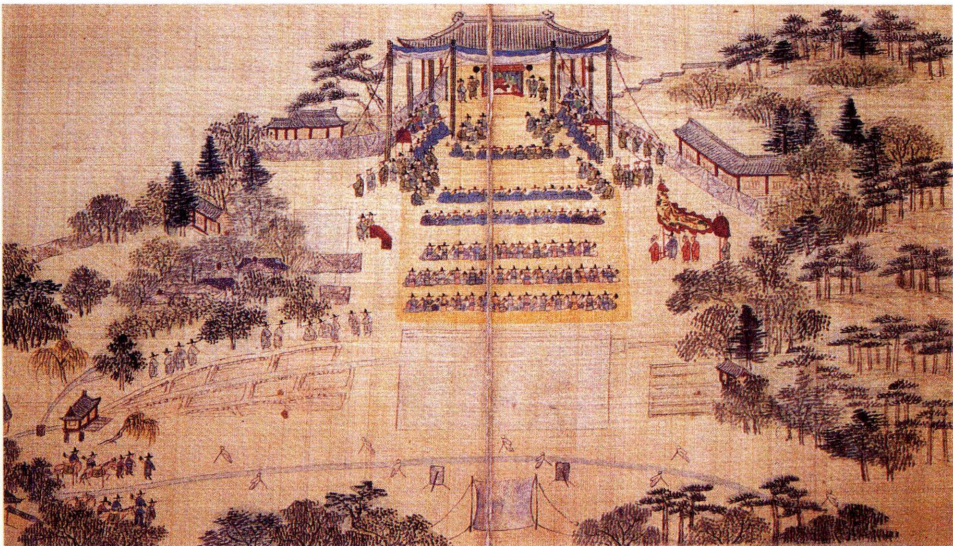
명묘서총대연회도(明廟瑞應臺宴會圖).

서총대는 정조시대에 장용영 무사들이 무예를 시험 보는 장소로 쓰였던 창덕궁 안에 있던 석대(石臺).
연세대학교박물관.



청룡도(靑龍刀)와 깃발.

조선후기. 무관들의 용맹과 힘을 시험할 때 청룡언월도를 시험 보았다.



영화당(映花堂)

〈준천계첩(漣川契帖)〉 중 '영화당친림사선도(映花堂親臨賜膳圖)'. 그림 아래 부분에 기추(騎笏)를 시험보기 위해 말이 달리는 길 좌우에 짚인형을 여러 개 세워 놓은 것이 보인다. 말을 달리며 좌우에 놓인 짚인형을 쏘아 맞추는 기추는 조선의 으뜸가는 무예였다. 부산시립박물관.

여 백

24반무예의 고장 수원 화성

수원 문화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수원시민과 후손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후기 정조시대의 군사 조직과 군사훈련, 군사력의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원의 도심에는 아름다운 화성이 있습니다. 200년전 화성을 건설하면서 수원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은 수원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고 화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장용영 외영이 주둔했던 곳이며, 장용영 군사들은 화성 건설의 주역이었습니다. 정조시대의 개혁정치와 실학사상이 구현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반무예는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익혔던 국방무예였습니다. 수원과 장용영, 화성과 24반무예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화성 연무대는 장용영 무사들이 사격술을 익히고, 24반무예를 연마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매년 화성 연무대에서 열리는 ‘정조시대 전통무예전’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용영과 24반무예의 관계, 즉 장용영 군사들이 24반무예를 얼마나 익혔으며, 어떻게 시험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런 의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문화원에서 펴내는 본 자료집을 통해 장용영과 24반무예의 관계를 이해하고, 화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집의 집필을 맡으신 24반무예협회 김영호 대표, 감수를 맡으신 정동진 박사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집을 펴내느라 수고하신 코아기획의 박시혜영 대표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2월

수원문화원장 김 중 기

수원 화성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인정받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은 백성들의 생활의 터전이자 장용영 외영에 소속된 군사들이 주둔했던 군사기지였습니다.

1793년에 수원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고 장용영 군사들이 주축이 되어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정조대왕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한 규장각과 장용영이 존재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규장각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장용영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논할 때 장용영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1790년에 정조대왕의 명으로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와 박제가, 장용영 초관 백동수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여 장용영에서 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무예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창검무예 24가지를 그림과 설명으로 풀어놓은 『무예도보통지』는 조선후기 군사들의 무예교범서로 활용된 책입니다. 장용영 외영의 군사들도 『무예도보통지』를 교범으로 삼아 24반무예를 익혔습니다. 이처럼 24반무예의 완성과 보급의 중심에 화성과 장용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본 자료집의 상당 부분은 『장용영고사』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장용영고사』는 장용영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24반무예를 시험했던 내역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먼저 장용영과 24반무예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무인을 천시하고 무예를 소홀히 했던 문약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지만 장용영과 24반무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평가가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성은 200년 전 장용영 외영의 무사들이 24반무예를 연마했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장용영 무사들이 24반무예를 시험 보았던 기록과 장용영에서 제작했던 군물을 도표로 정리한 것

을 신습니다. 현재 체육학계는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무예도보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24반무예를 군사들이 연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러한 의문에 해답을 내려 줄 것입니다. 장용영에서 제작한 군물(軍物)을 정리한 도표를 통해 장용영에서 어떤 종류의 군수물자가 언제 얼마나 제작되어 어떻게 쓰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앞에는 정조시대에 쓰여졌던 24반무예 관련 병장기와 병서·군사들의 의복·시험을 보았던 장소에 관련된 자료를 화보로 싣고, 맨 뒤에는 군사관련 용어를 풀이하여 실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의욕을 갖고 시작했으나 한문으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것이나, 군사용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사에 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밀에 속한 것이 많아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란 벅찬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한문으로 된 자료를 번역하고 자료집의 내용을 살펴 주신 정동진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료를 모으느라 애쓴 이경석 사범과 양준모 연구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24반무예가 화성과 짝을 이루어 수원과 경기도,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이 자료집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무형의 문화 유산인 24반무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2월

김 영 호

목 차

화보	3
발간사	17
책을 펴내며	18
장용영 소사	21
24반무예의 역사	45
장용영 무예시험	72
24반무예의 병장기	82
장용영 군물도표	91
정조시대 군사용어	101
참고문헌	127

장용영(壯勇營) 소사(小史)

1. 머리말

정조시대의 규장각과 장용영은 문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정조시대에 찬란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두 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규장각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지만 장용영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장용영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것은 우선, 규장각은 정조가 서거한 이후에도 조선말기까지 존속했으나 장용영은 곧장 폐지되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선은 문을 숭상하는 나라라는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정조시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무예사를 연구하는데 장용영에 대한 연구는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기존의 오군영을 개혁하여 오위체제로 복원하려 했다. 부분적이지만 1798년에 장용영 외영을 오위의 제도로 복원했던 것은 군제사에 있어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군제 개혁과 강병 육성의 산실이었던 장용영도 그 수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1800년 정조가 서거한 뒤 권력을 장악한 벽파에 의해 1802년 초에 해체되고 말았다.

장용영은 완권 강화와 군영운영의 모범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후대에도 장용영을 모범으로 한 군영 창설이 이어졌다. 헌종대(1846년)에 창설되었던 총위영이 이를 대표한다.

군사제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장용영의 발자취를 통해서 24반무예의 역사는 물론 정조시대의 지향점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2. 장용영 건설 배경

1) 지휘체계의 일원화

조선의 중앙 군영은 오위(五衛)체제였다. 오위체제는 왕-병조판서-군영대장으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오위체제가 무너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오위를 대신하여 1593년에 창설된 훈련도감은 오위와 달리 모든 군병이 급료를 받았던 지원병으로 구성되었다. 전란 중에 임시 기구로 만들어졌던 훈련도감이나 비변사 같은 임시기구가 상설 기관으로 자리했던 이면에는 17세기의 긴박한 정세와 관련이 있다. 이후 인조반정을 주도한 이귀 등 서인들의 주도로 수어청·총융청·어영청을 건설하였고, 1682년에 훈련별대와 정초청을 합하여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이 5개의 군영이 조선 후기의 오군영이다. 그러나 군영이 늘어나면서 병조판서를 정점으로 하던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말았다. 병조판서는 군사 행정을 총괄하면서 오군영의 하나인 금위대장만을 겸임했다. 따라서 각 군영의 대장은 병조판서의 지휘를 받지 않고 휘하 군사를 사병처럼 부릴 수 있었다. 군영대장이 특정 당파를 지원할 수도 있는 구조는 왕권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영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54년 금위영을 병조와 분리하고 병조판서에게 오군영의 총지휘권을 부여하여 조선 초기의 오위와 비슷한 오영체제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금군 조직인 용호영은 궁궐 안을 호위하고,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삼군문은 한성을 방위하고, 수어청과 총융청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근거로 한성 외곽을 방어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같은

영조의 군사제도 개편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조의 군제개혁에도 한계가 있었다. 병조판서가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영의 대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지휘계통이 통일되지 못했던 것이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이러한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군제를 개혁하려고 준비했다. 그 대안으로 창설한 군영이 장용영이다.

2) 장용영 창설의 방안

새로운 군영을 창설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드는 데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였다. 훈련도감 같은 군영은 소속된 군사 전원에게 급료를 지불하였다. 백성들에게 걷는 세금으로는 훈련도감의 경비로도 부족하였다. 백골징포, 환구첨정 같은 폐단도 이 때문에 나타났다. 효종 시대부터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군영을 줄이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정예한 군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정조는 "쓸모 없는 군사는 도태시키고 낭비되는 군량은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군영 가운데 충융청과 수어청을 없애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군영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대신들의 저항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1795년 8월에 수어청을 폐지하고 충융청을 독립군영으로 만들어 기존의 오군영체제를 삼군영체제로 전환하고자 말았다.

정조는 장용영을 창설하면서 "한 군영이 설치될 때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다. 이렇게 한다면 원대한 계획이 될 수 없다. 내영과 외영의 군수물자와 군량은 나라의 경비에 의존하지 않는다." 며 창설 비용의 대부분을 왕실의 사금고인 내탕금(內帑金)으로 충당했다.

정조는 내탕금을 곡식으로 바꾸어 여러 도에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를 비싸게 받아들이던 내수사의 토지를 없애 버렸다. 이와 함께 백성들에게 부과

되었던 잡다한 부역을 가볍게 해주었다. 평안병영이 있는 안주를 비롯하여 박천, 정주, 가산 등 네 곳에 장용영이 관할하는 둔전을 설치하고, 1992년부터 박천에 장용영 대장의 직할 부대를 두어 겸(兼)파총을 두어 둔전을 관리하게 하였다.

3) 장용위 출범

정조는 1782년 훈련도감의 정예 무사 30명을 선발하여 숙소인 명정전을 숙위하도록 하였다. 3년 뒤 1785년 20명을 더해 정식으로 50명의 숙위군을 모태로 장용위라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였다. 장용위는 정조를 호위하는 친위부대였다. 정조는 장용영 창설하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군사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지휘권을 무관이 갖도록 인사정책을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1778년 6월 정조는 대신들에게 백성의 살림, 인재 육성, 군사 문제, 재정에 관한 개혁 방침을 알렸다. 이때 정조는 '이전에 군대가 오위체제로 조직되었을 때는 중앙의 지휘권이 지방까지 미쳐 명령계통이 일원화되고 보병과 기병이 한 무리로 움직였는데, 임란 이후 훈련도감을 설치한 이래 오위체제가 폐지되어 군사지휘권이 분산되었다'며 오군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785년 7월 2일에 정조의 친위부대로 장용위가 출범했다. 정조는 친군, 무용, 장용 세 가지 중에서 장신급의 무신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친위부대의 이름을 장용위라 결정하였다. 1787년에는 장용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 해 한 동안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던 창경궁 종묘 옆 이현의 옛 관청 터에 장용영 청사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788년에는 삼청동에 장용영의 물품 창고인 북창을 건설하였다. 문헌상에서 장용영이라 부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88년 1월부터였다. 동부 연화방 이현에 있는 장용영 청사는 446칸의 규모다.

부속 건물로 76칸의 직방, 99칸 반의 치소, 191칸 반의 복창 등이 있었다.

장용영의 규모를 단시일 안에 확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경비를 조달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고, 대신들의 반대 여론도 높았으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군사를 선발하는 일도 단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다.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예별감 같은 정예의 군사를 장용영으로 옮겼다.

그리고 1788년부터 장용영 군사를 진위, 양성, 용인, 광주, 양주, 고양 등지에 나누어 주둔시켜 서울과 수원의 외각 경비의 임무를 맡겼다.

4) 장용영의 위상 강화

장용영의 출범 목적은 국왕 호위에 있었다. 정조는 기존의 금군부대인 용호영을 두고 장용영에 자신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겨 장용영의 위상을 높여 주었다. 여기에다 『무예도보통지』를 비롯한 다양한 병서를 편찬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장용영이 창설되기 전에는 훈련도감이 병서 편찬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무예제보』를 비롯하여 『권보』, 『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신보』 같은 무예서적은 모두 훈련도감에서 주관하여 편찬한 병서이다. 정조는 이런 기존의 관례를 깨고 친위군영인 장용영에 병서 편찬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병서 편찬의 임무를 장용영에 부여한 것은 장용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 장용영에서 펴낸 병서 중에 『병학지남』과 『무예도보통지』는 조선후기의 병서를 대표한다.

3. 장용영 편제

1) 신작대

장용영은 신입 무사를 대상으로 10명 단위의 신작대를 편성하여 훈련을 하

였다. 기(1초는 3기로 구성)를 편성하여 훈련하였다. 이들의 무예 성취를 살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담당 교관에게는 부상을 주고, 성적이 불량한 교관에게는 벌을 내렸다. 왕이 친림한 가운데 창경궁 안의 춘당대에서 열렸던 대비교는 사격술과 창검연무 둘로 나누어 치러졌다.

장용영은 기강과 기율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창설 초기 장용영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에 부쳤다. 장용영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들이 양반과 사귀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했다. 장용영에 입영한 무사들에게 교육시켰던 10가지 계령(戒令)이 있다. ① 군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② 양반과 통하지 말 것, ③ 곡식 등 물건을 거두지 말 것, ④ 주먹질이 나 병기를 들고 싸우지 말 것, ⑤ 도포와 당혜(唐鞋)를 입거나 신지 말 것, ⑥ 군장을 빌리지 말 것, ⑦ 잡기를 하지 말 것, ⑧ 무뢰배와 사귀지 말 것, ⑨ 두목을 업신여기지 말 것, ⑩ 거리에서 술주정을 하지 말 것 등이다.

국왕 호위를 책임지는 장용영 군사들의 기강과 기율은 어느 군영보다 철저했다. 이러한 점이 단 기간에 훈련도감을 위시한 오군영을 압도하는 핵심 군영으로 육성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다.

2) 선기대와 18기군

장용영은 기병과 보병, 선기대와 장용위로 나누어져 있다. 기병 2초는 좌우열 선기대라 불렸다. 선기대는 마상재, 기추, 마상월도 같은 마상무예 취재(선발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장교로 구성되었다. 즉 이들은 마상무예를 전문으로 익혔다. 보군은 훈련도감군 중에서 조총과 창검무예를 시험하여 선발한 최정예로 모두 급료를 받고 복무하였다.

1787년부터 장용영 초(哨)에서 무사 30명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18기를 전문으로 익히도록 하였다. 창검을 전문으로 익히는 군사를 용검수, 용검군, 혹은

창검군 같은 명칭으로 불렸으나 정조의 교시에 따라 이때부터 '18기군'으로 불렸다. 18기군이란 『무예신보』를 펴내 무예 18기를 정립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며 정조가 친히 지어 내린 이름이다. 18기군 중에서 창검에 능하고 사격술에도 뛰어난 군사는 '능기군'이라 하여 특별히 우대했다. 18기군과 능기군을 구분한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장용영 군사들에게 창검무예를 먼저 익히게 하여 담력과 체력을 기르도록 훈련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선기대

선기대는 장용영의 용맹을 널리 알린 부대였다. 1790년 11월 『정조실록』을 보면 장용위의 용맹을 알리는 정조의 말이 실려 있다. 즉 '얼음이 깔린 도랑과 발두둑이 매우 좁은 곳을 말을 타고 달리기를 마치 평지를 달리듯 하여' 이것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모두 감탄하기를 '사람과 말이 나는 듯하여 신병(神兵)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숙종 말부터 전국의 주요한 읍과 진(鎭)에 기병부대가 꾸준히 창설되었다. 조선후기에는 함경도의 친기위, 평안도·황해도·경상도의 별무사, 동래의 별기위, 수원의 별효기사 같은 기병부대가 있었다. 1782년에 간행하여 반포한 『이진총방』은 용호영의 금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병서였다. 물론 기병 전술이 이 책의 핵심이다.

1785년에 간행한 『병학통』에도 기병을 운용하는 진법을 수록하였다. 선기대에 소속되는 무사들은 무예를 시험 보아 선발하였다. 선기대는 좌초와 우초 둘로 편제되었다. 좌초의 선발과목은 마상재(馬上才)였고, 우초를 선발할 때의 무예과목은 유엽전·기추, 그리고 마상별기를 보았다. 1793년 수원에 설치된 장용영 외영의 마병은 친군위라 하였다. 친군위 역시 선기대와 같은 방식으로 무사를 선발하였다.

장용영은 약 120명 내외의 병사들로 구성된 초(哨)를 기본 단위로 편제가 이

루어져 있었다. 초를 단위로 편성한 것은 장용영을 비롯한 모든 군영에 적용되었다. 당대 군영의 기본 편제는 전·후·좌·우·중초의 5초로 편제된 것을 1사(司)라 하고 5사를 1영(營)이라 하였다. 1초는 3기(旗)로, 1기는 3대(隊)로 나누어진다.

초를 책임지는 지휘관을 초관이라 하였다. 초관 이상의 지휘관을 장관(將官), 초관 아래의 초급지휘관을 장교라 하였다. 9품부터 4품까지의 무관을 초관에 임명하였다. 초관은 군사들의 무예와 진법 훈련을 책임졌다. 장용영 내에서 창검을 전담하는 초관을 '창검초관'이라 불렀다. 창검초관의 감독 아래 지구관, 교련관 같은 숙달된 장교들이 군사들의 진법과 무예를 지도하였다.

18기군

1789년부터 초관 백동수와 지구관 여종주, 김명숙을 중심으로 무예훈련이 이루어졌다. 18기군 30명을 두 반으로 나누고, 담당 교관을 두 명으로 정해 교관 1명이 15명씩 무예를 교습했다. 18기군의 담당 교관은 18기군의 훈련에 임하는 태도와 실력의 향상 정도를 개인별로 기록하여 보고했다. 정조는 친히 무예를 지도하는 이현 외영의 연무장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18기군의 무예 기량을 시험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처음에는 교련관 1명이 18기군 15명씩을 지도했으나 1790년 4월부터 장용위에서 교관을 2명 선발하여 이전 교관과 합해 모두 3명의 교관이 각각 5명을 지도했다. 그리하여 18기군은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비로 목욕하며, 찬바람을 맞고 더위를 먹으며 무예를 수련하였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맹렬하게 훈련을 하였다.

4. 장용영의 운영

1) 장용영 인적 구성

장용영의 내외영제는 1793년 1월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 하면서 구체화하였다. 수원 유수에게 장용외사의 직무를 갖게 하였다. 이때부터 수원을 외영이라 하고, 한성에 있는 본영은 내영이라 하였다. 내영을 지휘하는 장용영 병방의 칭호를 장용사라 하고 문서상에는 장용대장이라 기록하였다.

장용청 초대 병방은 이한풍, 2대는 유효원이 맡았다. 장용청을 장용영으로 승격한 1788년 이후부터 병방이라 하지 않고 대장이라 불렀다. 김지묵, 서유대, 조심태, 신대현, 정민시 등이 장용대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무장이었다.

장용영에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처럼 대신급의 도제조 1원을 두었다. 도제조는 호위청 대장의 직분을 가진 대신에게 한정되었다. 도제조가 명목상의 책임자라면 장용사가 본영의 실제 총책이었다. 장용영의 직제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제조 1원, 향색제조 1원, 장용사 1원, 종사관 1원, 선기별장 2원, 중군 파총 5원, 선기장 3원, 초관 25원, 액외 장용위 15원, 지구관 21원, 무예통장 2원, 별부료 2원, 교련관 20원, 패장 8원, 약방 1원, 침의 1원, 화원 1원, 사자관 1원, 별무사 36인, 부료 무사 16인, 서리 16인 등이다.

2) 내영

장용영 본영은 한성 이현 연화방에 있었다. 1793년까지 장용영의 병력은 모두 17초였고, 그 중 내영에만 3군 15초가 소속되었다. 2년 지난 1795년에 10개 초를 더 늘여 1영 5사 25초의 편제를 갖추었다.

마보군 3초로 출발한 장용위는 내외영제가 성립되면서 2초를 더 늘여 5초 1사(司)를 이루었다. 장용영 군사들의 대부분은 훈련도감에서 차출한 병력이다. 그밖에 금위영, 어영청, 군기시에 소속된 군사들도 상당수 장용영으로 옮겼다.

장용영 향군의 모체가 되었던 내영 후사 5초는 궁중에 필요한 썰 사냥을 전담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이다. 사냥을 전담하는 군사 3초를 장용영 소속으로 정하고 이들을 각 읍의 향군으로 삼고 이들에게는 장용영에서 둔전을 지급하여 생계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1795년 5월에 5사 25초의 제도를 갖추었다. 향군으로 편성된 좌사와 우사는 한강 이남의 수원 인근 읍의 8개 초이고, 후사는 양주·장단 두 읍의 3개 초였다. 수원부에는 용인·진위·안산의 3읍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병력만으로는 화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성체제를 갖추는데 부족하여 충유청에 소속되어 있던 시흥과 과천을 수원부로 옮겼다.

5. 장용영 외영 건설

1) 장용영의 수원 관할

1789년 10월,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이라 했다. 화산으로 원행을 할 때는 장용영이 정조의 호위를 담당했다.

정조는 현릉원 이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10월 15일, 춘당대에서 특별시험인 관무재를 열었다. 열무를 한 뒤 벌어지는 관무재 초시에는 『대전통편』의 규정대로 무예 18기를 시험 보았다. 정조는 과거에 급제한 2000여 명의 무사들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용영에 배치했다.

1789년, 수원의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장용영에서 수원부를 관할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부사를 지낸 김혁과 김백빈, 선전관을 지낸 최명건을 수원부 초관에 임명하였고, 18일에는 장용영 향군 5초를 가설했다. 장용영에 향군을 설치하면서 경기도를 위시한 민간에 상무의 기풍을 전파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조는 장용영을 건설할 때 경기도 출신의 무사를 주축으로 삼았다. 경기도 출신 병력은 장용영 외영이 건설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장용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초관의 선발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보통 장관을 선발할 때는 가문, 문벌, 신분을 중시했으나 장용영은 중인과 서얼 출신의 무관을 적극 수용하였다.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에 참여한 백동수 역시 서얼이다. 이처럼 장용영은 무관을 선발할 때에도 문벌보다 능력, 즉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무예실력을 중시하였다.

2) 화성 성역

정조의 개혁정치는 기득권 세력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개혁이 위기에 직면하자 정조는 마지막 대안으로서 화성 건설과 수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수원과 한성의 중간에 위치한 독산산성을 수축한 뒤 수원부가 시흥과 과천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1789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양주 배봉산에 있던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였다. 정조는 수원을 육성하여 개혁의 진원지로 삼으려 했다. 화성을 축조하는 논의는 1793년 말에 본격 논의되었다. 재정은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에 소속된 번상군에게 10년을 한정하여 매 번에 1초식 감하여서 번을 서는 대신 내는 돈을 축성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화성 건설의 실무는 감동당상인 조심태가 책임지고, 체제공이 총리대신으로 사업을 총괄하였다. 정조는 8도 병영에 명을 내려 성지(城池)의 모양을 그려 올리게 하였으며, 특별히 정약용에게 성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화성의 축성법은 유형원이 『반계수록』에서 제시한 것을 대부분 따랐다. 성역은 1794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잠시 중지하였다. 가뭄으로 농사가 흉년이었기 때문이다. 공사를 중

지하는 대신 토지를 개간하여 그 흙으로 성벽 뒷벽을 보강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1년 뒤에는 장안문 밖 들판에 대규모의 둔전이 완성되었다.

10년을 계획하였던 공사는 1796년 9월에 완료되었다. 불과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 화성 성역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단 기간에 성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의 신선했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과 승군(僧軍)들의 부역으로 공사를 하던 관행을 버리고 인부와 장인을 모집하고 임금을 지불하여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였다. 화성의 둘레는 4600보(약 5520미터)나 되었다. 성역에 동원된 인원은 연인원 37만 6천 명이었으며, 전 87만냥과 곡 1500석의 경비가 들었다.

화성을 축조할 때 박제가의 주장을 수용하여 벽돌의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신무기의 발달을 감안하여 부대시설을 적절히 안배했다. 평시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 상업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읍성의 기능과 전시에는 외적을 방어하는 군사상의 기능을 하는 다목적 용도의 성이었다. 화성이 완공되자 수원 부사는 정2품 관인 유수로 두 단계를 올려 승격시키고 장용외사를 겸임토록 하였다.

3) 화성 외영

1793년에 수원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면서 장용영은 명실상부한 조선 최대의 중앙 군영으로 부상하였다. 물론 장용영 외영에서도 『무예도보통지』를 무예 훈련의 교본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장용영 외영의 군제절목』을 통해 외영군 가운데 보군이 유방할 때에는 날마다 무예를 연마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번을 드는 군사들의 자체 훈련 과정에서 18기를 『무예도보통지』에 의거하여

가르치고, 시험을 보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초마다 진법 교사 1명과 기예 교사 1명을 따로 두어 이들이 교습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장용영 외영의 마군인 친군위의 주된 임무는 화성 행궁을 호위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빼면 기예를 연마하는 것이 친군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친군위가 익힌 마상무예는 기창, 마상쌍검, 마상월도, 마상편곤, 마상재였다. 좌열과 우열 친군위 장교 가운데 마상무예에 능숙한 자를 선발하여 교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지도로 친군위 병사들에게 마상기예의 기초를 숙달하도록 하였다. 기추, 편곤과 함께 마상무예 6기 중 격구를 제외한 마상무예 5기를 유수영의 별군관의 시험 종목으로 규정하였다.

4) 입방군과 협수군

화성 장용영 외영에 소속된 총 42초의 병력 중에서 20초는 입방군, 22초는 협수군으로 편성하였다. 입방군은 번(番)을 드는 형식으로 행궁에 교대로 나가 근무를 서는 부대이다. 입방군은 화성 행궁을 지키는 주력군이기 때문에 정군(正軍)이라 불렀다. 입방군은 1년에 10초씩 5번으로 나누고, 1번에 2초씩 화성에서 복무하도록 하였다.

화성을 둘러싼 인근 경기도 각 읍의 군사로 편성된 협수군은 유사시에 화성을 지키는데 협력하는 임무를 가졌던 예비병력이다. 동성 협수군 3초는 용인현령, 남성 협수군 2초는 진위현령, 서성 협수군 3초는 안산군수, 북성 협수군 2초는 시흥현령, 유병장 2초는 과천현감이 맡아 지휘하였다.

입방군과 협수군과는 별개로 수성군과 성정군이란 병력을 따로 두었다. 속오군·아병·장초군 등 각 읍의 병력 총 27초를 입방군 7초·난후아병 5초·협수군 10초의 주둔 부대와 유격병 5초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입방군 7초는 본부 경내의 13초와 합하여 20초 4사를 이루었다. 이들의 지휘는 20인의 초관

과 각 읍의 수령이 겸 파총을 맡았다. 본부판관 겸임의 영성장 아래 4대문을 지키는 성장 4원, 치총 8원, 초관 16원, 수엽군관 47인, 타장 180인, 성정군 8,620명의 병력이 배속되었다.

5) 오위 복구

정조의 지시로 1798년 10월에 외영의 편제를 개혁하였다. 기존의 편제가 임진왜란 당시 수용한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의한 것인데, 이를 조선 초기의 오위법으로 복구한 것이다. 화성의 오위체제는 전좌중우후위로 나누었다. 전체 위를 장락위라 하고, 그 아래 5위를 팔달위·창룡위·신평위·화서위·장안위라 하였다.

각 위는 정병인 장락대와 성정인 위병의 대로 이루어졌다. 정병인 장락대는 입방군의 임무를 가졌고, 성정은 협수군의 임무를 이어 받았다. 장락대는 항상 화성에 근무하는 상근 부대였다.

장락대 오위는 매 위마다 위장 1명, 부장 5명, 통장 3명, 대정 9명의 지휘관을 두었다. 장락대는 화성 행궁에 상주하는 부대였으므로 정예군을 선발하여 편성하였다.

장용영은 선진 농업기술을 실험하고 보급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장용영 외영에서 경작하였던 둔전을 통해 수차, 수문 같은 농사 기계를 제작하고 이를 실험 한 뒤 전국의 둔전에 보급하는 역할이었다. 수원이 농업의 중심지가 된 것도 이곳이 200년 전 장용영 외영의 둔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6. 훈련 내용

1) 진법훈련

진법은 적을 맞아 아군의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 즉 여러 가지의 전투대형을

말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명성을 얻게 된 학익진을 비롯하여 원진, 곡진, 직진, 봉둔진 같은 다양한 진법이 있다. 전투에서 개인의 능력보다 전체의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진법은 팔도의 보병과 통제영에 소속된 수군을 망라하여 훈련하였다.

장용영을 비롯한 정조시대의 무사들은 장병 무기인 조총과 활은 물론 단병 무기인 창검무예를 함께 익혔다. 기예는 무사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용영에 소속된 마군과 보군에 소속된 무사들이 습득해야 할 기예는 두 가지였는데, 이를 원기(元技)와 별기(別技)로 구분하였다. 마군원기·마군별기, 보군원기·보군별기로 구분된다. 활과 조총을 다루는 사격술은 마보군의 원기이며, 24반무예는 마보군의 별기에 해당한다. 또한 마군별기는 마상재와 나머지 기예로 구분되었다. 마상재는 마상무예의 기초과목이자 필수과목으로 중시하였다.

군사훈련은 크게 진법훈련과 기예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진법은 초 당위 이상의 부대가 전투하는 대형을 중심으로 익히는 훈련이다. 가장 소규모 단위의 진법은 1명의 대장(隊長)이 10명의 대를 운용하는 원앙진이다. 이때 『무예제보』에 수록된 등패, 장창, 낭선, 당과 같은 병기를 사용하였다. 대장이 이들을 이끌고 좌우가 협력하여 적을 공략하는 최소단위의 진이다. 이는 16세기 명장 척계광이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 창안했던 진법으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참전한 명군에 의해 조선 군영에 전래되었다.

18세기에는 화약무기의 발전,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원앙진은 거의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단위의 전투에서는 응용하기 좋은 진법임에는 틀림없었다. 장용영은 당시 사(司)를 기본 단위로 진법을 훈련하였다. 5초약 600명의 군사가 한 단위가 되어 벌이는 연합훈련이다.

2) 기예훈련

장용영은 매월 한 차례 진법을 익히고, 3일마다 돌아가며 시사(試射)를 열어 활쏘기와 조총, 창검무예를 시험 보았다. 장관의 경우 매달 세 차례 활쏘기를 익혔다. 지구관과 교련관은 매월 두 차례 진법을 강론하였다. 훈련은 주로 외영에서 이루어졌다. 조총과 활쏘기 같은 사격술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력과 담력을 기르고 육박전에 필수인 권법, 창술, 검술을 훈련했다. 사격술과 창검술은 개인의 능력을 높여 주고, 진법훈련은 개인의 능력을 결집시킬 단결심을 키워 준다. 개인의 능력은 대오를 갖출 때 효과가 배가되었다.

신입 무사는 10명 단위의 신작대(新作隊)로 편성하여 훈련을 하였다. 기(旗: 1초는 3기로 구성)를 편성하여 훈련하였다. 이들의 무예 성취를 살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담당 교관에게는 부상을 주고, 성적이 불량한 교관에게는 곤장을 때렸다. 창경궁 안의 춘당대에서 왕이 친림한 가운데 열렸던 대비교는 사격술과 창검연무 둘로 나누어 치러졌다.

7. 무예훈련 장소

1) 춘당대와 서충대

내영의 훈련과 시험 장소로 쓰인 곳은 창덕궁 안에 있는 서충대였다. 이곳에서 장용영 무사들이 훈련하고, 그 동안 연마한 무예를 시험 보았다. 흔히 후원이란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군사들이 진법을 익히거나 활쏘기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었다.

춘당대는 특별무과인 춘당대시를 열었던 곳이자 장용영과 무예청의 군사들의 기예 시험을 보았던 장소였다.

춘당대와 서충대가 국왕이 친림한 자리에서 무예를 시험을 보았던 곳이라면

한강변의 노량사장은 오군영과 합동으로 진법을 익혔던 곳이다. 너른 백사장은 오군영의 군대가 합동으로 훈련하여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넓었다. 또 모의 전투를 하다가 혹 낙마를 해도 크게 다칠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진법을 훈련하는 장소로 애용되었다.

2) 화성 연무대

화성에 주둔하였던 장용영 외영 군사와 향군은 연무대에서 진법과 무예를 익혔다. 화성에는 두 개의 장대가 있는데 하나는 서쪽 팔달산 위에 있는 서장대이고, 다른 하나는 동쪽 창룡문 안에 있는 동장대이다.

외영의 군사들은 연무대에서 무예를 익혔지만 서총대나 춘당대에 나가 내영과 함께 무예 시험을 보았다. 드물기는 하지만 연무대에서도 정조가 친림하여 열무를 보고 무예를 시험하였다.

8. 무예시험

장용영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는 크게 원기(元技)인 포, 조총, 활을 쏘는 사격술과 별기(別技)로 익혔던 창검기에 두 가지였다. 평가하는 기준 역시 두 가지였다. 무사들의 원기인 조총과 활을 다루는 사격술을 시험 볼 때 이를 감독하는 시관은 초관 이상의 장관으로 구성되었다. 과녁과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맞힌 횟수를 종합하여 채점했다. 창검무예를 시험 볼 때는 창검무예를 잘 아는 초관 이상의 장관으로 구성된 시관들이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으로 점수를 매겨 상하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입상하였다.

창룡도 같이 힘을 측정하는 무예는 운용(상상) 능거(상중) 반거(상하)로 평가하였고, 『병학지남』, 『화포식』 같은 병서를 시험 볼 때는 통(상상), 약(상중), 조(상하)로 점수를 매겼다. 상하 이상의 점수를 얻은 군사는 부상으로

무명·베·쌀·궁시를 주었다. 철전에서 150보 이상이거나 물기(沒技)를 하거나 초등(超等)의 성적을 거두는 자에게는 초시를 치르지 않고 바로 전시나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또한 진급을 시키거나, 품계를 높여 주거나 급료를 높여 주기도 했다.

과거 외에 무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시험을 시취(試取) 혹은 취재(取才)라고 하였다. 취재를 거쳐 선발된 뒤에도 다양한 시험을 보아야 했다. 무사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 시험을 보아 무예 실력이 우수한 군사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부상, 진급, 품계를 올려주어 사기를 진작시켰다.

장용위의 진법교련은 매달 초1일에 1회 실시하였다. 활쏘기 시험은 입번할 때 매일 소포 10순(50발)을 쏘며, 출번할 때 기추 1차, 별기 1차, 방포(조총 사격) 1차 시험을 보아 거수자에게 시상하였다.

사등상시사

사등시사는 매 4계절 첫 달(음력 1, 4, 7, 10월) 초하루에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을 내려 격려하는 평가시험이었다. 장용위의 추등 별기 시험 때와 선기대의 동등시사 때는 갑주를 갖춰 입어야 했다. 시관은 제조, 대장, 종사관, 당상·당하 장관 등이 하명을 받아 실시하였다.

장관·장교·장용위·패두는 유엽전 1순, 한량·궁시인은 소포 1순을 시험 보았다. 장용위의 추등시사 때는 별기 1차로 시험 보았고 하등·동등시사 때는 유엽전 3순, 기추 1차를 보았다.

선기대의 하등시사 때는 유엽전 1순, 기추 1차를 보았고, 동등시사에는 마상재 혹은 별기로 자원에 따라 1기로 시취하였다. 춘등·추등시사나 임금의 명에 의해 거행하는 각 초와 각색 군병의 하등시사에는 기예 1차를 보았고, 동등시사에는 조총 3방으로 시취하였다.

순령수와 뇌자는 하등과 동등시사 외에 춘등시사에도 기예 1차를 더하여 시험을 보였으며, 초군으로 기예가 능한 자는 매초 20명 씩 매번 1차례 시험을 더 보도록 하였다. 팔색군 중에 활쏘기를 원하는 자는 응시를 허락하였다. 18반 무예는 15명으로 한정하고, 교관은 춘등·추등의 시사를 가려서 별도로 응시하도록 하였다.

대비교

대비교는 과거 별시를 가리키는 말로 2년마다 열렸는데 3월과 9월에 시행되었다.

장관과 장교는 유엽전 1순·기추 1차·별기 1차로 시취하고, 마군은 유엽전 1순·기추 1차·편추 1차로 시취하며, 마군 별기는 매초마다 30명을 선발하되 월도 10명, 쌍검·기창 각각 5명, 교전 3쌍으로 시취하였다. 마상재는 좌초·우초 모두 자원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보군은 조총 3방·기예 1차·권법 1차로 시취하고, 보군 별기는 매초마다 45명을 선발하되 왜검 10명, 교전 10명, 예도·신검·협도 각 5명씩만 응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장관, 장교, 마군, 보군 별로 기예를 비교하여 입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시험을 거행하였다.

중일시사

매월 3일마다 입직(入直)한 장관·장교·마군·보병을 대상으로 중일시사를 보았다. 초관·지구관·통장·교련관은 유엽전 1순을 보며, 장용위와 선기대는 기추 1차·별기 1차를 보았다. 궁궐에 입번하는 각색군은 기예 1차로 시취하였다. 별도로 입직한 자와 직방 초군은 조총 3방으로 시취하며, 외영의 초군은 기예 1차로 입직한 당상장관이 시취하였다. 북창 입직군의 경우는 기예 1차, 시관은 입직한 초관이 시취한 후에 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장관·장교·군병을 막론하고 몰기자와 기예가 뛰어난 자는 규정에 따라 시상하였다.

선기대는 매월 초하루에 3차례 실시하는데 1차례는 해당 기별로 기충의 지휘로 이습하고, 1차례는 해당 장령의 지휘로 3기가 합동으로 이습하며, 1차례는 별장의 지휘로 3초가 합동으로 조련을 실시하였다.

사습조

선기대를 비롯하여 보군·팔색군·상변향군·아병 등의 훈련하는 방법이다. 선기대 좌초는 마상재를, 우초는 별기(마상무예)를 오로지 연습하도록 하였다. 보군인 능기군과 18기군은 사등시사에 해당되지 않는 달에 합동 무예 시험을 시행하였다.

능기군 가운데 무예가 떨어지는 자는 18기군으로 강등시키고, 십팔기군 중에서 숙련된 자는 능기군으로 올려 주었다. 성적이 좋은 자에게는 급료를 높여주고, 번드는 것을 차를 줄여주며, 훈련을 충실히하지 않거나 몸이 아둔한 자는 징계하였다.

액외 장용위 선발 규정(취재 규구)

철전·유엽전·소포·기추·무경칠서의 5가지의 기예를 시험보아 선발했다.

장용위 병졸 선발 규정

목전 3시 240보·소포 1순·달리기 1차·기추 1차·모래 들기 1차를 시험보아 선발했다. 혹 청룡도와 유엽전 1순, 병학지남 조(粗) 이상으로 5기에서 3기 취하여 임시직으로 임명하였다.

장용위 선발 규정

철전 3시 110보 이상, 유엽전 1순 1중, 편전 1순 1중, 기추 1차 1중, 병학지남 조(粗)이상 5가지 중에서 3기를 취하여 임시직으로 임명하였다.

별무사 선발 규정

유엽전 1순, 편전 1순, 기추 1차, 병학지남으로 시취하여 우등자를 임시직으로 하며 1차는 무예를 위주로 하고 2차는 강서를 위주로 하였다.

선기대 선발 규정

마상재를 보아 상하(上下)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를 선발하되 말을 바칠 수 있어야 했다. 원기는 유엽전 1순 2중 · 기추 1차 1중을 거두어야 하고, 별기에서는 별기 1차가 상하 이상 · 편추 6중으로 4기 중에서 2기를 취하며, 말을 잘 다루어야 한다.

장용영에서 급료를 받는 자로서 시험을 보기를 원하는 자

유엽전 1순 2중, 기추 1차 1중, 교전, 월도, 쌍검, 기창에서 상하(上下) 이상으로 6가지 기예 중 3가지를 취한다.

1795년 9월 26일, 정조의 참관 아래 창경궁 춘당대에서 장용영의 진법훈련, 동등시사 및 초계문신의 과강이 열렸다. 이처럼 정조는 때때로 장용영 장관과 초계문신의 교류를 주선하였다. 참고로 이때의 시험과목과 응시자의 직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관 26원, 장교 135인, 우초선기대 102인----유엽전 응시

장교81인-----편전 응시

장관 3원, 장교 24인-----소포 응시

장관 6원, 장교 3인-----철전 응시

우초 선기대 87인-----마상재 응시

좌초 선기대 13인-----마상월도, 마상쌍검 응시

전초군 19인, 중초군 19인, 후초군 19인-----쌍검, 예도, 교전응시

금군 선발 규정

병조판서가 중심이 되어 오위도총부와 훈련원 당상들이 주관하여 시험을 보았다. 금군 중에서 가장 정예부대로 우대를 받았던 선천 내금위도 이와 같다.

9. 장용영 이후

1) 장용영 혁파

1800년 정조가 서거하면서 장용영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1802년 노론 벽파 심환지의 주도로 장용영이 해체되었다. 권력을 장악한 노론 벽파의 입장에서 볼 때 시파가 장악하고 있는 최강의 군영인 장용영의 존재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장용영을 혁파한 뒤 장용영에 소속되어 있던 장관, 장교 및 군병들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여러 군영으로 되돌려 보냈다.

외척인 안동김씨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삼정(三政)이 문란해졌다. 그 중 군정은 특히 심각했다. 군비축적은 물론 군영의 기강도 급속히 약화되어 훈련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중앙 군영은 도성의 방위는 물론 훈련 같은 기본 업무까지 소홀하였다. 재정 고갈을 이유로 금위영과 어영청군이 도성에 올라가 근무를 서는 번(番)을 정지시켰다. 대신 한성에 사는 신체 강건한 자를 선정하여 각 1초씩 만들어 대치시켰다. 순조 시대에는 장용영이 창설되기 이전처럼 훈련도감이 중앙군영의 역할을 맡았다.

2) 장용영을 모범으로 창설한 총위영

총위영은 1846년(헌종 12)에 설치된 군영이다. 헌종은 정조가 창설한 장용영을 모범으로 삼아 총위영을 창설하고 그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헌종은 정조가 그러했듯이 훈련도감 안의 무예별감을 증원시켜 내

영으로 상주시키려고 하였다.

내영에 소속된 군사들은 각 영문의 행오(行伍)에서 선발된 무사, 여항에서 무재를 시험 보아 선발한 정예의 무사들이다. 이들은 궁궐 안의 편전을 숙위 하였고, 국왕이 도성 밖을 행차할 때도 시위하였다.

총위영의 청사도 장용영 청사가 있었던 동대문 안 이현에 두었다. 총위영을 설치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헌종은 "지금 장용위가 다시 설치되었다"라며 감격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위영의 운영 방식은 거의 모두 장용영의 사례를 따랐다. 진법 훈련과 무예를 시험 본 내용도 장용영에서 실시했던 것과 거의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위영이 얼마나 장용영의 제도를 충실하게 재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총위영은 장용영의 예에 따라 사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에 친열을 실시하였다. 친열은 국왕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친위병들이 그 동안 닦은 조련과 습진 등을 점검하는 행사였다. 친열과 함께 진법도 실시했는데, 진법은 1년 중 본과 가을에 4차례에 걸쳐 도성 밖 교외에 나가 시행하였다. 훈련에서는 사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매달 3차례 실시했다. 과목은 선기대의 경우 유엽전 3순(巡), 기추 1차, 마상재 1차를 보았고, 보군은 조총 사격과 18기를 시험 보았다.

총위영에 소속된 모든 군병이 참여하는 4등상시사는 매년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 1일에 시행하였다. 장관과 장교는 계절과 상관없이 유엽전 3순을 시험 보았다. 선기대의 경우 여름철에는 유엽전 1순과 기추 1순을 시험 보았고, 겨울철에는 마상재와 마상별기(기창, 마상쌍검, 마상월도, 마상편곤) 가운데 1기를 자원하여 시험 보도록 하였다. 초군과 제색군의 경우 여름철에는 18기 중에서 1차, 겨울철에는 조총 3방으로 시험 보았다. 성적에 따라 자급이나 벼슬

을 높여 주거나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였다.

특별 과거의 하나인 대비교는 2년마다 3월과 9월에 실시하였다. 별장 이하 장교까지는 유엽전 편전 각 1순, 장교는 기추와 별기(마상무예)를 1차씩 실시하였고, 선기대는 기추 1차·유엽전 1순·편전 1순을 시험하였다. 마보군은 철전 3순·조총 3방을 시험 과목으로 정하여 시행하였다.

서총대시사는 국왕이 행행을 끝내고 정궁인 창경궁으로 돌아온 뒤 실시되는 시사이다. 장관과 장교는 유엽전 1순, 선기대는 유엽전 1순·기추 1차·마상무예와 마상재 가운데 택일하여 실시하였고, 각 초의 제색군은 조총 3방을 시험하였다. 관무재는 국왕이 친히 총위영군을 열병한 뒤에 특별히 실시하였던 무과로 이는 친위병만 누릴 수 있었던 특혜였다. 장관과 장교, 마보병에 이르기까지 자원하여 특기 있는 기예를 적어 올리게 한 다음 그 과목을 시험하였다. 선기대는 원기인 유엽전 1순·편전 1순·기추 1차·편추 6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별기인 마상월도·마상쌍검·기창·기창교전·마상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보군의 경우 원기인 조총 3방·권법 1차·쌍수도·제독검·본국검·쌍검·월도 가운데 하나, 그리고 별기인 왜검·교전·예도·협도 가운데 하나를 시험하였다.

그러나 총위영은 1848년 헌종이 갑자기 병사하여 혁파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총위영을 창설한 지 3년만의 일이다. 헌종의 뒤를 이은 철종이 즉위하면서 총위영은 총융청으로 환원되고 말았다.

24반무예의 역사

1. 머리말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정조가 재위했던 1800년대까지 약 200년 동안은 무비에 주력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조선을 문약한 왕조였다거나, 무인을 탄압했던 나라였다는 기존의 시각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조선초기는 창검무예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인 14세기 말 왜구의 노략질은 고려와 중국(원나라)은 물론 안남(현재의 베트남)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당시 고려는 남쪽의 왜구만이 아니라 북쪽 여진도 방어해야 했기에 국방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 말 최무선이 화약무기를 개발하여 여진과 왜구를 격퇴하는데 맹위를 떨쳤다. 왜구와 여진의 잦은 침략은 노쇠한 고려의 멸망을 재촉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왜구와 여진의 침략을 막아내며 명망을 쌓은 무장이다. 그러나 조선도 약탈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여진과 왜구에게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은 왜구와 여진의 침략에 대비해 화약무기의 개발과 기병을 집중 육성하였다. 당시 해상으로 침투하는 왜구와 기동력이 뛰어난 여진의 기병을 대적하는데 필요한 병법과 무기가 개발되었다.

이처럼 15세기의 전쟁 양상과 전략전술의 변화에 따라 조선의 군사 무예는 화포나 활 같은 장병(長兵) 무예가 선호되었다. 반면 근접전에 필요한 창검 같은 단병(短兵) 무예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임진왜란을 경험한 뒤 조선에서도 단병무예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무예제보』 같은 창검을 다루는 무예서를 편찬하였다. 전쟁 중에는 외

적을 몰아내기 위하여, 평화로운 시기에는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사를 육성하고 무예를 연마하였다.

국난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외래 무예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무예를 발굴하여 정리한 것이 『무예도보통지』의 24반무예이다. 24반무예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민족의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낸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수단이었다. 24반무예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24반무예의 기원을 밝히려면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마땅하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한정하여 24반무예의 역사를 살펴보려 한다.

2. 임진왜란과 무예의 발전

1) 외래 무예의 수용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24반무예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조선의 판군은 수적으로나 전술상으로 왜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왜군은 수적으로 15만에 달했고, 100년에 걸친 내란을 통해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왜군은 명중률이 높은 조총과 날카로운 장도(長刀)를 잘 다루었다. 조선은 이때야 비로소 진법과 화포, 활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 즉 단병무예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1593년, 조·명 연합군이 왜군에게 점령되었던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가 제독 이여송을 찾아가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을 물었다. 이여송으로부터 '명장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친 경험을 바탕으로 편찬한 『기효신서』에 들어 있다'는 말을 들은 선조는 이여송에게 『기효신서』를 보여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여송은 국방상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라 하여 선조의 요청을 거절했다. 선조는 역관에게 상금을 걸어 『기효신서』를 입수하고 이

책의 해석을 재상 유성룡에게 맡겼다. 유성룡은 군사와 무예에 밝은 한교(韓僑)를 추천하였다.

한편 유성룡의 제안으로 1593년 『기효신서』에 근거하여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이때부터 훈련도감을 통해 조총과 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포수와 시수, 창검을 전문으로 다루는 살수의 삼수군을 육성하였다.

한교가 『기효신서』의 번역 책임을 맡았을 때 창검에 뛰어난 훈련도감의 장관(초관) 4명이 그를 보조하였다. 이때 한교는 중국 군사들도 알지 못하는 장창 12세를 복원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교가 정리한 중국무예는 모두 6기인데, 1598년에 이것을 도보(圖譜)로 정리한 『무예제보』를 펴냈다. 이 책은 조정의 주관으로 간행된 조선 최초의 무예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예제보』의 무예 6기는 명나라 최고의 무장으로 추앙 받는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칠 때 만든 신식무예였다. 장창, 낭선, 당파, 등패, 쌍수도 같은 무기를 들고 작전을 펼치는 원앙대(鴛鴦隊)라는 진법도 이때 수용되었다. 조선 군사들은 중국 창술은 물론 항복한 왜군으로부터 검술도 익혔다.

2) 조선세법의 전파

임진왜란을 통해 삼국의 무예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조선은 중국의 창법과 일본의 도법을 받아들였고, 조선의 검법은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조선세법이다.

1598년, 노량사장에서 명나라 군사들의 진법시범을 보고 난 후 선조의 명으로 조선군사들이 '우리나라의 검 쓰는 법'과 '우리나라의 말 타는 법'을 보여 주었다는 기록이 『선조실록』에 실려 있다. 이때 명군에게 선보였던 검법이 바로



무예제보 번역속집

예도 24세법이며, 말 타는 법은 마상재이다. 아무튼, 전쟁 중에 예도 같은 조선의 전통 무예가 활발히 발굴되고, 군사들이 익혔던 것은 무예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1610년 훈련도감 도청 최기남이 『무예제보번역속집』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건주 여진의 동태가 심상치 않던 시기에 여진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서로 『무예제보』를 펴낼 때 빠진 무예 4기를 담고 있다.

3. 북벌정책과 무예의 발전

1) 북벌정책과 창검무예 강화

조선은 전쟁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후금의 침략을 받아 끝내 패배하고 말았다. 왕권은 추락했고, 문화대국이라 자부하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한편 병자호란은 속전속결을 생명으로 하는 기병부대의 창설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효종은 즉위하면서 북벌을 위해 온 국력을 쏟아 부었다. 북벌이 추진되면서 무사들의 위상은 높아졌다. 신분 상승을 원하는 많은 건장한 청년들이 군으로 모여들었다. 효종은 관무재(觀武才)를 신설하여 군사들의 무예 수련을 독려했다. 북벌 정책은 조선 전역에 상무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무예가 발굴되고 새로운 무예가 개발되었던 것이다. 효종시대는 우리 무예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화약 병기인 조총의 성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본국검·기창 같은 조선 고유의 창검 무예가 발굴·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기병부대가 창설되고 마상무예가 강화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마를 양성하는 목장을 전국에 설치했다.

2) 조선종화사상과 민족무예

효종 시대에 북벌을 뒷받침하는 사상과 철학이 정립되었다. 이것을 '조선중화사상'이라 부른다. 조선이 중원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한 유일한 나라라는 자존사상이다. 명이 멸망하기 전까지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교문화의 주체였던 명(明)이 야만족으로 낮춰보았던 청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지켜 본 후 조선이 최고라는 조선중화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중화사상은 양반 사대부들에게 조선의 전통문화에 애정을 가지게 하였고, 조선 고유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되었다. 중국을 바라보던 양반 사대부들도 비로소 내 나라, 내 문화를 자각하였다. 그 결과 글씨에서는 동국진체, 그림에서는 진경산수 같은 민족예술이 정립될 수 있었다. 이런 문화에 대한 자신감은 무인들의 의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24반무예도 조선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보의 명칭을 '본국검'이라 한다든가, 기창 같은 고려시대 무예의 발굴이나, 중구과 일본의 무예를 두루 포용하는 것이 이러한 점이다. 아무튼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 시대에 우리 무예가 발굴되었으며, 이때 북벌정책을 뒷받침한 철학인 조선중화사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숙종 시대는 전란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씻어내어 자신감을 회복한데다 상업이 발달하고 대청, 대일 무역이 발달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무예의 발전도 한층 가속되었다. 이때 훈련도감과 금위영에서 장교로 있던 김체건에 의해 왜검을 다시 도입되고, 그가 창안한 검교전이 훈련도감의 교련과목으로 채택되었다.

3) 24반무예의 기원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무예의 발굴과 정립은 전쟁을 겪었던 선조 대에 시작

되어 효종의 복벌정책으로 가속화되었다. 『훈국등록』 같은 군문등록을 통해 추정해 보면 현종, 숙종 시대를 거치며 24반무예의 대부분이 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지상무예 18기와 마상무예 6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무예 18기 중 가장 늦게 완성된 무예는 훈련도감의 교련관 김체건이 창안한 교전(交戰)이다. 이런 사실은 사도세자가 『무예신보』를 편찬한 후에 지은 '예보연성18반설'이라는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도세자는 여기서 '교전이 나온 지가 근 100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직접 무예를 익혔고 『무예신보』의 편찬을 주도한 세자였으니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일 것이다. 『무예신보』를 펴낸 해가 1759년이니 그때부터 100년 전 이라면 곧 1660년을 전후한 무렵이 된다.

이때는 효종의 복벌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던 시기였다. 『훈국등록』, 『금위영등록』 같은 군사 기록을 살펴보면 1680년 전후에 18기의 대부분을 군사들이 익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상무예 6기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기는 기창·마상쌍검·마상월도·마상편곤·격구·마상재를 말한다.

이 중에서 기창(騎槍)과 격구·마상재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무예이고, 나머지 마상쌍검·마상월도·마상편곤은 새로게 정립된 무예였다. 기록을 통해 1680년대에 마상(언)월도가 무과 고시과목에 편성된 사실과 마상편곤(편추)을 시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5군영과 24반무예

영조는 강력한 탕평책을 실시하여 정치의 안정과 문예 부흥을 이룩하였다. 또한 무예를 강화하고 『속병장도설』 같은 병서를 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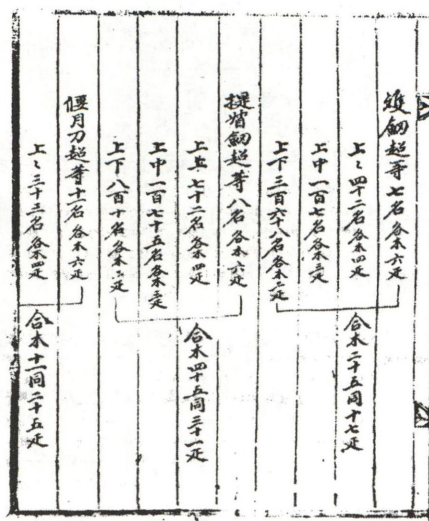
1744년에 제정한 『속대전』에 쌍검, 제독검, 예도 같은 창검무예를 무과의 시험과목으로 규정했다. 영조의 명을 받은 사도세자는 훈련도감의 장교 임수

웅에게 지시하여 학교의 6기에 12기를 덧붙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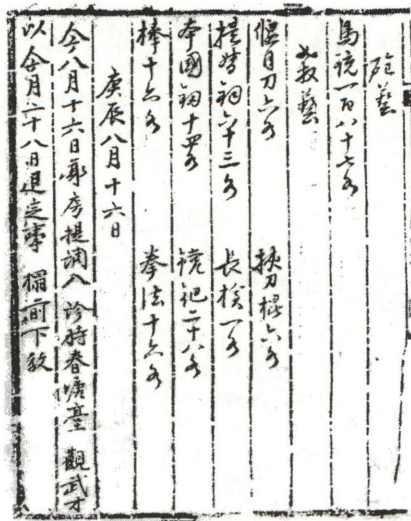
1759년에 훈련도감에서 간행된 『무예신보』에 실린 무예는 모두 18기(技)이다. 추가한 12기 가운데는 기창, 예도, 본국검 같은 무예가 들어 있다. 『무예신보』는 『무예제보번역속집』에도 실리지 않았던 우리 전래의 무예와 교전처럼 새롭게 제정된 무예를 모두 수록하였다.

한교의 『무예제보』에 수록된 무예가 창류 5종, 도검류 1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무예신보』에는 도검류 8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무예제보』가 창중심이라면 『무예신보』는 도검이 주축이다.

물론 이것은 전투 양상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술을 반영한 결과였다. 조총을 주무기로 하는 군사들이 휴대하기 간편한 도검을 익혔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어영청중순 등록」의 일부



「금위영등록」의 일부

그러나 성을 근거지로 전투를 벌이는 수성전이나, 야전에서 벌어지는 백병전에서 기병의 돌격을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창술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죽장창 같이 매우 길이가 긴 무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당시 군병의 상

당수가 기수(旗手)였기 때문에 깃발을 드는 병사들은 기창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했다. 여기서 잠시 『무예신보』와 북벌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조가 지은 '현릉원지'에도 언급이 되었듯이 사도세자는 효종의 북벌을 계승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도세자가 『무예신보』를 간행한 것은 북벌 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 본 대로 24반무예는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되기 약 100년 전인 1600년대 후반에 이미 완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협도를 협도곤이라 하고 마상월도를 마상언월도라 불렀던 것처럼 무예의 명칭과 기법의 차이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4. 『무예도보통지』 편찬

정조는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조가 1789년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산 현릉원으로 이장하였던 것도 이런 노력의 하나였다. 같은 해 가을 정조는 이덕무, 백동수, 박제가를 불러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라는 명을 내렸다. 꼭 30년 전인 1759년에 사도세자가 『무예신보』를 편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릉원으로의 이장과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산으로 이장할 때 지은 '현릉원지'에서 효종의 뜻을 이어 무예를 익히고 북벌을 추진하려 한 부친의 뜻을 상기시켰다. 정조는 북벌의 계보를 효종-영조-사도세자로 잇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무에서 간행의 필요성

정조는 1776년 즉위하는 즉시 18기를 연습하도록 명을 내리고, 무사를 선발

하는 시험 과목에 마상무예 4기를 추가하도록 명을 내렸다. 장용영과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의 오군영에서는 18기를 익히고 있었다. 그러나 군영에 따라 무예의 세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앞서 1778년 9월, 각 군문에 군사를 선발할 때 보는 취재시험에서 기예의 명칭을 통일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협도곤을 협도라 하고, 단창을 기창으로 정하는 등 명칭을 확정하였다. 기예의 명칭을 통일한 지 10년이 지난 1789년에도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용호영 같은 군영 사이에 무예의 동작과 자세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기를 전담하는 창검초관과 교련관을 불러 무예 기법의 차이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창법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오직 당파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검법에서는 쌍수도, 예도, 왜검, 교전, 제독검, 본국검, 쌍검, 월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1785년에 간행된 『대전통편』 병전에 『무예신보』의 18기 전부를 관무재 초시과목으로 규정하였다. 관무재 초시에 18기를 보도록 규정한 법령을 무리 없이 시행하려면 우선 무예의 자세가 통일되어야 했다.

2) 어정 무예도보통지

1789년 7월, 정조는 장용영 초관 백동수, 전 응진 찰방 박제가, 와서(瓦署) 별제 이덕무를 불러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명을 내렸다. 이 자리에 편마당상 서유린과 심이지, 규장각 제학 겸 장용영 제조 정민시도 동석했다. 정조는 장용영 18기군 개개인의 기예 수준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였다. 또한 무예서를 편찬하기 전 책이름을 직접 지어 두었을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가 지어 내린 '무예도보통지'란 글자 그대로 '무예에 관한 실기를 그림과 설명으로 훤히 드러낸 책'이라는 자신감이 들어 있다. 이들에게 정조는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무예제보』에 실려 있는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 등의 6기는 척씨(척계광)의 『기효신서』에서 나온 것인데, 선조 대에 훈련도감의 낭청 한교에게 명하여 명나라 장수에게 질정(質正)하여 도보를 편찬하여 간행케 한 것이다.

선왕 기사년(1749)부터 소조(小朝:사도세자)께서 정사를 대리하였고, 기묘년(1759)에 교명(敎命)으로 죽장창 기창 예도 왜검 교전 월도 협도 쌍검 제독검 본국검 권법 편곤 등 12기를 더 넣어 도해(圖解)를 찬수하고 새 도보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말이 『현릉원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즉위한 원년(1776)에 비로소 선왕의 뜻에 따라 앞의 18기를 연습하게 하고 시험하여 무사를 선발할 때는 기창 마상월도 마상쌍검 마상편곤 등 4기를 더 넣었으며, 이제 또 격구와 마상재를 그 아래 붙였다.

아, 대대로 여러 임금들께서 병서를 편찬하고 군영을 세움에 있어 체제가 견고하며 계책이 빠진 것이 없다. 그러나 병기와 의장의 방식과 치고 찌르는 기법은 상세하게 전수하는 것이 없어서 병조의 훈련도감이나 어영청의 군사들이 몇 가지 기예를 익혔으나 자세가 다른 것이 있어 잘못된 것을 거듭 뒤따르고 있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지금같이 태평한 시대에 유용한 서적을 편찬하는 것은 적에 대한 의분으로 외적의 침략을 막는데 실효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무예의 친구보 24가지를 다 너희에게 주어 자세히 보아서 편찬케 하고 '무예도보통지'라 이름을 내린다. 그러니 너희들은 널리 수집하고 고찰하여 주석과 해설을 달되 전체의 줄거리를 밝히고 기준을 세워서 그 체제를 바로잡고, 그 얻고 잃는 것도 다시 의논하여 맺고 끊어서 후시라도 내용이 섞이지 않게 하여 앞서간 사람들의 아름다운 뜻을 찬양하고 후세 사람들의 놀림을 받지 않도록 하라. 아울러 서국(書局)을 장용영에 개설하고 내부의 병서 20여 부를 꺼내 참고 자료로 하라.

정조의 명에 따라 이덕무는 무예의 기원을 고증하는 일, 박제가는 판본을 선사하는 일, 백동수는 장용영의 무사들과 무예를 실기로 고증하는 일과 편찬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3) 편찬의 주역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주역은 이덕무와 박제가, 백동수 세 사람이다. 이덕무는 조선 역사를 통 털어 문헌 고증과 일본에 관한 한 최고의 학자였다. 박제가는 북벌을 하려면 우선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하고, 서양 선교사를 초빙하여 양반 자제들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해외와 통상을 하여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급진 개혁가였다.

24반무예의 실기를 시험하고 잘못을 바로 잡았던 백동수 역시 이덕무·박지원·박제가 등과 함께 북학을 연구하고, 북벌을 주장했던 무인이다. 편찬자들은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면 북벌은커녕 또 다시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선의 사대부들이 후진국으로 낮추어 보았던 청과 일본은 서구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우리도 더 늦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앞서 24반무예는 왜적을 물리치고,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청을 타도하자는 북벌과 청의 선진문물을 배우자는 북학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다. 그런데 이들은 물과 기름 같은 두 가지를 『무예도보통지』에 담아냈다.

『무예도보통지』 권수에 실린 '진설'을 보면 세 사람의 관심은 '금(今)'과 '용(用)'에 있었다. 풀이하자면 금은 과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자는 의미이고, 용은 '쓸모 있는 무예'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조선에 필요한 것은 정예한 군사를 육성하는데 적합한 무예서라야 한다는 것이다.

승지를 지낸 서형수도 고증에 참여하였다. 판본의 그림은 장용영 소속의 도

화서 화원 허감이 행수를 맡고, 화원 한종일, 김종희, 박유성이 참여했다.

당시 장용영에서 18기군의 무예를 지도하는 초관으로 있던 백동수는 지구관 여종주와 김명숙과 함께 24반무예를 정리하고 간행을 실제로 총감독했다. 백동수를 도왔던 여종주와 김명숙의 임무는 간세(看勢)였다. 간세란 '자세를 살핀다'는 뜻으로 무사들이 기예를 연무할 때 각 개인의 연무하는 자세를 일일이 살펴 틀린 점을 교정해주는 일이다.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도 『무예도보통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덕무(1741~1793)

이덕무의 자는 무관, 호는 아정·청장관·형암이다. 1741년 통덕랑 이성호의 맏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덕무는 무림군 후손으로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부친이 서자여서 평생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살아야 했다. 집안이 매우 가난했으나 독실하게 학문에 몰입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다.

고종에서는 당대 최고였으며, 일본에 대한 지식 또한 조선 전시대를 걸쳐 최고였다. 청년시절부터 성대중, 박지원 같은 신진 학자들과 교유하며 학문의 세계를 넓혀나갔으며, 처남 백동수를 통해 병법과 무예에도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1776년에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와 함께 펴낸 동인시집 건연집이 북경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아 그의 이름이 청과 조선의 선비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1779년 규장각 초대 검서관이 된 이후 수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 함양 사근도 찰방, 사도시 주부, 적성현감 등의 벼슬을 지내며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1794년에 53의 나이로 사망하자 정조는 가족들에게 이덕무의 유고집 『아정유고』를 간행하도록 지원하고, 아들 광규를 검서관으로 임명하였다.

그의 학풍은 아들과 손자에게 전해졌는데 『오주연문장전산고』라는 백과전서를 남긴 이규경이 그의 손자이다.

박제가(1750~1805)

박제가의 자는 재선, 호는 초정·정유이다. 1750년 부승지를 지낸 박평의 서자로 출생하였다. 11살에 부친의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손위 누이와 가난하게 자랐다. 일찍부터 시를 잘 짓고, 글씨와 그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소년시절에 백동수와 사귀었고, 그를 통해 이덕무, 박지원 같은 선비를 소개받아 실력을 쌓았다. 이덕무와 함께 동인시집 『건연집』을 내면서 청국과 조선에 명성을 떨쳤다.

1778년 북경을 다녀와 『북학의』를 펴냈다. 박제는 이 책에서 급료를 주는 용병제를 실시하여 정병을 육성하자, 선교사를 초빙하여 양반자제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등 과감한 주장을 폈다. 1779년 이덕무와 함께 규장각 초대 검서관이 되었다. 공주 웅진찰방의 임기를 마친 직후 정조로부터 어명을 받고 이덕무 백동수와 함께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1792년 시력이 상해 검서관을 사퇴했으나 정조는 박제가를 부여현감에 제수하였다.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으나 정조는 그를 다시 영평현령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어명으로 『주자전서』를 구하기 위해 북경에 다녀 온 1802년 가을, 사돈 윤가기 옥사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에서 3년 동안 유배를 살았다. 1805년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이후의 행적이 묘연하여 그 해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제가는 1778년, 1790년과 1791년, 1801년 북경에 4차례나 여행하였다. 북경에서 사귀 선비가 100명이 넘는 정도로 다양한 인사들과 사귀었다.

백동수(1743~1816)

백동수의 자는 영숙, 호는 아뇌당·인재이다. 1743년 백사평의 장남으로 출

생하였다. 명망 있는 무장의 후손이었으나 조부가 서자여서 그도 서얼이었다. 소년시절에 뛰어난 무사들로부터 창검무예를 익혔다.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낸 이덕무는 그의 매형이다. 중년에는 성대중 박지원 같은 명사들과 경세지학을 연구했다.

백동수는 위로는 정승과 사귀고 아래로는 시장의 백정들과도 우정을 나누었을 정도로 교유의 폭이 넓었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자신의 형편은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1771년 식년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에 추천되었으나 서울을 떠나 강원도 기린(인제)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살았다. 1788년 정조의 특명으로 장용영의 초대 초관에 임명되었다. 초관으로 재직하면서 18기군을 지도하고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을 감독하였다. 1792년 충청도 비인현감에 임명되었고, 1794년부터 다시 장용영 초관으로 복직하였다. 1802년 평안도 박천군수로 임명되어 경륜을 펼치다가 1805년에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대신의 탄핵을 받아 유배형이 선고되었으나 모친이 연로하다하여 풀려나 포천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말년을 보냈다. 1816년에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4) 조선무예의 역사

문헌 고증의 일인자였던 이덕무는 방대한 자료를 살펴 무예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내어 기원을 밝히고, 백동수는 병장기의 실물을 찾아내 제원을 밝히고 성능을 실험하였다. 이때 장용영 소속의 도화서 화원 허감이 그와 동행하여 병장기의 그림으로 그렸다.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할 때 참고한 책은 매우 많다. 책이름을 기록한 것만 해도 145종이나 된다. 그러나 정작 무예를 다룬 책은 그리 많지 않다. 편찬자들은 『무예도보통지』의 표본이 된 책으로 척계광의 『기효신서』, 모원의 『무비지』를 들었다.

그밖에 무예실기를 인용한 책은 정종유의 『소림권법천종』, 『내가 권법』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병법에 관한 책은 넘쳐났지만 무예를 다룬 무예서적은 중국에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 편찬한 책도 두루 참고하였다. 이덕무의 일본에 관한 지식은 당대는 물론 조선 전시대를 통 털어 최고 수준이었다.



정종유의 「단도법선」



척계광의 「기효신서」

우리나라의 병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신라의 『무오병법』이며, 고려의 『김해병서』도 뛰어난 무예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모두 전해지지 않아 참고하지 못했다. 기원이 가장 오래된 본국검에 관한 기록도 별로 없었다. 다만 『여지승람』에 신라 화랑 황창이 백제왕을 죽이려다가 죽임을 당한 뒤 이러한 사실을 슬퍼한 신라인들이 황창의 얼굴 형상으로 본을 뜬 탈을 쓰고 칼춤을 추었다는 전설과 황창무가 전해지고 있다는 정도였다.

이덕무는 '황창은 화랑이며 뛰어난 검사로 그를 따르는 낭도 수천 명이 검술을 배웠을 것이니 신라는 검술이 발전한 나라였을 것이며, 그 기법은 이웃 나라 일본에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편찬자들은 삼국시대에 우리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검술도 전해졌을 거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당대에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기원을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검법은 본국검과 예도이다. 예도는 중국과 일본에 전해졌던 검법이다.

그러나 정작 본국 조선에서는 기법을 잃어버려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다. 영조대에 『무비지』를 입수한 이후에야 익히기 시작했다. 대신 군영에서는 24세법을 하나의 검보로 만든 별보(예도총보)를 익히고 있었다.

16세기 말에는 중국에도 제대로 된 검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며, 검술뿐 아니라 검도 드물게 남아 있었다. 이처럼 검술에 관한 한 중국의 사정도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경총요』와 『병기도식』, 『삼재도회』 같은 책이 있지만 무예가 본격 등장하는 것은 척계광의 『기효신서』가 처음이다. 그러나 『기효신서』가 간행된 지 50년 지나지 않은 1620년 무렵이면 이조차 전수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원의가 1621년에 간행한 『무비지』검 항목에 조선세법만 수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원의는 '조선에서 검보를 구했다'라고 하여 임진왜란을 통해 검보를 구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선조실록』에 실려 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무예사에서 아주 귀한 내용이라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명나라 군사가 다시 조선에 머물던 1598년 4월 6일, 선조가 동작동 백사장에서 명의 장수와 함께 조·명 연합군이 펼치는 진법을 관람한 뒤 '우리나라 칼 쓰는 법[我國用劍技]'과 '우리나라 말 달리는 법[我國馳馬技]'을 보여주었다는 기록이다. 이때 조선 군사들이 보여준 검법이 조선세법이며, 마기는 곧 마상재이다. 그러나 조선세법은 임란 이후 본국인 조선에서 제대로 익히지 않았다. 대신 예도(銳刀)란 이름의 검보를 별도로 만들어 익혔으나 원래의 검보와 기법상의 차이가 있다. 『무비지』를 입수하여 평안감영

에서 간행한 1738년부터 군영에서 다시 교습되었다.

5. 『무예도보통지』의 내용

1) 지상무예 18기와 마상무예 6기

『무예도보통지』에는 모두 24가지의 무예가 수록되어 있다. 24가지는 보(步)무예 18기와 마상무예 6기로 나눌 수 있다.

보무예 18기는 창검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창류 5가지로 장창·죽장창·기창·당과·낭선이며, 도검류 10기로 쌍수도·예도·왜검·교전·제독검·본국검·쌍검·월도·협도·등패이며, 권류 3기로 권법·곤방·편곤이다. 마상무예 4기는 기창(騎槍)·마상쌍검·마상월도·마상편곤이다. 1789년 가을, 정조는 마상재와 격구를 추가하여 마상무예 6기를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기존의 18기에 마상무예 6기를 추가하여 24기로 조선무예를 총 정리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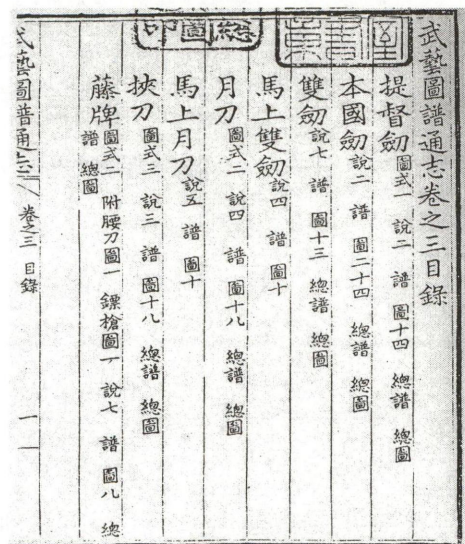
무예는 찌르기, 베기, 치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순서로 24가지 무예를 배열했다. 모두 4권 4책인데 이를 권수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권: 장창(長槍), 죽장창(竹杖槍), 기창(旗槍), 당과(鎗鈸), 낭선(狼筈), 기창(騎槍)

2권: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劍), 교전(交戰)

3권: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쌍검(馬上雙劍),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挾刀), 등패(藤牌)

4권: 권법(拳法), 곤봉(棍棒), 편곤(鞭棍), 마상편곤(馬上鞭棍), 격구(擊毬), 마상재(馬上才)



『무예도보통지』 권지3목록

한편 4권에는 무사들이 무예를 연무할 때 입는 복장을 그림과 설명한 '관복도설'과 군영별로 자세가 차이나는 것을 정리한 '고이표'를 붙여 놓았다.

2) 마상무예와 기병 육성

『무예도보통지』는 마상무예 6기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 수록된 마상무예 6기는 편찬하기 이전에 그 세법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다. 또 대부분의 무예는 무사를 선발하는 취재나 관무재 같은 무과에서 시험을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정조시대 당시 조선의 기병은 격구를 제외한 마상무예를 모두 익히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활성화되었던 격구는 무과의 고시과목이었으나 영조 시대에 무과의 고시과목에서 빠졌다.



기병이 필수로 익혔던 무예는 마상재와 마상편곤이다. 마상재는 기병의 기본과목이었다. 기병의 필수 휴대 무기는 궁, 환도, 편곤이다. 편곤은 휴대가 쉽고 빠르게 휘둘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진을 돌파하여 적진을 깨트리는데 최고의 무예였다. 조선의 기병은 적군과의 근거리 육박전을 주요한 전투 형태로 상정하고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포수·사수·살수의 삼수(三手, 보병)를 중점 육성하였다. 반면 오위의 근간인 기병을 육성하는데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에 패한 후 기병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숙종 말부터 정조시대까지 전국의 주요한 읍과 진(鎭)에 기병부대가 꾸준히 창설되었다. 함경도의 친기위, 평안도·황해도·경상도의 별무사, 동래의 별기위, 수원의 별효기사 등의 기병부대가 그것이다. 1782년에 간행된 『이진총방』은 용호영의 기병을 훈련하기 위한 진법서이며, 1785년에 간행된 『병학통』에도 기병을 운용하는 진법이 수록되어 있다.

기병의 임무는 적군과의 근거리 육박전을 통해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근거리 육박전에는 총보다 창검이 유효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기 위해서는 사격을 피하는 동작이 필요했다. 마상무예의 기초이기도 한 마상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무예였다. 기병에게는 보조무기의 하나로 소형화기인 삼혈총을 지급하였다. 돌격하면서 삼혈총을 발사하고 편곤 같은 병기를 휘둘러 적진을 깨트리는 전술이었다.

3) 실사구시의 정신

편찬을 담당한 이덕무, 백동수, 박제가는 『무예도보통지』에 실용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편찬을 마치고 왕에게 보고하는 글에서 평소의 소신을 당당하게 펼쳤다.

이 책의 지음이 어찌 병가(兵家) 한 가지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미루어 넓히면 농포(農圃)·방직·궁궐과 주택·배와 수레·다리·성과 보·목축·도야(陶冶)·관복·밥그릇 등 민생의 일용하는 기구들이니, 일은 반 만하고도 공은 배나 되는 것들입니다. (중략)

그리하여 조정은 실용 있는 정책을 강론하고, 백성들은 실용 있는 직업을 지키고, 학자들은 실용 있는 책을 찬집하고, 무사들은 실용 있는 기예를 익히고, 상인들은 실용 있는 상품을 유통시키고, 장인들은 실용 있는 기구를 만든다면, 어찌 나라 지키는 일을 염려하며 어찌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걱정이 있겠습니까?

실용의 정책 논의, 실용의 직업 선택, 실용의 서적 편찬, 실용의 무예 연마, 실용의 상품 유통, 실용의 기구 제작이 이루어지면 국방과 민생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실용이란 단어를 여섯 번이나 반복하며 무예 편찬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의 방침도 철저하게 오늘의 관점에서 실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예제보』와 『무예신보』, 『기효신서』와 『무비지』 등 기존 병서의 장점을 흡수하되, 무사들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익히기에 편리하도록 편집하였던 것이다.

각각의 자세를 나타내는 그림과 동작을 설명하는 글을 이름하여 도보(圖譜)라 하며, 낱 그림을 모아 하나로 이어 놓은 것을 총도라 한다. 따라서 총도만 보아도 기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총도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방식으로 『무예도보통지』에 처음 시도된 것이다. 언해와 총도 같은 새로운 형식도 선 보였다.

총도를 그릴 때는 백리척을 이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사람의 크기와 보폭 넓이 등을 감안하여 그렸다. 백리척은 영조 때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그리기 위해 창안한 방법이다. 그림 한장에도 당대의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었다. 『무예도보통지』의 판본은 750여 장에 달한다. 1790년 4월 29일, 드디어 4권 4책(언해본 포함 5권 5책)의 『무예도보통지』가 완성되었다. 『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무예도보통지』가 완성되었다...검서관 이덕무·박제가에게 명하여 장용영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자세히 상고하여 편찬하게 하는 동시에, 주해를 붙이고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논단을 붙이게 했다. 이어 장용영 초관 백동수에게 명하여 기예를 살펴 시험해 본 뒤에 간행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실록을 위시한 다른 기록에도 『무예도보통지』의 편찬 경위와 편찬 주역들의 역할을 특필하고 있다.

6. '무예도보통지' 서문을 통해 본 편찬 의의

정조가 직접 지은 서문은 정조의 무예관을 엿볼 수 있으며, 조선 무예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는 귀중한 글이다.

우리나라 군사 훈련제도는 삼군(三軍: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은 교외에서 위사(금위무사)는 금원에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금원에서의 훈련은 광묘(세조) 때부터 성행했다. 그러나 훈련은 활쏘기 한 가지였을 뿐 창과 칼을 다루는 방법 같은 것은 없었다.

선묘(선조)께서 왜구를 평정하고 나서 척계광이 쓴 『기효신서』를 구매하고 훈련도감의 낭관 한교를 보내 우리나라에 온 중국 장수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곤봉 등 여섯 가지 기예 다루는 방법을 알아 오게 하여 그것을 『도보』로 만드셨다.

그 후 효묘(효종)께서 그 일을 이어받아 자주 내열(군사사열)을 하시며 무슨 수 무슨 기는 그 훈련을 더욱 강화하라고 하셨다. 이를 계기로 격자의 법(창검술)이 다소 발전을 보았으나 고작 6기 뿐 항목이 더해진 것은 없었다.

선왕(영조) 기사년(1749년)에 와서 소조(사도세자)께서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하시면서 죽장창 등 12기를 더 보태 『도보』를 만들고, 앞의 6기와 함께 통틀어서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류원지』에 나와 있고, 18기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생긴 것이다.

내가 그 의식 전형(무예를 수련케 하였던 규범)을 이어받고 거기에다 또 마상무예 등 6기를 더 보태 24기로 만든 다음, 고중에 밝은 자 두 세 명을 골라 『원도보』와 『속도보』를 한데 묶고 의례도 다시 바로 잡고, 그 원류에 해석을 붙이고, 다시 제도를 논의하여 정해서 한번 책을 펴다하면 무예에 관한 모든 물건들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예와 묘술들을 단번에 알 수 있게 꾸미고 『무예도보통지』라 이름하였다. 이 책은 격자에 관한 법이 증보되고 더 상세히 설명되어 금원에서의 훈련 방편으로는 진전(眞詮)이 되고 있어 교외 훈련의

지남(指南)이 되고 있는 오위의 진법서적인 『병장도설』과 함께 서로 날줄 씨줄이 될 만큼 아름다운 특색을 지니고 있으니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행진(行陣:진법)이 먼저이고 기예는 다음이다'라는 것이 병가(兵家)에서 늘 하는 말이라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병가의 오교(五敎)에서는 기예훈련을 두 번째로 하고 행진훈련을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해와 달과 별들의 운동을 잘 알고 모양과 작동과 변수에도 능란하여 가만히 있을 때는 돌담과 같고, 움직이면 비바람 같은 것이 행진의 좋은 점이다.

그러나 안팎을 직접 공격하는 도구는 손과 발 그리고 병기가 필수이며, 무적의 진법도 결국은 격자(창검술)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책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중위 재관이 날이 갈수록 용호의 진법에 익숙해지고, 비휴같은 군사들이 저마다 강한 활을 잘 당길 수 있어 나라에서 계속 인재양성을 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억만 년을 두고 닦아 가야 할 군사교육과 분명하게 일러준 내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본다. 모두들 노력할지이다.

-내가 즉위한 지 14년이 되는 맹하(孟夏, 음력 4월)

그동안 앞의 서문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여 적잖은 오해를 하였다.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은 활쏘기 한 가지였을 뿐 창과 칼을 다루는 방법 같은 것은 없었다'라는 구절이다. 이를 근거로 임진왜란 이전에 군사들이 창검무예를 전혀 익히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창검 무예는 임진왜란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무예를 익혔었다.

둘째, '이는 『현릉원지』에 나와 있고, 18기라는 이름도 그 때 처음 생긴 것이다'라는 구절이다. 이제까지 이 부분을 '현릉원의 뜻에 따라'로 해석했으나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즉 정조 자신이 친히 지은 '현릉원지'라는 책에 이런 사실이 실려 있다는 뜻이다.

셋째, '고중에 밝은 두 세 명을 골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 '이미 익힌 자가 두 세 명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24반무예는 당대의 군사들이 익히고 있었던 무예이지 책을 간행하는 즈음에 선발된 몇몇이 미리 익혔던 무예가 아니다. 넷째, '이 책이 간행된 것을 계기로 진법과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여 인재 양성을 하려는 뜻'이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것을 익히면 비휴(사자)같은 무사가 된다'는 식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이처럼 잘못된 번역을 학위논문 등에 그대로 인용하다보니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번역상의 오류는 하루 속히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정조는 서문을 통해 무예도보통지 간행의 필요성과 진법과 무예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었다. 정조는 '무적의 진법도 결국 격자술을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조가 확고한 무예관을 가졌기에 국책사업으로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이다.

7. 정조의 개혁정치와 24반무예

1) 장용영과 24반무예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정치권을 혁신시켰다. 같은 탕평을 실시하였으되 다른 점은 영조가 온건한 인사를 중용하는 '완론탕평'을 폈던데 비해 정조는 강경한 인사를 중용하는 '준론탕평'을 실시했던 점이다. 정조는 즉위 초에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사를 양성하고, 정치의 안정을 이루자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신설하여 정예 무사를 육성하였다.

이는 무사한 날에 환란을 대비하자는 유비무환의 정책이었다. 정예의 무사를 육성하는데 창검무예가 빠질 수 없었다. 정조는 즉위하면서 『무예신보』의 18기를 무사들이 익히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1785년에는 『대전통편』에

18기를 관무재 초시과목으로 규정하고, 18반무예의 운용과 밀접한 『병학통』을 간행하였다.

1785년 정조는 장용위를 창설하였다. 50명의 정예군으로 구성된 장용위에는 기마와 창검무예에 뛰어난 훈련도감의 특별부대인 무예별감이 주축이 되었다. 1787년에는 장용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된 청사를 건설했으며, 같은 해 장용청에서 병법서인 『병학지남』을 간행하였다. 1788년 정월부터 장용청을 장용영으로 이름을 바꾸어 위상을 높였다. 이때부터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장용영에서는 보군 중에서 무예가 뛰어난 날렵한 무사 30명을 차출하여 '18기군'이라 부르며 창검무예를 전문으로 교련하였으며, 기병인 장용위에게 마상무예를 집중 교련시켰다.

정조가 『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무예도보통지』 4권 제일 뒤에 붙은 '고이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무예 자세의 차이를 통일하는데 있었다. 당시 5군영의 군사들이 합동으로 무예를 시험하는 중순(中旬), 관무재 같은 무과가 열렸다. 즉 무예의 자세와 기법이 통일되어야 차후 군사들의 합동 훈련과 시험에서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병의 무예, 즉 마상무예 6기를 추가 수록하는데 있었다



화성 연무대 전경

이후 『무예도보통지』는 장용영을 비롯한 전국의 병영에 반포되어 조선 군사들의 24반 무예를 수련할 때 교범으로 활용되었다. 1792년 평안감영에서 24반무예를 시험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 1793년에 수원 화성에 설치한 장용영 외영의 훈련교범으로도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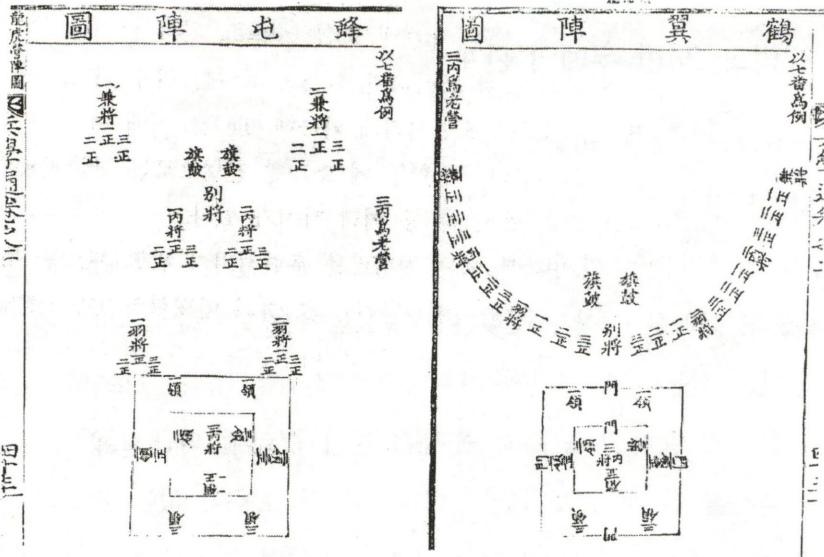
2) 병법과 24반 무예의 관계

『무예도보통지』에서 '병법을 논하는 지는 『병학통』과 『무예도보통지』를 두고 말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다. 『병학통』의 병법과 『무예도보통지』의 24반무예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병법은 무예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오랫동안 정설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정조는 『무예도보통지』 서문에서 "병가의 가르침에서 진법을 두 번째로 하고, 격자를 세 번째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무슨 말인가?"라며 되묻고 있다. 다시 말해 정조는 격자를 잘 하지 못하면 진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이처럼 병법과 창검무예는 날줄과 씨줄처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조선의 오위의 훈련서인 고유한 병법서는 『병장도설』이다. 이 책 속에는 북의 여진, 즉 기병을 상정하여 만들어진 기병용 병법이 들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오위를 훈련할 때 교본으로 쓰였던 『병장도설』은 오위체제가 허점을 드러나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기효신서』에 바탕을 두고 만든 진법서가 『병학지남』이다.

연거푸 전쟁을 겪으면서 군대에서도 반성이 일어났다.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여진(淸)이 위협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침략을 받고 패전하면서 여진을 방어하는 체제인 오위의 복위를 주장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도 오위의 복원 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오위의 복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영조는 『속병장도설』을 간행하였다. 정조는 오

위의 진법에 더 깊은 관심을 쏟았다. 1782년과 1785년에 왕명으로 용호영 기병의 진법을 수록한 『이진총방』을 간행하였다. 정조는 기병 진법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학통』 '마병봉둔진도'와 마병학익진도

이어 보병의 진법과 기병의 진법이 모두 수록된 『병학통』이 간행되었다. 『병학통』은 수군의 훈련도 포괄하고 있다. 24반무예와 『병학통』의 보병진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위의 복원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정조는 1798년 장용영 외영의 군제를 오위의 형식으로 개편하였다. 오위가 폐지된 지 근 300년 만에 부분적이거나 오위의 복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4년 뒤 장용영이 혁파되고, 훈련도감의 핵심 중앙군영의 기능을 갖게 되면서 오위의 복원사업은 원상태가 되고 말았다.

8. 맺는 말

『무예도보통지』의 24반무예는 민족문화의 정화이다. 선조와 정조를 비롯한 국왕, 유성룡과 한교, 이덕무와 박제가를 비롯한 일류 학자는 물론 김체건, 임수웅, 백동수 같은 당대 최고의 무인들이 참여하여 이룩한 동양 무예의 집대성이다. 전쟁의 재발을 막고 국토를 수호하려는 선조의 의지로 완성된 24반 무예에 녹아 든 활달한 몸짓 속에는 민족자존의 의지와 불굴의 투혼이 배어 있다. 비록 적들의 무예라 해도 이를 수용하는 개방된 자세와 전통을 보존하되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는 법고창신의 정신이 구현된 것이 바로 24반 무예이다.

장용영에서 24반무예를 시험하고 시상한 기록

(1788년(정조13) 9월 3일~1800년(정조 24) 2월 27일)

『무예도보통지』의 24반무예를 장용영의 군사들만 특별히 익혔던 것은 아니다.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같은 중앙 군영은 물론 평안감영, 경상감영 같은 지방 군영에서도 24반무예를 익히고 시험 보았던 내용은 각 군문등록에 실려 있다. 마찬가지로 장용영에서 24반무예를 시험 보았던 내용이 『장용영고사』에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1795년에 실시한 중순시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 『원행을묘정리의궤』에도 24반무예를 시험 본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정조시대 당시 격구를 제외한 24반무예 모든 종목을 시험 보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 창검무예를 시험 보았던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를테면 춘당대에서 활쏘기를 시험 보았다는 기록만 나오는 『정조실록』과 같은 날짜의 『장용영고사』를 찾아 보면 조총 사격과 24반무예를 함께 시험 보았던 사실이 실려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4반무예와 관련된 사실을 찾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군영등록을 살펴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장용영고사』에 실린 무예시험 가운데 조총과 활쏘기에 관한 것은 모두 빼고 24반무예만 골라 도표로 정리하였다.

무신(戊申: 1788년) 9월 초3일 마상별기에 입격(入格:합격)한 무사의 명단과 무예 종목 및 시상 내역							
소 속	직 합	인 원	쌍검	월도	마재	교전	시 상
장용영 선기대	출신	박성유	상중	상하			목1필
	출신	강우삼 등 2인		상하			목1필
	출신	이재익	상하				목1필
장용영 무예청		임삼대			상하		목1필 포1필
	겸사복	도윤신			상상		목2필 포1필
	출신	차계득 등 16인			상중		목2필
	양인	김승임 등 26인			상중		목2필 포1필
선기대	양인	인홍도 등 4인				상상	목2필 포1필
	출신	박성유 등 2인				상중	목2필

*목(木)·포(布): 무명과 베. 시험에 입상한 자에게 무명(목)과 포(베)를 부상으로 내렸음.

*입격: 합격을 말함. 과거일 경우 합격한 것을 급제라 하지만 군병을 선발하는 취재나 시취에 합격했을 때는 입격이라 하였음.

*선기대: 장용영에 소속된 기병부대. 선기대를 선발할 때 마상재와 마상무예를 시험보았음.

*무예청: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예별감을 무예청이라고도 함. 무예별감은 건장하고 무예가 뛰어난 정예 무사로 편성된 특별부대였음. 무예별감을 선발하여 장용위를 창설하였고 장용영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무예청을 흡수하였음.

*출신(出身): 무과에 급제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무인.

*양인(良人): 양반과 천인 가운데 계급인 중간층을 양인이라 했음. 당시 장용영 군병 가운데는 천인 출신도 있어 이런 구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임.

*쌍검, 월도: 마상쌍검과 마상월도를 말함. 선기대는 마상무예를 시험 보았음.

*교전(交戰): 기창 교전을 말함.

기유(己酉:1789) 윤5월 초6일 장용영 중일시사의 기예시험에서 초등으로 입격한 무사의 별단(別單:첨부문서)					
소 속	직 합	인 원	마상재	신검	시 상
장용영 선기대	겸사복	도윤신	초등		목1필
순령수	겸사복	김취려		초등	목1필

*중일시사(中日試射): 중일은 무과의 하나인데, 활쏘기 시험이지만 조총 사격과 활쏘기, 그리고 24반 무예를 함께 시험 보았음.

*초등(超等): 기예 시험을 볼 때는 보통 상상(上上)에서 상하(上下)까지 9등급으로 성적을 매겼으나 때로는 상상 위에 초등(超等)을 두어 10등급으로 성적을 매기기도 하였음.

*신검(新劍): 본국검의 다른 이름. 기록상 군영에서 본국검을 시험 본 년도는 1673년으로

나타남.

*겸사복(兼司僕): 국왕 호위가 주임무인 금군 부대 용호영에 소속된 편대의 하나. 용호영에 소속된 700명의 기사 중에서 100명씩 두 부대가 이에 속하나 장용영이 창설되면서 겸사복도 장용영에 편입되었다.

*순령수(巡令手): 기수의 하나로 대장의 휘하에서 명령을 전달하고 호위를 맡으며, 또 순시기와 영기를 드는 군사.

임자(壬子: 1792년) 10월 21일				
장용영 우사 우초 고양 하번(下番) 향군의 활쏘기 및 조총사격[射放]과 진법시험[講陣] 및 기예 시험의 입격인				
소 속	직 합	인 원	용 검	시 상
	양인	박성문 등 6인	상하	포1필

*용검(用劍): 용검은 원래 쌍수도를 가리키는 말이나 창검을 다루는 군사를 통칭하였음. 향군의 병종을 포수, 사수, 용검군 세 가지 병종으로 나누었는데 용검군은 곧 18기군으로 추측된다.

*하번(下番): 지방에 조직된 향군들이 서울에 와서 일정 기간 근무를 서는 것을 번이라 하는데 하번은 번을 마치고 귀향하는 것을 말한다.

갑인(甲寅: 1794년) 9월 25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서총대 활쏘기 시험과 마상별기에 입격한 무사의 명단				
소 속	직 합	인 원	마상월도	시 상
장용영 선기대	겸사복	강세기 등 3인	상하	목1필
	출신	육경휘 등 7인	상하	포1필

*춘당대(春塘臺): 창경궁 안에 있는 대(臺)로 활과 조총을 쏘고 말을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어 금군들의 무예 시험 장소로 쓰였음. 이곳에서 열리는 춘당대시는 임금이 춘당대에 친림하여 보이는 무과 시험의 하나로 1572년(선조5)부터 시작되었다.

*서총대(瑞蔥臺): 창덕궁 안에 마련된 대(臺)로 임금이 친림하여 무관의 활쏘기와 창검무예를 점검하는 대로 사용되었다.

*마상별기: 24반무예 중 마상무예 6기는 기창, 마상쌍검, 마상월도, 마상편곤, 격구, 마상재이다. 이 중 격구와 마상재를 뺀 나머지 4기를 마상별기라 했음. 여기서 월도는 마상월도를 말함.

을묘(乙卯: 1795년) 3월 초10일					
장용영에 나가 대비교(大比較) 병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충용청 제영 각 일행 중순(中旬) 활쏘기와 조총사격 시험의 입상자에게 시상					
소 속	직 합	인 원	별 기	청 룡 도	시 상
교련관	승록	김득원	상중		목1필
교련관	출신	한전복 등 6인	상하		포1필
	출신	동익 등 2인		운용	목1필
	자헌	한대순 등 3인		능거	목1필
	절충	김경홍 등 6인		반거	포1필

*대비교: 2년마다 열렸던 무과의 하나로 5군영이 합동으로 무예를 시험 보였음.

*을묘년에 실시한 대비교의 입상자는 1000명이 넘는데 <을묘원행정리의궤>에 상세하게 나오지만 <장용영고사>에는 그 일부만 기록되어 있다.

*승록: 중 1품의 문무관 품계. 교련관이 중1품의 고위 품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이 낮아 직급은 올릴 수 없어 품계만 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승록대부의 준말.

*자헌: 정2품 문무관의 품계. 자헌대부의 준말.

*절충: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 절충장군의 준말.

*청룡도: 청룡언월도를 말함. 청룡언월도는 보통 사람은 들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워 고위 무관의 용맹과 힘을 측정하기 위해 언월도를 시험했다. 운용은 상상, 능거는 상중, 반거는 상하의 점수와 같음.

을묘(乙卯: 1795년) 9월 26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의 진법훈련과 동등시사 및 초계문신의 과강(강독 시험)을 봄		
소 속	인 원	응 시 과 목
우초 선기대	87인	마상재 응시
좌초 선기대	30인	마상별기[마상월도 마상쌍검] 응시
전초	19인	보기[쌍검 예도 교전] 응시
중초	19인	보기[쌍검 예도 교전] 응시
우초	19인	보기[쌍검 예도 교전] 응시

*초계문신(抄啓文臣): 정조는 37세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선발하여 직접 교육하였는데, 이를 초계문신이라 한다.

*과강(課講): 국왕의 임명을 받은 시험관이 문신들이 강독하는 능력을 시험 보는 것. 정조는 춘당대나 서충대에서 문무관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활쏘기 시험을 벌이기도 하였다.

*동등시사: 매 계절이 시작되는 음력 1, 4, 7, 10월에 보는 활쏘기 시험을 사등시사라 하는데 동등시사는 10월에 보는 겨울철 활쏘기 시험을 말한다. 명칭은 시사(활쏘기 시험)이나 조총과 24반무예, 병법 같은 시험도 함께 보았다.

을묘(乙卯: 1795년) 12월 20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남소영 사격 시험에 입격한 군병과 각색군 중에 가시 기예에 1차로 입격한 무사에게 시상					
소 속	직 합	인 원	제독검	월도	시 상
교련관	검사복	김희봉 등 28명	상하		목1필
교련관	양인	최도인 등 5명		상하	목1필

*남소영(南小營): 한양 장충단의 남소문 옆에 있었던 중앙 5군영의 하나인 어영청의 분영이며, 청사의 규모는 194칸(間)이었다.

*각색군(各色軍): 여러 병종의 군사를 말한다.

병진(丙辰: 1796년) 4월 초4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과 무예청의 하등시사를 시행하고 입상자에게 시상							
소 속	직 합	인 원	마상재	협도	교전	곤봉	시 상
선기대	검사복	이한도	초등				목2필 포2필
	검사복	강세기	상상				목1필 포2필
	출신	김경휘 등 3명	상중				목1필 포1필
	양인	박문춘 등 2명	상하				목1필
	양인	이일원 등 3명	상중				목1필 포1필
전초군		서광수 등 5명		상중			목1필
		김광진 등 3명		상하			포1필
		김장현 등 2명			상하		포1필
중초군		이도빈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이흥인 등 9명		상중			목1필
		박봉득 등		상하			포1필
		최희득			상하		포1필
		원창손				상하	포1필
후초군		한중희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한중태 등 7명		상하			목1필
		장태화 등 3명			상하		포1필
		우세적				상하	포1필

*무예청(武藝廳): 1630년(인조 8)에 30명의 인원으로 설치한 임금을 호위하는 임무를 가진 군영. 훈련도감에 소속된 특별부대로서 무예가 뛰어난 장교들로 구성되었다. 1781년(정조 5)에 2대(隊)로 나누어 각 궁전의 문 옆에서 숙직하며 지키게 하였음. 붉은 군복에 칼을 찻고, 홍철릭과 황초립을 쓰고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달고 파수를 썼음. 이들을 무예별감이라 하였다.

병진(丙辰: 1796년) 4월 초4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과 무예청의 하등시사에 입상자에게 시상				
소 속	직 함	인 원	마상재	시 상
선기대	검사복	이한도	초등	목1필
	검사복	강세기	상상	목1필
	출신	김경휘 등 3명	상중	
	양인	박문춘 등 2명	상하	
	양인	이일원 등 3명	상중	

*선기대(善騎隊): 선(善)이란 ‘매우 잘 한다’는 뜻을 지닌 글자인데, 선기대는 장용영에 두었던 기병부대이다.

정사(丁巳: 1797년) 3월 24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의 중순(中旬) 시사에 입상자에게 시상								
소 속	직 함	인 원	월도	곤추	청룡도	쌍검	기창	시 상
장용위	출신	오문주	상상					목1필 포1필
	절충	오홍량 등 3인		1중				목1필 포1필
별무사	한량	구홍운		1중				목1필 포1필
무사	출신	박중검		1중				목1필 포1필
장용위	출신	송덕환			운용			목1필 포1필
장용위	자헌	한대순 등 11인	상중					포1필
별무사	출신	박효달	상중					포1필
장용위	송정	신덕취 등 3인				상중		포1필
	절충	송광수 등 2인					상중	포1필
	자헌	한대순 등 4인			능거			포1필
	가선	한창려 등 10인	상하					포1필
무사	절충	차진행	상하					포1필
장용위	가선	김춘운 등 4인				상하		포1필
별무사	절충	강세문				상하		포1필
	한량	구홍운					상하	포1필
	출신	차도유 등 2인			반거			포1필

*곤추(棍笏): 마상편곤과 같음. 단 마상편곤은 편곤을 휘두르는 자세와 기법을 시험하는 것인 반면, 곤추는 말을 달리며 편곤으로 허수아비를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달랐음.

*중순(中旬): 군사를 격려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무과의 하나로 입상자를 많이 뽑고 부상도 넉넉히 주었다.

*별무사(別武士): 장용영과 훈련도감의 마병(馬兵),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선발된 장교.

*무사(武士): 무사는 장교급의 무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한량(閑良): 무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취재(取才, 혹은 시취)에 입격한 무사.

정사(丁巳: 1797년) 8월 27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서종대의 시사에 입격한 무사에게 시상									
소 속	직 합	인 원	마재	쌍검	월도	기창	교전	원기	시 상
좌초 선기대	겸사복	박춘문 등 2명	상상						목1필 포2필
	출신	김경휘 등 7명	상중						목1필 포1필
	양인	신동준 등 5명	상하						목1필
우초 선기대	겸사복	장억수 등 4명	상중						목1필 포1필
		박광필 등 4명	상하						목1필
좌초 선기대	출신	김광규		상중					목1필
		육경휘		상하					포1필
		박성적			상하				포1필
우초 선기대	출신	김정윤 등 2명			상중				목1필
	절충	이치인 등 7명			상하				포1필
	겸사복	이언국 등 3명		상하					포1필
		최광규 등 2명				상하			포1필
좌초 선기대	출신	이대성 등 2명					상중		목1필
	출신	김경휘 등 3명					상하		포1필
우초 선기대	출신	김광옥 등 3명					상하		포1필
각색능기군									
순령수	겸사복	김취려 등 2명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최치덕		상하				상하	포2필
순령수	겸사복	윤호완 등 5명		상하					목1필
	양인	이완복						상중	목1필
	겸사복	박대길 등 4명		상하					포1필
대기수	겸사복	강홍대						상하	포1필
중사삼초능기군									
전초군	겸사복	하재징 등 2명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양인	정수명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겸사복	홍홍범 등 5명		상중					목1필
		최세환					상중		목1필
	겸사복	김복한 등 4명					상하		포1필
	양인	김장석 등 3명		상하					포1필
중초군	겸사복	이도빈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이도원					상하	상하	포2필
		최귀징 등 9명		상중					
	겸사복	임복신						상중	목1필
	양인	김징명		상하					포1필
		윤호광 등 5명						상하	포1필
후초군	겸사복	한중태 등 2명		상중			상하		목1필
	겸사복	우세적 등 7명		상중					목1필
		한광천						상중	목1필
		강승문 등 4명		상하					목1필
	양인	안필기 등 3명						상하	포1필

정사(丁巳: 1797년) 10월 28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별군직과 무예청의 동등시사에 입격한 무사에게 시상 ○고양 향군의 하번(下番) 활쏘기 및 사격시험에 응시한 장용영군 장관 이하 각기(各技)의 입격자 명단과 시상 내역[別單]					
소 속	직 합	인 원	용 김	병학지남	시 상
용 김군	양인	방영대	상중		목1필
		이대구 등 16명	상하		포1필
	검사복	김홍범		강/략 진/략	목1필

*원기(猿騎): 재주 많은 원숭이처럼 말을 탄다는 뜻으로 마상재를 말함.

*능기군(能技軍): 정조는 장용영 군사 중에서 창검을 전문으로 하는 군병을 18기군이라 불렀다. 능기군은 18기에 능숙하고, 사격술에도 두루 뛰어난 병사를 말한다. 18기군 중 우수한 자는 능기군으로 올려 주었다.

*별군직(別軍職): 효종이 즉위하면서 봉림대군 시절 병자호란에 패배하여 청의 볼모로 잡혀 심양에 있을 때 자신을 호위한 8명의 장사 후손들을 위해 만든 무관 벼슬.

*강략(講略)·진략(陣略): 병서의 강독과 진법을 시험 볼 때는 상상-통, 상중-략, 상하-조로 점수를 매김.

정사(丁巳: 1797년) 12월 18일					
장용영에 소속된 영남무사의 편제 시험에 입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내역 장용영 향무사 조총과 활쏘기[射放] 거수인(居首人)에게 직부전시토록 어명					
소 속	직 합	인 원	시 상	병학지남	시 상
용 김 군		유재득	상중		목1필
		심중신 등 13명	상하		포1필
교사		김홍범		강/략 진/조	포1필

*영남무사: 장용영에 소속된 경상도 지역의 무사.

*향무사: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병으로 중앙 군영에서 복무하는 별무사와 역할이 비슷함.

*사방(射放): 조총 사격과 활쏘기 시험.

*직부전시(直赴殿試): 무예 시험에서 1등한 무사에게 무과의 최종 시험인 전시에 바로 응시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직부전시를 하면 무과에 급제한 것이나 다름없음.

*병학지남(兵學指南): 조선 후기 군사교본으로 활용한 병서의 하나.

*진(陣)/조(粗): 진법 시험에서 조는 기예 시험의 상하와 같음. 그러므로 <병학지남>을 강독하는 시험에서 조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입상할 수 있음.

기미(己未: 1799년) 2월 24일					
장용영 향군 활쏘기와 여러 기예에 입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 내역					
소 속	직 합	인 원	시 상	병학지남	시 상
용 검 군	양인	서재홍 등 2명	상중		목1필
		서해룡 등 14명	상하		포1필
교사	겸사복	김학령		강략 진조	포1필

*교사: 군사들에게 무예나 병법을 가르치는 장교인 교련관을 말함.

기미(己未: 1799년) 8월 27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서충대 시사, 화성 속읍 무사의 시취(試取)와 장용영 추등 시사에 입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 내역								
소 속	직 합	인 원	마재	쌍마재	교전	월도	쌍검	시 상
좌초 선기대	출신	전수일 등 3명	상상					목1필 포1필
	출신	김경휘 등 3명	상중					목1필 포1필
	출신	오계복 등 7명	상하					목1필
우초 선기대	겸사복	장억수 등 4명	상하					목1필
좌초 선기대	겸사복	박춘문		상중				목1필 포2필
	양인	김세중		상하				목1필 포1필
우초 선기대	양인	김인택		상하				목1필 포1필
좌초 선기대	출신	오계복 등 2명			상중			목1필 포1필
		전경휘			상중			목1필 포1필
우초 선기대	절충	이처인				상하		포1필
	양인	장 건					상하	포1필

*선기대가 보았던 기예는 모두 마상무예로 교전은 기창교전, 월도는 마상월도, 쌍검은 마상쌍검을 말함.

*화성 속읍 무사: 화성에 소속된 5개 읍(용인 진위 안산 시흥 파천) 출신의 장용영 외영 무사를 말함.

*쌍마재: 「무예도보통지」 4권에 실린 마상재 항목에 한 마리 말을 타고 기예를 펼치는 마상재와 말 두 마리를 타고 기예를 펼치는 쌍마재를 수록하였다. 당시 쌍마재도 자주 시험했을 것이지만 이것이 쌍마재를 시험 본 유일한 기록이다. 3명의 입상자는 모두 선기대에 소속된 무사들이다.

기미(己未: 1799년) 10월 19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 대비교를 시행하고 입격한 무사에게 시상한 내역						
소 속	직 합	인 원	월도	쌍검	청룡도	시 상
장용위		유효운 등 3명	상중			목1필
		신덕취 등 2명		상중		목1필
장용위		김효일 등 9인	상하			포1필
		송량신 등 5인		상하		포1필
장용위		김경홍			능거	목1필
장용위		표건담 등 2인			반거	포1필

기미(己未: 1799년) 10월 17일				
장용영 양근·가평에 소속된 향무사의 조총과 활쏘기에 입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 내역				
소 속	직 합	인 원	용 검	시 상
용 검 군		박성선 등 2명	상중	목1필
		김성관 등 20명	상하	포1필

기미(己未: 1799년) 12월 25일					
장용영 고양 향무사 향군이 하번할 때 사격과 활쏘기 및 창검무예에 입격한 장관 이하에게 내린 시상 내역					
소 속	직 합	인 원	용 검	병학지남	시 상
용 검 군		정춘성 등 2명	상중		목1필
		최한홍 등 17명	상하		포1필
교사		전홍범		강조 진략	포1필

*장관(將官): 초관 이상의 지휘관. 초관, 파총, 중군, 선기장 등을 모두 장관이라 불렀으며 정4품 이상은 당상장관 그 이하는 당하장관이라 함.

경신(庚申: 1800년) 2월 27일				
장용영에 소속된 수원 향군의 조총과 활쏘기에서 입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 내역				
소 속	직 합	인 원	용 검	시 상
용 검 군		이건재	상중	목1필
		이민변 등 10명	상하	포1필

24반무예의 병장기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24반무예의 병장기는 무예의 가지 수 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온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유물은 매우 드문 상태이며, 유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어딘가에 존재할 지도 모르지만 현재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4반무예를 수련하려면 이런 병장기를 복원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무예도보통지』에는 대부분의 경우 병장기의 길이와 무게를 제시해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시대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대에 도량형을 통일한 뒤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길이를 재는 자가 문제이다.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쓰인 것이 영조척(營造尺)과 주척(周尺)이다. 그런데 『무예도보통지』 속에도 어떤 병장기는 주척을 적용하고, 어떤 병장기는 영조척을 적용하였다. 물론 당대에는 이를 식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영조척과 주척을 함께 사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무예서는 『무예제보』와 『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신보』와 『무예도보통지』가 있다. 여러 가지 사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무예제보』와 『무예제보번역속집』에 수록된 무예의 병장기는 영조척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무예신보』와 『무예도보통지』에 추가로 수록된 무예의 병장기는 주척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앞에 제시한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참고로 영조척 1자는 약 31센티미터이며, 주척 1자는 약 21센티미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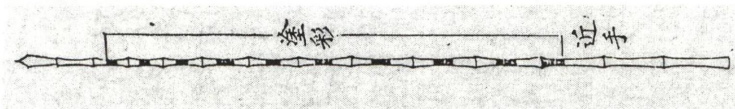
장창

길이는 1장5척(영조척으로 환산하면 약4.5m)이다. 재질은 주목과 합목이 있으며, 창의 머리는 무게가 4량이 넘지 않으며, 창날에는 혈조가 있다. 창자루와 창날의 결합부위에는 상대의 병기를 걸어 찢히기 좋은 석반이 달려있다. 창자루의 목 부분에는 흰색과 검은 색과 붉은 색이 칠해져 있다. 창자루의 끝에는 고달이가 달려있어 무게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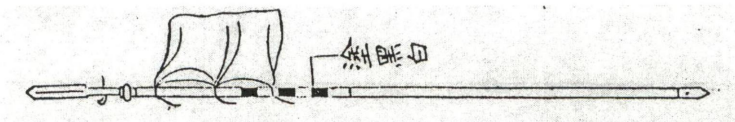
죽장창

길이는 20척(주척으로 환산하면 약4m)이며, 창날은 4촌(8cm)이다. 자루의 손을 잡는 5척(1m)정도 위부분은 백지를 붙이고 검은 색으로 채색을 한다. 대나무는 가볍고 쉽게 부러지므로, 대나무를 쪼개어 모아서 아교로 대나무살을 붙여 굳게 하고 칠을 칠하면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



기창

자루의 길이는 9척(주척으로 환산하면 약1.9m)이고 창날의 길이는 9촌(1.9cm)이며 혈조가 있다. 자루에는 붉은 칠을 하며, 석판이하에는 흰색과 검은 색으로 다섯 마디를 칠한다. 누런 색이나 붉은 색의 작은 기를 단다.



당파

길이는 7척6촌(영조척으로 2.3m), 무게는 5근이다. 창날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의 굵기는 1촌(3cm)으로 자루로부터 점점 가늘어진다. 깊이 찌르기 위해 양쪽 끝가지 보다 가운데 창날이 반드시 2촌(6cm)이상 길어야 하며, 양쪽 끝가지가 평평하면 그 위에 화전(火箭)을 얻어서 쏠 수 있다.

당파



기창(騎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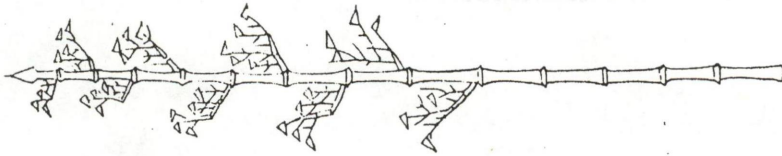
일명 마상창이라고 불리우며, 자루의 길이는 15척(영조척으로 4.5m)으로 보장창과 같다고 한다. 『훈국신조군기도설』에 의하면 자루의 길이는 6척5촌(영조척으로 2.1m)이며, 자루의 굵기는 1촌(3cm)이고, 창날의 길이는 9척5분(30cm)이다. 무게는 1근8량이다.



낭선

낭선의 길이는 1장5척(영조척으로 4.5m)이고, 무게는 7근이다. 대나무 끝에 독을 묻힌 철조각을 달아 적을 상하게 한다. 끝가지는 반드시 9층이고 10층이나 11층이면 더욱 좋다고 한다.

낭선의 창날 끝의 무게는 반 근 이상으로 역시 곁가지를 붙여야 한다. 가지가 없으면 다른 나뭇가지를 붙여도 된다고 한다.



쌍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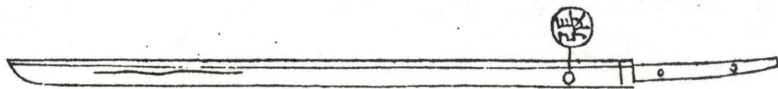
칼날의 길이가 5척(영조척으로 150cm)인데, 뒷부분에 구리로 썬 날(동호인(銅護刃))이 1척(30cm)이며, 칼자루의 길이는 1척5촌(45cm)으로 전체의 길이는 6척5촌(195cm)이고, 무게는 2근8냥이다. 이는 왜구가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본명은 장도인데 오늘날 쌍수도라 부르는 것은 두 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제독검

이여송이 임진왜란에 들어와 있을 때 통진 금씨(通津琴氏)의 딸을 시녀로 데리고 있다가 명으로 떠날 때 신표로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주었다고 한다. 길이는 3척4촌(주척으로 70cm) 칼자루는 9촌(20cm)이며, 두 개의 구멍이 있다. 칼날의 너비는 1촌5푼(3cm)이며, 윗 부분은 1촌2푼(2.5cm)이다. 칼등의 두께는 3푼5리(7mm)이며, 끝 부분은 1푼5리(3mm)이다. 칼날 면에 '장(張)'자가 둥근 구멍 안에 해서체로 양각되어있다.

위쪽 세로로 난 틈에 용이 꿈틀거리는 희미한 문양이 있다.



예도

환도의 다른 이름이다. 날의 길이는 3척3촌(주척으로 70cm), 자루의 길이는 1척(21cm)이며, 무게 1근8냥이다. 전체 길이는 대략 80cm 전후이며 현존하는 유물의 길이도 이 정도이다. 조총과 더불어 개인의 군기로 지급되었으며, 각 군영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 및 보수하였다. 칼날에는 해당 군영의 표식과 검의 길이, 제작한 장인에 대하여 적어 놓게 하였다.

예도 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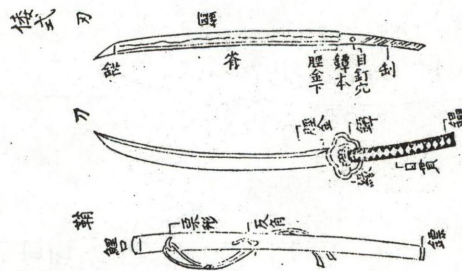
쌍검

칼날 길이는 2척5촌(주척으로 50cm), 자루 길이는 5촌5푼(13cm), 무게 8량이다. 쌍검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환도 중에 가장 짧은 것을 택하여 썼다. 쌍도 중에는 하나의 칼집에 두 자루의 칼이 같이 꽂히게 되는데, 자루의 모양이 각각 원의 반쪽으로 하여 그것을 아우르면 하나의 둥근 칼자루가 된다고 한다.



왜검

일본도(日本刀)는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이 일정하지 않으며 칼날의 강함과 날카로움은 예전부터 이름이 높았다. 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반드시 자루 위의 한 면에는 칼 이름을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장인의 이름을 새겼다. 전국시대를 지나면서 2m에 육박하던 일본도의 길이는 도꾸가와 막부의 폐도령에 의해 차고 다니기 쉬운 1m정도로 짧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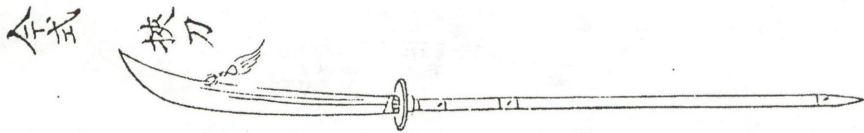
월도, 마상월도

자루의 길이 6척4촌(주척으로 130cm)이고, 날의 길이 2척8촌(60cm), 무게가 3근 14량이다. 가지 난 칼날에 털 깃을 달았다. 자루에서 날이 연결된 부분은 황동으로 용머리가 장식되어 있다. 자루는 붉은 칠을 하고 자루 끝에는 철준을 달아 무게균형을 맞춘다. 월도는 언월도, 중월도, 청룡도의 무게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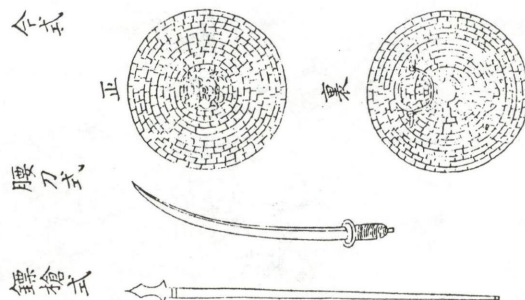
협도

자루의 길이는 7척(주척으로 150cm), 날의 길이는 3척(65cm), 무게 4근이며 칼 자루에 붉은 칠을 하며 칼날 등에는 깃털을 단다. 협도를 일본에서는 '나기나 다'라고 불리며, 중국에서는 '미첨도'라 불렀다. 봉의 끝에 칼을 단 것이 시초인데 후에 점점 길어져 월도와 거의 같아지게 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협도곤(挾刀棍, 칼날을 낀 곤봉)이다.



등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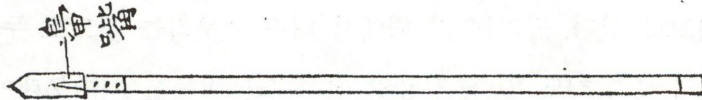
수령이 오래된 손가락 굵기의 등나무 줄기를 엮고 대나무 껍질을 촘촘히 감아 중심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안을 비워 만들었다. 원래 중국 남방에서 전래하였으나, 조선에서 사용한 등패의 경우 직경이 3척7촌(주척으로 65cm)으로 앞았을 때 몸을 숨기기가 약간 부족하며, 잡는 곳을 부드러운 뽕나무로 하여 중국식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등패로 화살을 막을 수 있었다. 『무비지』에 "조선에서는 등패로 조총을 막아내었다"고 하여 조선에서 만든 등패의 성능이 매우 좋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무기의 하나이다.



곤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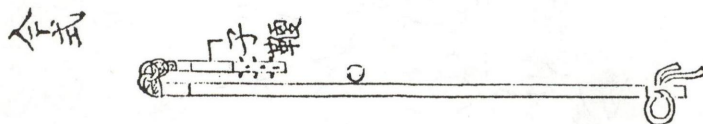
곤의 길이는 7자(영조척으로 210cm)이고, 무게는 3근8냥이며, 날 길이는 5치(15cm)이고 무게는 4냥인데 끝에 '압취'라는 오리부리모양의 칼날을 달아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화병(火兵, 식사를 담당하는 군사)에게 주어 적의 기습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북방의 기마병과 싸울 때 장창이 가끔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 장창을 대신하여 대봉에 칼을 낀 곤을 쓰게 되었다.



편곤

다른 이름은 철연가(鐵連枷, 쇠도리깨)라 한다. '철연가가 나타남으로서 창과 칼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편곤은 실전에 뛰어난 무기였다. 보편곤과 마상편곤이 있다. 보편곤은 편 길이가 8척9촌(주척으로 180cm), 자편은 2척5촌5분(50cm)이며, 마상편곤의 길이는 6척5촌(130cm)이고 자편은 1척6촌(35cm)이다. 용호영에 소속된 기병의 전원, 훈련도감이나 장용영에 소속된 마병들에게 기본병기로 지급되었다.



격구

격구채 자루의 길이는 3척5촌(주척으로 75cm)이고, 공을 받치는 부분의 길이는 9촌(20cm)이다. 사용하는 공의 둘레는 1척3촌(28cm)이고 붉은 칠을 하였다. 고려시대부터 무과의 한 형태가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기병의 훈련을 위해

격구가 장려되었으나 후대에 오면서 그 맥이 끊기게 되었다.



마상재

마재(馬才)하고도 한다. 달리는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두 마리 말을 사용한 쌍마재(雙馬才)도 있다. 장용영 선기대를 비롯한 기병부대에서는 기본적인 기예로 훈련되었으며, 기예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삼혈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삼혈총은 세 개의 총구가 있는 소형화포로 임진왜란 이후에 사용되었다.



장용영 군물 도표

『장용영고사』를 살펴 장용영에서 제작하거나 수리한 군용물품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군용물품이 제작된 해는 1788년에 2회, 1795년과 1797년에 각각 1회씩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85년에 창설된 장용위는 1787년에 장용청으로, 다시 1788년에 장용영으로 군영의 명칭을 바꾸었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1788년에 제작된 군용물품은 이와 깊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795년에 제작된 것이 수량도 가장 많고 품목도 다양하다. 이 해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이하여 화성에서 큰 연회를 열었던 을묘년이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행차할 때 장용영 내영과 외영의 병력이 호위를 맡았다. 이때 5천에 가까운 장용영의 병력이 참가했다. 그런데 품목을 살펴보면 군사 훈련과 관련되는 물품보다는 의장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행사를 위해 제작된 군용물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795년의 화성 행차를 세밀하게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이 남아 있다. 이 책은 장용영에서 의장으로 사용한 다양한 물품의 종류와 용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장용영에서 제작한 군물은 총검 같은 병장기부터 모자, 의복, 신발에 이르는 의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품목이 등장한다. 다만 군용물품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물품도 적지 않다. 아무튼 이 도표를 통해 조선후기 군영에서 사용된 군수물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도표 안의 '/'은 수리, 보수한 군물을 나타낸다.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년	무신 1788년	을묘 1795년	정사 1797년
청도기	남대단청도기(藍大緞淸道旗)	2면(面)		2면	
금고기	홍이광당금고기(黃二廣緞金鼓旗)			2면	
	황대단금고기(黃大緞金鼓旗)	2면			
신기	홍대단신기(紅大緞神旗)			1면	
	남대단신기(藍大緞神旗)			1면	
	흑대단신기(黑大緞神旗)			1면	
	홍이광단신기(紅二廣緞神旗)			1면	
	백이광단신기(白二廣緞神旗)			1면	
대기	홍대단대기(紅大緞大旗)			1면	
	남대단대기(藍大緞大旗)			1면	
	황이광단대기(黃二廣緞大旗)			1면	
	백이광단대기(白二廣緞大旗)			1면	
	홍목대기(紅木大旗)			2면	
	청목대기(靑木大旗)			2면	
	황목대기(黃木大旗)			2면	
	백목대기(白木大旗)			2면	
	흑목대기(黑木大旗)			2면	
	각색대단오방기(各色大緞五方大旗)	5면			
고초기	남화화주고초기(藍禾花紬高招旗)			1면	
	황화화주고초기(黃禾花紬高招旗)			1면	
	홍목고초기(紅木高招旗)			2면	
	청목고초기(靑木高招旗)			2면	
	황목고초기(黃木高招旗)			2면	
	백목고초기(白木高招旗)			2면	
	흑목고초기(黑木高招旗)			2면	
	각색대단오방고초기(各色大緞五方高招旗)	5면			
문기	백이광단문기(白二廣緞門旗)			2면	
	흑대단문기(黑大緞門旗)			2면	
	황대단문기(黃大緞門旗)	2면			
각기	각색대단각기(各色大緞角旗)	4면		8면	
	백이광단표미기(白二廣緞豹尾旗)			1면	
인기	남이광단인기(藍二廣緞認旗)			1면	
	백이광단인기(白二廣緞認旗)			1면	
	황이광단인기(黃二廣緞認旗)		1면		
	홍화화주인기(紅禾花紬認旗)			1면	
	황화화주인기(黃禾花紬認旗)			2면	
	흑화화주인기(黑禾花紬認旗)			1면	
	홍대단인기(紅大緞認旗)			2면	
	황대단인기(黃大緞認旗)	3면			
	각색단인기(各色緞認旗)				2면
	각색면주인기(各色綿紬認旗)				5면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사명기	남대단사명기(藍大緞司命旗)			1면	
	백이광단사명기(白二廣緞司命旗)				1면
수기	홍대단수기(紅大緞手旗)			2면	
	남대단수기(藍大緞手旗)			1면	
	홍이광단수기(紅二廣緞手旗)			4면	
	남이광단수기(藍二廣緞手旗)			4면	
	황이광단수기(黃二廣緞手旗)			6면	
	백이광단수기(白二廣緞手旗)			4면	
	흑이광단수기(黑二廣緞手旗)			3면	
	남백흑이광단수기(藍白黑二廣緞手旗)		각 1면		
	각색화화주신기(各色禾花紬神旗)		5면		
	남화화주신기(藍禾花紬神旗)			1면	
	백화화주신기(白禾花紬神旗)			1면	
	각색대단수기(各色大緞手旗)	3면			
	수기(手旗)				15면
령기	홍대단령기(紅大緞令旗)	5쌍(雙)		20면	
	남대단령기(藍大緞令旗)	7쌍	1쌍	68면	
	청삼변령기(靑三弁令旗)			50면	
	황대단호령기(黃大緞號令旗)	3면			
순시기	홍대단순시기(紅大緞巡視旗)	3쌍		10면	
	남대단순시기(藍大緞巡視旗)	3쌍		16면	
	청삼변순시기(靑三弁巡視旗)			24면	
당보기	황면주당보기(黃綿紬塘報旗)		1면	6면	
기총기	홍화화주기총기(紅禾花紬旗摠旗)			3면	
	황화화주기총기(黃禾花紬旗摠旗)			3면	
	남면주기총기(藍綿紬旗摠旗)			3면	
	백면주기총기(白綿紬旗摠旗)			3면	
	기총기(旗摠旗)				21면
기대총기	황주기대총기(黃紬旗隊摠旗)	12면			
	남백흑면주기대총기(藍白黑面紬旗隊摠旗)		각12면		
대장기	홍화화주대장기(紅禾花紬隊長旗)			10면	
	흑화화주대장기(黑禾花紬隊長旗)			9면	
	남면주대장기(藍綿紬隊長旗)			9면	
	백면주대장기(白綿紬隊長旗)			9면	
	남백흑면주장기(藍白黑面紬將旗)		각1면		
	대장기(隊長旗)				64면
표미기	백대단표미기(白大緞豹尾旗)	1면			
열기	남백대단좌우열기(藍白大緞左右列旗)	2면			
	흑대단후열기(黑大緞後列旗)	1면			
요기	각색단요기(各色緞腰旗)				2면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잡물	각색기우비(各色旗雨備)			6건(件)	
	각색기죽(各色旗竹)			44개	6개/86개
	영기두갑(令旗頭甲)		40건	6건	6개
	남삼변령기엽(藍三弁令旗葉)		10면		
	남대단령기엽(藍大緞令旗葉)				/1면
	영기간(令旗桿)		9/20		
	영기우비(令旗雨備)		12건		
	기죽치미(旗竹雉尾)				1개
	통개(筒箇)			2부(部)	
	육량궁(六兩弓)			1장	
활	장궁(長弓)			394장	
	흑각장궁(黑角長弓)				735장
	후궁(幬弓)			106장	326장
	교자궁(校子弓)			2장	
	수노궁(手弩弓)		5좌(坐)		
화살	신전(信箭)			30개	
	신전엽(信箭葉)			25면	
	신전기(信箭機)			2좌	
	신전유우비(信箭油雨備)			2부	
	신전로우비(信箭露雨備)			2부	
	신전소우비(信箭小雨備)			10건	
	관이기(貫耳機)	1좌			
	관이령전죽(貫耳令箭竹)		2개		
	팔개관이전(八箇貫耳箭)			1부	
	전구령전기(箭具令箭機)	1좌			
	전구루수통(箭具漏水桶)	1좌			
	영전(令箭)			1부	
	영전우비(令箭雨備)			2부	44건
	미전(尾箭)			50개	
	별체전(別體箭)	140부10개		15개	
	장전(長箭)			15개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2개	
	사롱(紗籠)	2쌍			
	홍운문사롱(紅雲紋紗籠)			44건	14쌍
등롱	남운문사롱(藍雲紋紗籠)			44건	16쌍
	철롱(鐵籠)	13잔(盞)	48잔	50잔	/22잔
	철롱잔(鐵籠盞)			29개	
	지롱(紙籠)	13잔		344개	
	각색지롱(各色紙籠)				126건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각이(角耳)	45개			
과녁	사관혁(射貫革)				5좌/3좌
	목소포(木小布)			5부	3건
	포소포(布小布)			28부	18건
도검	환도(環刀)	300병/100병	/29자루	672자루	389자루
	제독검(提督劔)			2자루	
	월도(月刀)				/16자루
	목월도(木月刀)	8자루		8자루	10자루
	쌍검(雙劔)				/7쌍
	목쌍검(木雙劔)			13자루	10쌍/1척
	목검(木劔)	3쌍		8자루	7자루
	피검(皮劔)	3쌍		55자루	60쌍
전대	남화화주전대(藍禾花紬戰帶)	139건	28건	629건	702건
	남면주전대(藍綿紬戰帶)		381건	445건	254건
	청목전대(靑木戰帶)			6건	/446건
휘건	초록화화주휘건(草綠禾花紬揮巾)		4정(頂)		
유삼	유삼(油衫)	350벌	196벌	80벌[領]	791벌 /1944벌
	황목감투(黃木甘吐)			25립(立)	
	한삼(汗衫)			11건	
	행전(行纏)			121건	250건 /567건
	적족철(籍足鐵)			30부	
	비수(臂袖)	63척(隻)			
갑옷	두석갑주(豆錫甲冑)	104부			
	주모자(冑帽子)	104립			
	각색두구(各色頭具)				/72정
	각색단갑주(各色緞甲冑)	25부			/104부
	진홍성전린갑주(眞紅猩氈鱗甲冑)				1부
	각색상사단갑주(各色賞賜緞甲冑)				20부
	각색삼변갑의(各色三弁甲衣)				/40부
	갑주피갑(甲冑皮匣)				/2건
호의	홍이광단호의(紅二廣緞號衣)			1벌	
	황이광단호의(黃二廣緞號衣)			1벌	
	홍목호의(紅木號衣)	123벌		3벌	
	황목호의(黃木號衣)	128벌		81벌	
	남백흑이광단호의(藍白黑二廣緞號衣)		각 1벌		
	청백흑목호의(靑白黑木號衣)		각 116벌		
	각색단호의(各色緞號衣)				12벌
	각색목호의(各色木號衣)				517벌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패자	홍목패자(紅木掛子)	14벌[領]		310벌	92벌 /196벌
	청삼변패자(靑三弁掛子)	50벌		51벌	134벌
	흑목패자(黑木掛子)			2벌	/2벌
	청목패자(靑木掛子)	75벌	406벌	264벌	417벌 /708벌
	저포패자(苧布掛子)			4벌	/5벌
	흑포패자(黑布掛子)			2벌	2벌/4벌
	청저포패자(靑苧布掛子)		70벌		
유의	청목유의(靑木褌衣)			13벌	/22벌
	황목주의(黃木周衣)			25벌	27벌
협수	흑삼변협수(黑三弁挾袖)	50벌		51벌	136벌
	청목협수(靑木挾袖)			2벌	/2벌
	흑목협수(黑木挾袖)	89벌	410벌	316벌	566벌 /884벌
	저포협수(苧布挾袖)			4벌	/5벌
	청포협수(靑布挾袖)			2벌	2벌/4벌
	홍목협수(紅木挾袖)		4벌		
	흑저포협수(黑紵布挾袖)		17벌		
	흑포협수(黑布挾袖)				524벌
마상재옷	황홍면주마재의(黃紅綿紬馬才衣)		각25건		
	황홍면주마재고(黃紅綿紬馬才袴)		각15건		
신발	목화자(木靴子)			37부	
	다로기(多綠只)	88컬레		280컬레	285컬레
모자	전립(戰笠)			256립	4립
	주립(朱笠)	10립	24립	64립	66립
	모단전건(冒緞戰巾)			241정	
	조패영(造貝纓)			1건	
	상모(象毛)	200개	409개	910개	342개/80개
	전우(轉羽)		24개	24개	64개
	용자운월(勇字雲月)		24개		/128개
곤장	주장(朱杖)	20개		14개	4쌍/2쌍
	곤장(棍杖)		50개	602개	400개
	삼릉장(三稜杖)	3개/3개			/5병
악기	징(鉦)	2좌(坐)	5좌	4좌	1좌/6좌
	편구황목의(鞭具黃木衣)	2건			
	추(錐)			2좌	
	고(鼓)	5좌	4좌	14좌	/2좌
	화룡대고(畫龍大鼓)				4좌/2좌
	편구황목의(鞭具黃木衣)	5건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세점자(細點子)			2쌍	
	자바라(嗒哼囉)	1짝[隻]		8쌍	/2쌍
	나발(喇叭)	1짝	4쌍	5지	2지/24지
	호적(號笛)			5지	2지/23지
	목대각(木大角)	7지	4쌍	1지	2쌍/2쌍
	솔발(撻鉢)	1개	4자루	1자루	
	정고편(鉦鼓鞭)			39개	4개/15개
	쇄눌(瑣訥)	1쌍	4쌍		
	장구(長鼓)	1좌			/4좌
	조두(刁斗)			100타	100타
	포초대(布草袋)	111건			
	라(羅)				/1좌
창곤	죽장창(竹長槍)			5자루	
	목장창(木長槍)			1자루	/1지
	낭선(狼筴)			5자루	
	보편곤(步鞭棍)			26자루	/1쌍
	기에편곤(技藝鞭棍)				/2자루
	편곤갑(鞭棍匣)				/28건
	곤봉(棍棒)	3쌍		104자루	12쌍
	이화창(梨花鎗)	4자루			/12자루
	목기창(木旗鎗)	4쌍			2자루
	기창(旗槍)	1자루			/7자루
	도금징자(鍍金徵子)	1개			
	두석징자(豆錫徵子)	130개			/65개
	두석편곤(豆錫鞭棍)	177자루			
	람염장식편곤(鑲染粧飾鞭棍)				20명97명
	자우피편곤가(紫牛皮鞭棍家)	57건			
	두석장식장검(豆錫粧飾長劍)	6자루			
	두석장식협도(豆錫粧飾挾刀)	2자루			
	장협도(長挾刀)		2자루		
	협도(挾刀)				/3자루
군막	어군막표피모장(御軍幕豹皮毛帳)			1부	
	어군막삼변방장(御軍幕三弁房帳)				2부
	어군막우비(御軍幕雨備)				2부
	흑삼변우산군막(黑三弁雨傘軍幕)	1부		8부	
	군막호피하배(軍幕虎皮下排)				1건
	포차일 32폭40척(布遮日)			1부	
	포휘장 7폭20척(布揮帳)			3부	
	목사면익장 8폭4척4촌(木四面翼帳)				2부
	목갑익장 7폭10척(木甲翼帳)				1부
	포휘장 7폭20척(布揮帳)				2부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포면장 9폭5척(布面帳)				1부
	군막(軍幕)				/4면
	군막색(軍幕索)				12거리
	군막주월내(軍幕袖月乃)				4건
	익장(翼帳)				/2부
	포휘장(布揮帳)				/3부
	병풍(屏風)			12좌	
	군막병풍(軍幕屏風)				/5좌
	좌판(坐板)			34좌	
	좌철(座鐵)			2좌	
	철말(鐵末)			57개	
우비	군막우비(軍幕雨備)		1부	3부	1부
	유둔(油苴)	19부		55부	
	군막유둔(軍幕油苴)				13부
	청목갑장막(靑木甲帳幕)	1부			
	갑포장(甲布帳)	16부			
	흑목갑군막(黑木甲軍幕)		1부		
	흑목군막(黑木軍幕)				/1부
	장막(帳幕)		30부		
	장막우비(帳幕雨備)		30부		
대포	포관혁(砲貫革)			380좌	/13좌
	수우피대포의(水牛皮大砲衣)			5건	
마구	마안(馬鞍)			3부	16부/2부
	마주락(馬朱絡)				101개/2쌍
군물	목대(木岱)			61건	/1건
	목전대(木戰岱)		270건		
	주락(朱絡)	11쌍	4쌍	171쌍	
	부자(釜子)			3좌	/4자루
	거자(車子)			2자루	
	편담(扁擔)	9개	27개		/9자루
	담통(擔桶)			3좌	
	적(積)			1좌	
	황목환자대(黃木丸子岱)		110건		
	화철(火鐵)		270개		
	대추(大錐)		270개		
	석침(席針)		270개		
	대침(大針)		270개		
	중침(中針)		270개		
	별낭침(別囊針)		270개		
	추갑(錐匣)		270개		
	침갑(針匣)		270개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초	삼량 황촉(三兩黃燭)	339쌍	2자루		1680
	2량 황촉(黃燭)				4500
	3량5전 주촉(注燭)				300자루
	2량 주촉(注燭)				500자루
	황촉(黃燭)		각1000		
	황촉(銅鍋)	145좌			/3좌
	동표자(銅瓢子)	750개			1000개/1개
	피표자(皮瓢子)		1000개		/320개
	산행도(山行刀)	5자루			
	적족철(籍足鐵)	5쌍			
	각철(脚鐵)	12개			
삼혈총	삼혈총(三穴銃)		25자루		
	총가(銃架)		1좌		
	환자궤(丸子櫃)		5좌		
	기화(起火)				500지
	약선(藥線)				100조
	대철(大鐵)	2개			
	장족(獐足)	3개			
	철장(鐵杖)	2개			
	마철(馬鐵)				1000부
조총	조총(鳥銃)	100자루	/20자루	1000	/152병
	평조총(平鳥銃)	100자루			
	단조총(短鳥銃)	50자루			/10병
	단조총가(短鳥銃家)	50건			
	연환낭(鉛丸囊)	237개			
	조총지갑(鳥銃紙甲)			52건	
	화약(火藥)	503근		8292근	
	연환(鉛丸)	116000개		1000000개	
	충죽(衝竹)	237개	106개	1288개	
	환낭(丸囊)		376개	1814개	8개
	이약통(耳藥筒)	187개	376개	1218개	
	남비개(南飛蓋)		270개		
	약통죽(藥筒竹)		270개		
	화승(火繩)		1080사리		1006사리
	철환(鐵丸)		30500개		
	슬발(撻鉞)			1자루	
화차	화차(火車)				/10승
	화차일승룡두고기(火車一乘龍頭鼓機)	1쌍			
	화차철장(火車鐵杖)				20개

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화차추철(火車錐鐵)				4개
	화차우비(火車雨備)				2장
	화차유격지(火車油隔紙)				8장
	화차피낭(火車皮囊)				2개
	화차약선유지낭(火車藥線油紙囊)				1개
	화차갑상(火車甲裳)				/96부
	화차체철(火車體鐵)				/1600병
	화차관륜목(火車貫輪木)				/1개
	화전찬혈철(火箭鑽穴鐵)				/20병
군물	조련패(操鍊牌)				1좌
	군령판(軍令板)				1좌
병서	병학지남(兵學指南)				70권

정조시대 군사용어

일러두기

본 자료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조시대의 군사와 관련된 용어를 풀이하였다. 200년 전의 군대라는 특수기관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온다. 대부분 고유 명사이니 선불리 의역할 수도 없었다. 본문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는 용어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용어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하였다.

자료집을 정리하면서 전통시대의 군사와 관련된 분야의 척박함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어를 풀이하면서 참고한 책은 『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같이 조선후기에 편찬한 법전과 1979년에 법제처에서 발행한 『고법전용어집』이다. 참고로 24반무예와 관련된 용어는 '장용영의 무예시행'에 따로 풀이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ㄱ

- 가왜(假倭) : 모의 전투를 위해 왜군의 역할을 맡은 군사. 명이 멸망한 뒤 조선으로 망명한 중국인의 후손을 위주로 편성된 훈련도감의 난후초가 담당.
- 가전별초(駕前別抄) : 조선후기 5군영의 하나인 어영청에 소속되어 임금이 거동할 때 수레 앞에서 호위하던 금군(禁軍). 가전군, 별초군, 별초라고도 했음. 1785년(정조 9년) 당시 52명으로 성내에서는 어가 양쪽에서 호위하고, 교외에서는 가후금군과 함께 앞뒤를 나누어 호위하였음.
- 가전취타수(駕前吹打手) : 임금의 행렬 앞에서 징, 나팔 등을 부는 병사.

- 가전형명(駕前形名) : 임금의 행차할 때에 수레 앞에 서는 시위병이 기치와 북으로 군대를 호령하는 신호법.
- 가후금군(駕後禁軍) : 어가 행렬의 제일 뒤에 위치하는 금군으로서 50인이 5열로 말을 타고 대를 이루어 행진하며 왕을 호위하였음.
- 감관(監官) : 군영에서 돈이나 곡식을 보관하여 지키며 출납을 맡아보는 관리. 장용영의 경우 군기를 담당하는 감관 2명과 회계를 담당하는 감관이 2명이 있었음.
- 겸사복(兼司僕) : 국왕의 신변보호와 왕궁 호위의 임무를 맡았던 금군. 조선 초기에는 정원이 50인으로 장번 복무를 하였으며 전원에게 정3품 중 9품의 체아직을 줌. 후기에는 우림위, 내금위와 함께 내삼청(內三廳)의 하나로써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났고 용호영에 속해 있었음.
- 겸파총(兼破摠) : 조선후기 중앙 군영에 두었던 종4품의 무관벼슬로 정식 명칭은 외방겸파총. 어영청은 1656년(효종 7)에, 금위영은 1684년(숙종 10)에, 장용영은 1793년(정조 17)에 설치함. 향군이 중앙에 번상하는 기간 이외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무재를 겸비한 수령을 겸파총으로 임명하여 각도에 내려가 있는 비당번 향군의 군사 훈련과 시재를 담당하며, 유사시에는 향군을 이끌고 상경하도록 하였음.
- 경군(京軍) : 서울에 근무하는 군사를 경군이라 하고, 지방군을 향군이라 하였음.
- 계라(啓螺)선전관 : 계라는 소리[螺]를 불어 군악이 시작되는 것으로, 왕의 수레 앞에서 계문하거나 임금의 거동이 있을 때 군악을 연주하는 일을 맡아보던 선전관.
- 고수(鼓手) : 북을 치는 임무를 담당하는 병사.
- 곤장수(昆杖手) : 곤장을 받드는 군사. 곤장은 범법자에게 형벌을 내릴 때 불기를 치는 막대기로써 의장에 사용할 때에도 그러한 명색으로 세웠음.

- 관성장(管城將) : 조선후기 경리청의 정3품 무관직. 정원은 1인으로 북한산성의 방어와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1714년(숙종 40)에 처음으로 별장(중 2품)이 파견되어 그 역할을 맡았으나, 영조시대부터 정3품으로 조정되고 직명도 관성장이라 불렀음.
- 관이수(貫耳水) : 군대에서 군율을 어긴 사형수의 두 귀를 화살 두 개로 꿰어 군대 안으로 조리를 돌리고 나서 얼굴에 회칠을 하고 목을 베어 매달아 효시하였는데, 관이란 여기에 쓰는 길이가 짧고 축이 뾰족한 화살을 말함. 관이수는 관이를 장대 끝에 나란히 세워서 받들고 가는 군졸로서 왕의 행렬을 위엄 있게 보이기 위한 의장으로 늘어 세웠음.
- 교련관(敎鍊官) : 총융청, 금위영, 장용영 등에 배치되어 군대를 교련하는 장교
- 교룡기(蛟龍旗) : 교룡기는 누른 바탕에 용틀임과 구름모양을 그리며, 기의 언저리에는 천으로 붉은 빛깔의 불꽃을 나타냈음. 국왕이 친림하여 사열할 때에는 5영을 명령하는데 쓰임.
- 교룡기봉지(交龍旗奉持) : 말을 타고서 교룡기를 들고 가는 금군인데, 어가의 뒤에서 4명이 사방에서 줄을 연결하여 기를 지지하였음.
- 국별장(局別將) : 훈련도감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으로 정원은 3명.
- 국출신(局出身) : 훈련도감의 포수로서 무과에 급제한 무관.
- 군관(軍官) :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 소속되어 도제조의 전령이나 사환을 담당한 군관직. 인원은 각각 5명으로 한산(閑散)이나 무과합격자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인사발령 때마다 3군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장기 근무자를 전직시켰음.
- 군뢰(軍牢) : 군영에서 죄인을 다루던 특수군인으로 뇌자(牢子)라고도 함. 죄인의 문초, 구금, 형법을 집행했으며 훈련도감의 뇌자는 왕의 행차 때 경호에 참가했음. 붉은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붉은 장대를 쥐고 있었으며

전립에는 주색으로 만든 '용(勇)'자 표지를 부착하였음.

- 군자감(軍資監) : 병기, 깃발, 군사적 의장물 등을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 근장군사(近仗軍士) : 임금이 자리에 나가거나 행차에 나설 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근위병.
- 금군(禁軍) : 임금의 경호와 대궐의 수비를 담당하던 군대. 금군으로는 내금위, 검사복, 우림위 그리고 정조대의 장용위 등이 있음.
- 금군별장(禁軍別將) : 조선후기 옹호영의 금군 번장을 통솔하던 직책. 정원은 1명으로 2품 이상의 무관으로 임명하였음. 국왕이 성내에 거동할 때 기와 북을 거느리며, 교외에 거동할 때 금군을 거느리고 5마대(五馬隊)로 줄을 지어 뒤를 호위하였음.
- 기(旗) : 초(哨) 아래의 군사 편제로 약 30명 가량의 군사가 소속된 부대.
- 기수(旗手) : 깃발을 들거나 깃발로 신호하는 일을 담당하던 군병. 순생수(巡生手)라고도 하였음.
- 기총(旗總) : 기를 지휘하는 장교.
- 기추(騎芻) :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풀로 엮은 인형을 맞추는 무예. 인형은 짚으로 만들되 높이 5자, 폭 1자 8치로 하여 사람보다 약간 뚱뚱하게 만듦.

L

- 나발수(喇叭手) : 나발을 부는 임무를 맡은 군사. '나발'로 읽음. 나발은 대열의 배치를 명령할 때 쓰임. 혼자서 불면 호령을 맡은 것이며, 길게 불면 군줄을 집합하는 신호이며, 북을 두드리면서 불면 대오를 벌려 서라는 신호였음.
- 나장(羅將) : 의금부에 소속된 종으로 죄인을 문초할 때 때 때리는 일과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았음.

- 난후금군(欄後禁軍) : 용호영에 설치되어 왕이 행차할 때 어가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군. 국왕이 성밖을 나갈 때 번장의 인솔 하에 표기(標旗) 밖 후상군(後廂軍)의 앞부분에 자리 잡고 행렬을 만드는 임무를 담당.
- 난후아병(欄後牙兵) : 임금의 수레를 뒤에서 호위하는 대장 직속의 군사.
- 난후초(欄後哨) :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부대 후미를 경비했던 특수부대. 인원은 100명으로 30명은 도제조의 수행원격인 등룡군, 4명은 중군(中軍)의 수행원, 9명은 집꾼인 복마군이었음.
- 난후초관(欄後哨官) : 임금의 행차의 후방을 일렬로 서서 호위하는 부대를 지휘하는 장관.
- 납포군(納布軍) : 군 복무 대신에 베를 바치는 군인
- 낭청(郎廳) : 각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당하관의 총칭. 예를 들어 훈련도감에는 12명의 낭청이 있었는데, 12명 가운데 9명은 무관, 3명은 문관을 선발했음.
- 내사(內使) : 정조 17년(1793) 서울에 설치했던 장용영 내영의 대장. 장용사
- 내삼청(內三廳) : 임금의 호위 및 궁궐수비를 담당하던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의 세 군영. 금군청 또는 금군삼청이라 하고, 영조·정조시대에는 용호영이라 했음.
- 내취(內吹) : 궁중에서 군악을 연주하는 군악대.
- 뇌자(牢子) : 군영 안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로 현대의 헌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군졸인데, 임금의 거동 시에는 월도를 들고 행진.
- 능기군(能技軍) : 장용영에 두었던 창검과 사격술에 두루 뛰어난 군사. 18기군 중에서 사격술이 우수한 자를 능기군으로 올려 주었음.
- 능마아청(能麼兒廳) : 훈령원과 함께 무관에게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 보이는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으로 인조 대에 설치되어 고종 19년에 폐지

되었음.

ㄷ

- 당보(塘報) : 강안(江岸)에 숨어 있는 것을 당(塘)이라 하고, 형체를 숨기는 것을 복(伏)이라 함. 행군을 할 때는 당보를 설치하고, 진을 치고 있을 때는 복병을 설치하였음. 따라서 복병과 당보군은 명칭은 다르나 실체는 하나임.
- 당보수(塘報手) : 멀리 망을 보아 경보를 알리기 위해 사용한 당보기를 담당했던 군사. 복장은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당보기를 가졌음.
- 당상군관(堂上軍官) : 1668년(현종 9) 금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용호영에 설치한 군관직. 금군으로서 무과에 합격하여 당상관에 오른 자를 위해 30자리를 만들었음. 1688년(숙종 14)에 폐지했다가 1754년(영조 30) 정원을 15명으로 하여 금군이 당상군관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유엽전·편전·기추로 시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했으며, 매월 2번씩 궁술과 강서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상벌을 줌.
- 대(隊) : 약 10명 가량의 군사가 소속된 부대를 나타내는 군사 단위. 대를 지휘하는 자를 대장(隊長)이라 함. 조선후기의 군사 편제는 3대(隊)를 1기(旗), 3기를 1초(哨), 5초를 1사(司), 5사를 1영(營)라 함.
- 대기(大旗) : 주장(主將)이 사용하는 정기로써 방위에 따라 동쪽은 청룡기·서쪽은 백호기·남쪽은 주작기·중앙은 등사기·북쪽은 현무기의 대오방기(大五方旗)를 말함. 문 바깥에 세워 소속한 모든 부대를 통솔하여 지휘하는데 쓰임. 기 중앙에 용·범·봉황·뱀·거북을 그리되 깃발 중앙의 바탕색은 방위의 색깔을 그리며 기폭의 가장자리는 중앙의 바탕색을 상생(相生)하는 색깔을 씬.
- 대기수(大旗手) : 대기치 등을 드는 병사
- 대기수차지장교(大旗手次知將校) : 큰 깃발을 드는 기수를 지휘, 통제하는

장교.

- 대장(大將) : 궁궐이나 서울을 지키는 각 영의 장수. 다른 말로 장신(將臣).
- 대장(隊長) : 대를 지휘하는 하급장교. 무관 정9품의 잡직으로 대정(隊正)이라고도 함.
- 대장기(大將旗) : 대장이 휘하 장수를 지휘할 때 쓰는 기. 왼쪽은 푸른 바탕, 가운데는 누런 바탕에 용과 구름을 그리고 화염(火焰, 천으로 만든 불꽃모양의 꼬리)이 달려 있음.
- 더그레 : 각 영문의 군사, 마상재군, 사간원의 갈도, 의금부의 나장 등이 입는 세 자락의 옷. 군사와 마상재군의 옷은 소매가 없고, 갈도와 나장의 것은 짧은 소매가 있으며, 소속에 따라 여러 가지 빛깔이 있음. 호의(號衣)의 우리말 표현임.
- 도총부(都摠付) : 조선초기의 중앙군영인 오위도총부의 줄임말.
- 동달이 : 좁은 소매로 된 군복. 다른 말로 협수(挾袖)라고 함.
- 둔전(屯田) :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기 위해 경작하는 논밭. 수원 화성에는 서둔, 대유둔 같은 둔전을 장용영군이 경작했음.
- 등록(騰錄) :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적은 기록.
- 등룡군(燈籠軍) : 야간 신호를 위한 등룡불을 담당하는 군사.

□

- 마의(馬醫) : 군영에 속해 군마의 치료를 담당하였음. 선발 방법은 한산(閑散)으로 있는 표하군 가운데서 의학에 밝은 사람을 임명.
- 몰기(沒技) : 활, 조총 같은 사격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말함.
-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 무관과 선전관을 겸직한 사람. 줄여서 무겸(武兼).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정조14년(1790)에 이덕무, 백동수, 박제가 등

이 편찬한 종합무예서로 24가지 무예가 그림과 설명으로 정리되어 있음.

- 무예별감(武藝別監) : 선전관청 소속으로 왕의 호위를 담당하였던 정예의 무사.
- 무예청(武藝廳) :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왕의 호위를 맡았던 정예부대. 무예별감이라고도 함. 1630년(인조 8) 마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별기군(別技軍)중에서 30명을 선발하여 만들어 훈련도감에 두었다가 1781년(정조 5)에는 정원이 102명으로 늘어 좌열과 우열 두 번으로 나누고 각 번에 1총(總) 5영(領:50인)을 두었음. 한 번마다 통장을 두어 1총 5영(領 :1영 10인)을 통솔함. 붉은 철릭과 누런 초립을 쓰고 환도를 차며, 초립 위에 호랑이 수염을 달고 궁궐 파수를 섰음.
- 무예청(武藝廳)총수(銃手) : 조총을 메고서 좌·우 40명씩으로 나누어 왕을 호위하였음.
- 문기수(門旗手) : 각 군영의 문 밖에 세워 문을 표시하고 출입을 단속할 때 쓰던 문기를 담당하는 군졸.

ㅂ

- 바라수 : 바라를 부는 임무를 맡은 군사. 바라는 '고동'인데, 소라 껍데기로 만들었음. 한 번 불면 지휘관만 출동하며, 세 번 길게 불면 병사들이 몸을 일으키며, 다시 한 번 불면 마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무기를 잡고 대기하라는 신호였음.
- 발방(發放) :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구호를 외치는 일.
- 번(番) : 번의 뜻은 '차례로 임무를 받드는 일'인데, 지방에 거주하는 군사, 즉 향군이 서울에 올라와 차례로 근무를 서는 것. 입번(入番)을 '번들'이라 하며, 출번(出番)은 번을 마치고 나가는 것을 말함.
- 번상(番上) : 군영에 소속된 지방의 장정이 차례로 서울에 올라와 군역을 치르는 일. 상번(上番)이라고도 함.

- 별군관(別軍官) : 어영청, 충융청, 장용위 같은 군영에 딸린 군관. 1793(정조 17) 수원에 장용외영을 설치하면서 무예를 권장하고 무과 출신자의 벼슬길을 열어 주기 위해 별효사의 명칭을 고쳐서 만든 군관직. 원래 수원에 살던 사람으로서 무과에 급제한 무사 가운데 사대부 출신으로 선전관 추천을 받은 사람과 중인, 서출로 부장이나 수문장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장용위 출신을 임명.
- 별군직(別軍職) : 병자호란 때 심양에 볼모로 간 세자의 호위를 담당한 공로를 보답하기 위해 창설한 군관벼슬. 임금의 측근에서 호위하며 죄인을 적발하는 일을 담당.
- 별기대(別騎隊) :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던 특별 기마부대. 정조 2년(1778)부터 대조회가 있을 때 별기대 28명을 기구와 복장을 갖추고 문을 지키게 했음. 별대마병이라고도 함.
- 별기위(別騎衛) : 금위영에 소속되어 있던 기병 장교. 1728년(영조 4) 무신난 때 출정하여 개선한 군병 가운데 무과에 합격한 90명이 소속할 곳이 없자 이듬해인 1729년에 급료를 받을 수 있는 '별기위' 33자리를 특별히 만들어 소속시켰음. 1733년(영조 9)부터 별기위 1명이 경군 1명을 거느리고 날이 셀 때까지 궁궐 밖을 순찰하였음.
- 별무사(別武士) : 훈련도감의 마병과 금위영 및 어영청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무예를 시험하여 선발한 장교.
- 별부료(別付料) : 장용영·충융청·용호영에 딸린 무관. 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뽑아 온 군관인데, 경상비가 아닌 다른 비목에서 급료를 주게 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음. 원말은 별부료군관.
- 별수가장관(別隨駕將官) : 초관 이상의 무관을 장관이라 하는데 별수가장관은 임금의 어가를 호위하는 장관을 말함.
- 별운검(別雲劍) : 나라에 큰 잔치나 회합이 있어 임금이 전좌(殿座)에 나

앞거나 거동할 때에 운검(雲劔)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했던 임시직. 의정부의 우참찬·육조의 장관 및 이조참판을 지낸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제출하여 왕의 결재를 받았음. 정원이 4명이며 예비로 2명을 더 두어 사고가 생겼을 때 보충하였음. 운검은 칼집을 어피로 싸고 주홍색으로 칠했으며 백은으로 장식하였음.

- 별장(別將) : 장용외영에 소속한 친군위의 좌장, 우장을 통솔하던 직책.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호위청, 용호영, 수어청 등에 두었던 종2품 또는 정3품의 무관 벼슬.
- 별초(別抄) : 임금의 호위나 변경의 방어, 야간순찰 따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금군 이외에 특별히 선발한 병사.
- 별파진(別破陣) : 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특수한 병종으로 본래는 별파군직이라 했음. 각 군영에 소속되어 주로 화포를 다루었고 화기의 저장, 출고와 화약고를 지키는 임무를 맡음. 왕의 행차 시에는 화기를 지참하고 어가를 호위함.
- 병방(兵房) : 장용영 대장을 부르는 말. 장용영 창설 직후 병방과 호방(戶房)을 두었는데 병방은 군사지휘를 맡고 호방은 재정을 맡았음.
- 병부(兵符) : 군사동원을 명하는 신표. 양부와 음부를 같이 만들어 하나는 왕이 소장하고, 다른 양부는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음부는 주진장과 만호 등에게 발송하였는데 군사를 동원할 때 이것을 보내어 두 개를 맞추어 보고 맞으면 군사를 동원을 할 수 있었음.
- 병학지남(兵學指南) : 임진왜란 때 입수한 『기효신서』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병법서적.
- 병학통(兵學通) : 국초의 『병학지남』 등을 정리하여 1785년에 간행된 병법서로 『무예도보통지』와 짝을 이룸.
- 보검당상(寶劔堂上) : 국왕이 전정의 좌석에 나 앉거나 거동할 때 국왕 옆

에서 보검을 받들고 서는 당상관임. 인원은 4명이며 도총부에서 명단을 제출하여 인준을 받음.

- 북마군(卜馬軍) : 군수품을 싣는 말을 부리는 군졸. 장용영 외영에는 보군 13초의 매 초(哨)마다 7필의 말이 배당되어 있었음.
- 부료무사(付料武士) : 급료를 받는 무사.
- 부사과(副司果) : 조선시대 오위도총부에 속해있던 종6품의 무관직. 조선 전기에는 실직이었으나, 임란 이후 녹봉만을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체아직으로 바뀜.
- 부장(部將) : 오위의 종6품 무관벼슬.
- 부호군(扶護軍) : 조선시대 오위에 속해 있던 종4품의 무관벼슬.
- 비장(裨將) : 조선시대 감사나 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막료.

人

- 사(司) : 조선후기 군사 편제 단위의 하나로 1사 밑에는 5초가 소속되어 있음. 즉 5초 615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정3품 당상장관의 무관벼슬.
- 사후군(伺候軍) : 전령을 전달하거나 정찰 또는 경계의 임무를 맡은 군사.
- 삼영(三營) : 조선 후기 서울에 주둔하였던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말함. 다른 말로 삼군(三軍).
- 삼혈총(三穴銃) : 기병이 휴대하는 화기의 하나로 총구가 세 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며 한 손으로 발사할 수 있음. 마상재의 제1자세가 삼혈총을 쏘는 자세임.
- 서총대(瑞蔥臺) : 창덕궁 안에 지은 대(臺). 왕이 친림하여 무관의 활쏘기와 창검무예를 점검하던 장소.
- 선기대(善騎隊) : 정조 11년(1787)부터 좌우 2초 (총102명)로 편성되어 임금이 탄 쌍교 뒤에 위치하여 호위를 담당한 장용영 내영의 마병. 좌우 2초로 나뉘어 5열로 말을 타고 2대를 이루어 좌초가 앞서고, 우초가 뒤에서

따랐음. 좌초는 말 타는 재주, 우초는 사격술과 창검무예에 뛰어난 자를 선발하였음.

- 선기별장(善騎別將) : 선기대 각 초(약 120명)의 장령인 선기장을 통할하는 직책으로 인원은 1명이며 보통 포도대장이나 훈련도감의 중군 또는 금군 별장을 지낸 사람을 임명하였음.
- 선기장(善騎將) : 장용영 내영의 마병인 선기대 좌·우초의 장령으로 일찍이 변경이나 중앙과 지방의 장수를 지낸 사람을 임명하였음.
- 선무군관(選武軍官) : 조선 후기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경제력이 좋은 양인(良人) 피역자 가운데 무예시험을 거쳐 선발한 군관.
- 선전관(宣傳官) : 선전관청에 소속된 벼슬로 임금의 측근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서반 승지로 불렸음. 정 3품부터 종 9품까지 있음. 책임자는 행수선전관으로 정3품관이 맡았음. 선전관청은 형명·계라·시위·전령·부신의 출납을 담당.
- 성정군(城丁軍) : 유사시에 수원 화성을 수비하는 예비병력. 화성을 방위하는 병력은 직접 성에서 방위 근무를 서는 정병군과 유사시에 소집되는 예비 병력인 성정군을 두었음.
- 성타(城垛) : 타(垛)란 화살받이란 뜻으로 성 위의 병사들이 전투를 할 때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방패모양으로 세워 놓은 구조물.
- 성조(城操) : 성에서 하는 군사훈련.
- 세악수(細樂手) : 취타가 아닌 장구, 북, 피리 등을 연주하는 군사.
- 속오군(束伍軍) : 선조 27년(1594)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군역을 지지 않은 양민과 천민 중에서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 군대로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고, 조련할 때와 나라에 큰일이거나 사변이 있을 때에만 소집되었음.
- 속오법(束五法) : 조선의 군사제도는 오위제도에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부(部)-사(司)-초(哨)-기(旗)-대(隊)-오(伍)로 연결되는 편제로 개편되었음. 속오법은 10명 내외의 대, 3대를 1기, 3기를 1초, 5초를 1사, 5사를 1영으로 하는 군사 편제법.

- 솔발(鐸鉢) : 놋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대오를 철수하거나 중앙부대로 돌아오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데 쓰였음.
- 수가금군(遂駕禁軍) : 임금의 수레를 수행하는 경호부대.
- 수궁대장(守宮大將) : 국왕이 성문 밖으로 거동할 때 대궐을 지키던 임시 관직.
- 수기(手旗) : 초관 이상의 지휘관이 행군할 때 허리에 꽂아 휴대하여 군사를 지휘할 때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1자 3치 내외의 작은 깃발.
- 수문장(守門將) : 궁궐문의 경비를 맡아보던 수문장청에 배속된 4품 이하의 무관.
- 수어사(守禦使) : 수어청의 으뜸 벼슬. 정2품직으로 광주유수를 겸임하며 남한산성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졌다.
- 숙마첩(熟馬帖) : 관원에게 임금이 내리는 '숙마일필하사(熟馬一匹下賜)'라고 적은 첩지(帖紙). 이것을 받은 사람은 여행할 때, 역에 보이면 숙마 한 필을 얻어 탈 수 있게 됨. 숙마란 길이 잘 들어 타고 다니기에 좋은 말. 이보다 낮은 것으로 반숙마첩과 아마첩이 있음.
- 숙위소(宿衛所) : 정조시대에 왕을 호위하도록 설치한 금군 조직.
- 순령수(巡令手) : 대장의 명령전달이나 호위를 맡거나 또는 순시기나 영기 같은 깃발을 담당하는 병사.
- 순령수차지장교(巡令手次知將校) : 깃발 등을 드는 순령수를 지휘, 통제하는 장교.
- 순뢰(巡牢) : 순령수와 퇴자의 준말. 기수 및 헌병.

- 순장(巡將) : 정3품의 품계로서 야간 순찰을 담당.
- 신작대((新作隊) : 갓 입영한 군사들을 10명 단위의 대(隊)로 조직하여 무예와 진법을 익히도록 편제되었던 부대.
- 신전(信箭) : 임금이 교외에 거동할 때 선전관을 시켜서 각 영에 군령을 전달하는데 쓰던 화살로 수효는 5개. 살촉에 '영(令)'자를 새기고, 깃 아래에 '신(信)'자를 쓴 삼각형의 5색 비단 조각의 표지를 하나씩 달았음.
-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 선전관청에 소속된 무관직으로 왕명을 전하는 일을 맡아보았던 선전관. 정원은 대체로 25인이었는데, 이 가운데 4인 또는 8인이 교대로 임무를 맡았음.

○

- 아병(牙兵) : 아(牙)는 대장기를 뜻하는 말인데, 아병은 대장 휘하에 딸린 군사로서 대장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음. 임무나 위치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름.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총을 땀.
- 아장(亞將) : 포도대장 · 용호별장 · 훈련도감 중군 · 금위영 중군 · 병조참판 등을 두루 일컫는 말.
- 업무(業武) : '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함. 업무는 원래 양반 신분이었으나 점차 서얼의 자식들도 이를 칭하는 것을 허용함.
- 연거(演炬) : 야간에 실시한 횃불 연습. 선전관의 호령에 따라 사면에서 일제히 응하여 횃불을 올리고 내리며 점검하는 과정을 훈련.
- 연부(蓮府) : 장용영을 달리 일컫는 말로 한성 중부 연화방에 장용영 본영의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붙게 된 이름.
- 야조(夜操) : 밤에 실시하는 군사훈련.
- 액외(額外) 장용위 : 관제(官制)에 정해진 정원 이외에 선발한 장용위.

- 오군영(五軍營) : 조선후기 서울에 주둔하였던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충융청·수어청을 말함.
- 오마작대(五馬作隊) : 말을 탄 선기대가 5명씩을 대(隊)를 이루어 호위하면서 행진하는 것을 말함.
- 오위장(五衛將) : 조선시대 중앙 군제인 오위도총부에 속했던 종2품의 무관으로 위장이라고도 하였음. 1457년(세조 3) 5위마다 한 사람씩 설치하였으며, 각 위를 통솔하는 최고지휘관이었으나 조선후기에는 관직명만 남고 품계도 정3품으로 격하되었음. 주요임무는 오위도총부에 소속되어 남·서·동·북 4개 위 장소에 한사람씩 3일마다 교대로 입직하여 기병 6명을 인솔하여 야간순찰을 담당했음.
- 의사(外使) : 1793년 수원 화성에 건설한 장용영 외영의 대장을 말함.
- 우열친군위(右列親軍衛) : 화성의 장용영 외영에 소속된 정예 마병부대.
- 원양진(駕驀陣) : 금실이 좋은 원양처럼 10명의 군사가 양쪽에 5명씩 열을 지어 서로 협력하여 적과 대적하는 최소 단위의 진법.
- 유도대장(留都大將) : 임금의 거동 때에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성을 지키던 대장.
- 유병(遊兵) : 유격병. 화성의 신평위가 유병이었음.
- 유영(留營) : 국왕이 교외로 거동할 때 도성 안에 남아서 서울의 수비를 맡은 군영으로 낮에는 대궐의 각 문을 파수하고 밤에는 궁궐의 담을 돌며 순찰하였음.
- 유진(留陣) : 국왕이 교외로 거동할 때 홍화문 밖에서 도성의 외부를 수비하는 것을 말함.
- 이진총방(肆陣總方) : 용호영의 기병을 훈련하기 위한 진법서. 1782년과 1785년에 두 번 간행.
- 인기(認旗) : 주장(主將)이 휘하 장졸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명령을 내릴

때 쓰던 기. 바탕과 가장자리는 소속 군영이나 장수의 지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함. 기면의 너비는 5자 평방, 깃대의 길이는 18자이며 꼬리에는 오색의 띠 25개를 다는 데 길이는 2자 5치이며 띠의 머리에는 붉은 실과 치미를 달았음.

- 인기수(認旗手) : 인기를 담당했던 군사.
- 입직포수(入直砲手) : 궁궐에 숙직하는 총수.

ㅈ

- 자바라 : 배가 볼록하고 둥글넓적한 모양의 낫쇠로 만든 군영에서 나발·소라·대각 등을 불 때 사용하던 악기의 하나.
- 작대군(作隊軍) : 기(旗)의 아래인 대(隊) 단위로 편성된 군대. 대는 대략 10명으로 현재의 분대와 흡사함.
- 장관(將官) : 초관 이상의 무관을 총칭. 종3품 이하의 무관을 당하장관, 정3품 이상의 무관을 당상장관이라 부름.
- 장교(將校) : 각 군영에 속하는 권무관, 별군관, 기폐관, 별무사, 교련관 등과 지방관사의 군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관.
- 장용영(壯勇營) : 1788년(정조 12) 왕권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정예의 친위 부대. 1785년(정조 9) 국왕의 호위를 위해 훈련도감의 무예별감을 차출하여 만든 장용위가 시초. 그 뒤 1793년 1월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의 호위를 위해 수원을 화성으로 개칭하고 외영을 설치한 다음 수원 부사를 유수(留守)로 승격시켜 장용 외사의 직을 겸하도록 하였는데 왕의 호위를 담당하던 서울의 본영은 내영이라 함. 장용영 내영의 군사편제는 본래 3사 15초였으나 1795년(정조 19)에 5사 25초로 늘었음.
- 장용영 내사(壯勇營內使) : 장용영 내영의 대장.
- 장용영 외사(壯勇營外使) : 정조 17년(1793) 화성에 설치했던 장용영 외영의 대장. 유수와 행궁정리부의 직을 겸임하였음.

- 장용영 제조(壯勇營提調) : 군량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던 문관으로 호조나 선혜청의 당상관 가운데 이조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왕의 낙점을 받아 임명함.
- 장용영 좌사(左司) : 대부분 한강 이남의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 읍의 8개 초로 구성되었음. 1795년 원행에 참가한 장용영의 좌사에 속한 3초의 부대원 수는 각각 109명씩으로 행렬의 맨 뒤에서 수행하였
- 장초군(壯抄軍) : 건장한 장정을 선발하여 만든 군대
- 전배군(前排軍) : 임금이 거동할 때 수레 앞에 늘어서는 군졸.
- 전어군사(傳語軍士) : 군중에서 장수의 명령을 전하는 군사.
- 절목(節目) : 여기서는 시험 보는 내용, 시상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 절충장군(折衝將軍) : 서반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름. 무반관원으로서 절충장군에서 승진하여 종2품 이상의 품계를 받게 되면 동반(문관)의 품계를 따르도록 함.
- 정(正) : 정3품의 벼슬로 훈련원의 총책임자.
- 제색표하군(諸色標下軍) : 각 군영에 소속되어 있는 표하군. '제색'이란 말은 포수, 사수, 살수 같은 여러 부류의 병종을 뜻함.
- 제조(提調) : 해당 관아의 일을 책임지는 종1품 혹은 종2품의 벼슬인데 군영에도 제조와 도제조를 두었음.
- 직방(直房) : 조신들이 조회(朝會)의 시각을 기다리도록 궁궐 문 옆에 세운 건물. 직방초군은 이곳에 근무하는 초를 말함. 조방(朝房)이라고도 함.
- 조(粗) : 조란 '거칠다, 성글다'의 뜻인데 상하(上下)의 등급임. 『병학지남』 강독 시험에서 통(通), 약(略), 조(粗) 세 등급이 있었는데 통은 상상, 약은 상중, 조는 상하의 등급.
- 조령(操令) : 군사훈련을 할 때 쓰이는 군령.

- 조호(操號) : 군사훈련을 할 때 쓰이는 신호.
- 종사관(從事官) : 각 군영과 포도청에 딸린 종6품의 벼슬. 통신사를 따라가는 임시 벼슬로서 종사관이 있음.
- 좌열 친군위 : 장용외영 소속의 정예 마병부대.
- 주사대장(舟師大將) : 임금이 거둥할 때 한강 주교 가설을 맡은 임시직.
- 주장(朱杖) : 붉은 칠을 하고 끝에 방울을 달아서 군중을 경계하는 데 쓰였던 긴 막대. 죄인을 매질하거나 유사시 무기로도 쓰임.
- 중군(中軍) : 조선후기 각 군영에 두었던 종2품 무관벼슬. 대장 아래의 계급이나 실제로는 군지휘를 담당했음. 대장(종2품)이나 사(使, 종2품)와 같은 품계로 대장이 행정에 관한 책임을 맡았던 반면 중군은 군사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였음. 각 군영과 수원부의 총리영, 개성부의 관리영, 강화부의 진무영에 각각 1인씩을 두었음.
- 지구관(知穀官) :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장용영 같은 군영에 소속된 장교로서 무예 교련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무관 벼슬.
- 직부인(直赴人) : 무과는 초시·회시·전시의 삼 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곧 바로 회시나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
- 징수(鉦手) : 징을 치는 일을 담당한 군사. 징은 모든 명령을 통제하고 전 부대의 진퇴를 금지시키는 신호를 보낼 때 사용되었음.

天

- 차지교련관(次知敎鍊官) : 차지는 '담당'이라는 뜻이며 교련관은 조선후기 각 군영에서 군사 훈련을 담당하였던 군관벼슬. 각 군영 대장이 금군, 무과출신, 한산, 향오(行伍, 병졸) 가운데 유엽진, 병학지남, 진법 세 가지를 시험하여 수석합격자를 선발하고, 20개월을 복무하면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음.

- 창검군(槍劍軍) : 창검을 전문으로 쓰는 군사. 용검군(用劍軍)이라고도 함.
- 척후복병(斥候伏兵) : 국왕이 종묘·사직·중국사절의 영접을 위해 성 안 행차나 교외 거동으로 밖에서 밤을 지내게 될 때 국왕의 신변 호위를 위해 정찰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병사.
- 천총(千總) : 조선후기 각 군영에 두었던 정3품 무관벼슬로 중앙과 지방의 장수를 거친 자로 임명하였고 임기는 1년. 임진왜란 이후 군사편제가 속오법에 따라 영·부·사·초·기·대·오로 조직되었는데 천총은 부의 지휘관이었음.
- 초(哨) : 약 120명의 군사가 소속된 부대단위.
- 초관(哨官) : 조선후기 각 군영에 두었던 종9품부터 종4품까지의 무관벼슬. 임진왜란 이후 군사편제인 영·부·사·초 가운데 초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자 무인으로서 승진의 발판이 되는 벼슬.
- 총리영(總理營) : 1802년(순조2)에 장용영을 혁파한뒤 화성에 설치한 군영.
- 총용사(摠戎使) : 종2품의 무관으로 북한산성을 수호를 책임지던 총용청의 대장.
- 추패군(椎牌軍) : 철퇴와 방패를 가지고 있는 군사.
- 춘당대(春塘臺) : 창경궁 안에 있는 대(臺). 창덕궁 안에 있는 서충대와 함께 조선시대에 왕이 친림하여 문무과 시험을 보거나 금군이 무예를 연마하던 장소.
- 출신(出身) : 무과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
- 취고수(吹鼓手) : 나팔수와 북을 치는 병사.
- 취재(取才) :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 과거 이외에 인재를 뽑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 채용시험.
- 치중군(輜重軍) : 물품이나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군사.
-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 무기나 군량을 운반하는 짐말과 짐꾼.
- 친군위(親軍衛) : 장용영 외영의 친위 기마병으로 좌열과 우열로 나누어

각각 1백 명씩 소속시켜 외영에 주둔 근무하면서 행궁을 호위하고 날마다 기예를 익혔음. 봄·가을 농한기에 좌열과 우열로 나누어 번을 정하였음. 2월에는 좌열이 3개 번으로 나누어 매 번이 10일간씩 34명이 교대하여 근무하고, 10월에는 우열이 근무하였음.

- 칠두군(七斗軍) : 쌀 7말의 급료를 받는 군병. 모든 군병의 급료는 날짜 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보군의 경우 처음에는 쌀 4말을 주고(4두군), 근무일수와 시험을 치러 급료를 올려주되 9말(9두군)에서 그침. 급료와 승급은 병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ㄷ

- 타장(塔將) : '타(塔)'는 화살받이란 뜻임. 화성 내 타를 책임지는 군관.
- 통장(統長) :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예청의 좌번과 우번을 통솔하던 장관. 정조5년(1781) 무예청을 좌·우번으로 나누어 각각 통장 1명씩을 두고 조련이 있을 때마다 행수별감에게 임시로 통솔하게 하다가 정조9년(1785) 전 임직으로 바꾸었음. 월급은 쌀 1섬과 돈 3냥씩을 궁중에서 하사하였음.

ㄹ

- 파총(把總) : 군영의 종4품 무관으로서 속오법의 편제에 따라 1사(5초 615명)를 지휘하였음. 장용영의 파총은 종3품 이상의 무관들이 맡았음.
- 패두(牌頭) : 번(番: 궁궐에 들어 가 근무를 서는 일)을 설 때 번을 같이 서는 5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 장용위 소속의 군사 50명을 인솔함.
- 표하군(標下軍) : 일명 수하군이라고 하는 군병으로 대장에게 딸린 휘하 병사.

ㄴ

- 한량(閑良) : 기마병으로서 일정기간 서울에 살면서 시위(侍衛)하는 계층이었음. 초기에는 지방의 토착유력층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가, 후기에는 신

분상의 지위가 낮아졌음.

- 향군(鄕軍) : 서울에 주둔하는 경군 이외에 지방에 주둔하는 군사.
- 향색배기수(餉色陪旗手) : 군사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책임자를 따르는 기수.
- 협련군(挾輦軍) :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임금의 수레[輦]를 호위하던 군사. 1777년(정조 1)부터 성 안을 거동할 때는 200명, 성 밖을 거동할 때는 정군 300 400명을 쓰고 예비군 200명으로 교대하도록 했음. 해마다 조총 사격술과 창검 무예를 시험하여 궁중에서 무명과 배를 상으로 내렸으며, 30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군료 9말을 지급하였음.
- 협마군(挾馬軍) : 임금이 거동할 때 임금의 수레 좌우에서 따르는 말을 담당했던 군사.
- 호연대(扈輦隊) : 임금의 가마를 호위하는 부대.
- 호위청(扈衛廳) : 인조 1년(1623)에 설치해 궁중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군영.
- 호적수(號笛手) : 호적을 부는 임무를 맡은 군사. 호적은 일곱 구멍으로 된 피리인데 군대 안에서 신호로 사용함. 각 군영의 장관과 장교 등의 지휘관을 모아 군무를 지시할 때 사용했으며 각급 부대의 지휘관이 전원 집합할 때까지 불었음.
- 화병(火兵) : 군중에서 밥 짓는 일을 전담하는 병사. 대(隊)에 1명씩 둠.
- 화전수(火箭手) : 화전은 폭발물을 장치한 화살 또는 불을 붙여 단 화살이며, 화전수는 화전을 쏘는 군사임.
- 회자수(劓子手) : 군영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천역. 왕이 행차할 때 경호하는 복장은 귀건을 쓰고 홍색 무명으로 만든 귀의를 입고 협도를 들고 대장의 말머리에 마주하고 섰음.
- 훈련대장(訓練大將) : 훈련도감의 최고의 지휘관으로 종2품.

- 훈련도감(訓練都監) :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창설한 군영으로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군을 전문으로 양성하였음. 수도 한성의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5천 명 전원이 급료병으로 구성된 군영으로 줄여서 '훈국(訓局)'이라 함.

깃 발

- 순시기(巡視旗) : 군중을 순시할 때 사용하던 기. 청색 바탕의 깃발에는 '巡視'라는 두 글자가 붉게 새겨져 있고 깃대의 길이는 5자. 임금이 거동할 때의 어전 순시기에는 붉은 바탕에 푸른 글자를 새겼으며, 모두 7쌍.
- 영자기(令字旗) :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기. 푸른 바탕의 사각 깃발에 붉은색의 '令' 자를 새겨 넣음. 깃발의 길이는 5자, 깃대의 끝에 창날을 달고, 그 아래 방울을 달아 기를 흔들면 소리가 나므로 '쨍렁기'라고도 함.
- 인기(認旗) : 주장이 휘하를 호령할 때 쓰는 기. 각 영의 장수가 빛깔을 달리하는데 훈련대장은 황색 바탕에 홍색 가장자리, 금위대장은 남색 바탕에 흑색 가장자리, 어영대장은 백색 바탕에 황색 가장자리, 수어사는 홍색 바탕에 남색 가장자리, 총융사는 흑색 바탕에 백색 가장자리로 하고, 드림은 모두 황색 빛깔로 함.
- 영장인기(營將認旗) : 깃발의 바탕 빛깔은 해당되는 군영의 빛깔을 따랐으며, 언저리의 빛깔은 기의 빛깔을 드러나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드림(帶)은 누른 빛깔로 하였으며 화염각이 있음.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5자이며, 깃대의 길이는 18자.
- 별장인기(別將認旗) : 바탕의 빛깔은 본 방위를 따르고, 언저리는 해당 군영에 따랐다. 드림(帶)은 누른 빛깔이며, 화염각이 있다.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4자이며, 깃대의 길이는 17자.
- 파총인기(把總認旗) : 바탕은 해당 방위의 색을 따르며, 띠는 영장(營將)의

빛깔을 따름. 화염각이 있음. 기는 사방이 3자이며, 깃대의 높이는 17자.

- 초관인기(哨官認旗) : 깃발의 바탕 빛깔은 해당되는 방위의 빛깔을 따르고, 언저리의 빛깔은 파충의 빛깔을 따름. 화염각이 있고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2자이며, 깃대의 길이는 16자.
- 무예청인기(武藝廳認旗) : 깃발의 바탕과 드림은 황색.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3.5자, 깃대의 길이는 15자. 국왕이 교외로 거동할 때에 임금이 탄 수레 뒤에서 무예청을 호령하는 데 사용.
- 홍신기 : 남쪽을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이 적색이며 언저리가 청색인 깃발에는 관원수(關元帥)가 그려져 있음.
- 남신기 : 동쪽을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이 청색이며 언저리가 흑색인데 깃발에는 온원수(溫元帥)가 그려져 있음.
- 황신기 : 중앙을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은 황색이고 언저리가 홍색(紅色)인 깃발에는 옥령관(玉零官)이 그려져 있음.
- 백신기 : 서쪽을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은 백색이고 언저리가 황색인 깃발에는 마원수(馬元帥)가 그려져 있음.
- 흑신기 : 북쪽을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은 흑색이고 언저리가 백색인 깃발에 조현단(趙玄壇)이 그려져 있음.

깃발의 크기는 사방 5자이고 깃대의 길이는 15자. 가리킴[指], 꼬덕임[點], 세움[立], 눕힘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군영이 이에 호응하였음.

- 당보기(塘報旗) : 멀리 망을 보아 정보를 내릴 때에 사용. 적군이 느리게 들어오면 꼬덕이고, 급히 들어오면 돌리되 적군의 수가 많으면 몸עד 두르고 돌리며, 사고가 없으면 세 번 돌렸다가 세 번 감음. 밤에는 깃대에 등불을 달았음. 바탕은 황색이며 깃발의 크기는 사방 1자이고 깃대의 길이는 9자.
- 청도기(淸道旗) : 대기치의 하나. 행군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치우는 데 쓰

였으며 수효는 2개. 바탕이 청색으로 된 사각기이고 적색의 화염각이 달려 있으며 '청도(淸道)'라는 글자가 있음. 깃대의 길이는 8자이고, 영두와 주락이 있으며, 깃대 끝에 창날이 달려 있음.

- 백호기(白虎旗) :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쪽 문에 세워서 우군, 혹은 좌영, 우위를 지휘할 때 쓰임. 흰 사각 바탕에 적색 날개를 달고 나는 백호와 청·적·황·백 4채의 운기가 그려져 있으며, 화염각은 노란색. 15자 크기의 깃대에 영두, 주락, 장목이 달려 있음.
- 금고기(金鼓旗) : 군대에서 취타수의 좌작(坐作), 진퇴(進退)를 지휘하던 의장용 사각기. 노란 구름무늬를 새긴 비단의 가장자리와 화염은 붉은색, 가운데 검은 글씨로 '金鼓'라는 글자를 새겨 붙였음.
- 청룡기(靑龍旗) :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로 진영의 왼편 문에 세워서 좌군·좌영 혹은 좌위를 지휘하는데 쓰임. 푸른 바탕의 사각기로, 청룡과 청·적·황·백 4가지 색깔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화염각이 달려 있음. 깃대의 길이 15자.
- 주작기(朱雀旗) : 대오방기의 하나. 진영의 전문에 세워 전군(前軍), 전영(前營)을 지휘에 쓰임. 청·적·황·백 4채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과 기각(棄却)이 있음. 길이가 15자.
- 등사기(騰蛇旗) : 바탕이 황색이며 언저리가 적색인 깃발에는 날아오르는 뱀이 그려져 있음.
- 현무기(玄武旗) : 대오방기의 하나. 진영의 후문에 세워 후군, 후영, 후위를 지휘하는 데 쓰임. 검은 바탕의 사각기이며 거북을 뱀이 감고 있는 모양과 청·적·황·백 4채의 운기 및 화염각이 있음.
- 백택기(白澤旗) : 의장기의 하나로,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사용. 백택은 만물의 모든 뜻을 안다고 하는 상서로운 짐승. 흰색 바탕에 백택과 청·적·황·백 4채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이 달려 있음.

- 삼각기(三角旗) : 의장기의 하나로, 백색 바탕의 사각 깃발에 세뿔(三角)이 달린 말의 문양과 청·적·황·백 네 가지 색깔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음.
- 각단기(角端旗) : 백색 바탕의 깃발에 각단(角端)과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청·적·황·백색으로 채색.
- 벽봉기(碧鳳旗) : 의장기의 하나로, 황색바탕의 깃발에 벽봉과 청·적·황·백 네 가지 색깔의 구름문양이 그려져 있음.
- 황룡기(黃龍旗) : 용기, 용대기, 화룡대기, 교룡기, 황룡대기로도 불리며, 왕이 군대를 사열할 때 각 군영에 명령을 내릴 때 사용. 황색 바탕의 사각기로서 2마리의 용과 청·적·황·백으로 구름무늬가 있으며 기의 맨 위에는 삼지창으로 된 창두, 그 밑에 삭모가 달려 있음. 장교가 말을 타고 받쳐들며, 4명의 군사가 깃대에 잡아맨 끈을 사방에서 한 가닥씩 잡아당기며 이동.
- 각기(角旗, 청흑기·홍백기) : 방위에 따라 진중의 네 모퉁이(四角)에 세우고, 각 병졸은 이 깃발에 따라서 진영을 이룸. 깃발의 크기 사방 4자, 깃대의 높이 12자.
- 고조기(高照旗) : 기면을 동·서·남·북·중앙의 5방위로 나누어 동-푸른색, 서-흰색, 남-붉은색, 북-검은색, 중앙-노란색을 사용. 청기는 붉은색, 흰기는 검은색, 붉은 기는 노란색, 검은 기는 푸른색, 누른 기는 흰색으로 하였고, 깃대는 15자로 꼭대기에는 영두·주락·장목이 있으며, 영두에는 초롱이 달려 있음. 행로를 가르거나 합치는 신호를 내릴 때 쓰임.
- 초요기(招搖旗) : 일명 북두칠성기. 전투나 행진할 때 대장이 장수를 지휘하던 기. 임진왜란 이전 오위에서는 깃발에 북두칠성을 그린 기발을 사용. 임진왜란 이후 재편된 5군영의 각 영문에서 방위에 따라 바탕의 색을 달리하여 사용. 훈련도감-중앙, 금위영-좌편, 어영청-우편, 수어청-전면, 충융

청-후면, 용호영과 경기감영-중앙에 세움. 깃발은 사방 6자이며, 깃대의 높이는 19자. 국왕이 사열할 때나 거동할 때에 기를 둥글게 돌리면 해당 군영의 대장이 달려오고, 좌우로 흔들면 본진으로 돌아가며, 아래위로 끄덕이면 대열이 행진.

- 문기(門旗)·호기(虎旗) : 진문 밖에 세워 두는 군기로서 수효는 10개. 청색, 적색, 흰색, 흑색, 황색의 5방위 색으로 1방위에 2개씩 세움. 가장자리에는 황색, 깃발의 중앙에는 날개가 돋친 호랑이를 그려 넣음. 깃대의 길이는 약 12자이며, 창으로 된 깃대의 머리에는 영두와 주락이 붙어 있음. 좌문기·우문기는 어가가 거동할 때 무예청좌 우 옆에 세워 둠.
- 영장수기(營獎手旗) : 훈련대장의 수기에는 '삼군사령(三軍司命)'이라 쓰고, 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융청의 4영 대장의 수기에는 '禁衛軍司命', '御營軍司命', '守禦諸軍司命', '摠戎諸軍司命'이라 썼으며, 드림에는 5색을 사용.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9치이며, 깃대의 길이는 1.8자.
- 중군수기(中軍手旗) : 훈련중군의 수기에는 '三軍司令'이라 쓰고 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융청의 4영의 중군수기에는 '禁衛軍司令', '御營軍司令', '守禦諸軍司令', '摠戎諸軍司令'이라 씀. 드림의 빛깔은 해당 군영의 색을 따랐으며, 기면의 크기 사방이 9치이며, 깃대의 길이는 1.8자.
- 별장천총수기(別將千摠手旗) : 깃발의 색은 각각 방위의 빛깔을 따름.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8치이며, 깃대의 길이는 2자.
- 파총초관수기(把摠哨官手旗) : 각각 방위의 빛깔을 따름.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7치이며, 깃대의 길이는 3자.

* 참고문헌(參考文獻)

1. 원전

『장용영고사』
 『장용영대절목』
 『장용청절목초』
 『훈국등록』
 『어영청등록』
 『금위영등록』
 『승정원일기』
 『무예제보』
 『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도보통지』
 『병학통』
 『병학지남』
 『이진총방』
 『무비지』
 『기효신서』

2. 단행본

국방군사연구소 역, 『병학지남연의』, 1995
 김성운,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노영구,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문헌과해석사, 2000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박광용 외, 『조선정치사』, 청년사, 1990
 박현모, 『정조』, 푸른역사, 2001

- 이이화, 『문화군주 정조의 나라 만들기』, 한길사, 2001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국학자료원, 1985
- 임동규, 『실기 해제 무예도보통지』, 학민사, 1996
-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성신원, 1995
-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 허선도 외, 『한국의 명저(名著) 2』, 현암사, 1983

3. 논문

- 나영일, 『조선조의 무사체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 체육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1992
- 노영구 외, 『무예도보통지의 종합적 검토』, 제28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 자료집, 2000
- 박기동,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성균관대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배우성, 『정조대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장용영과 24반무예

발행인 : 김 종 기

저 자 : 김 영 호

감 수 : 정 동 진

발행처 : 수원문화원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산 2-1
031)244-2161

수원문화원

